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博士 學位論文

현대중국어 미세차이 비교구문 연구

2023年 8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梁 建 芬

현대중국어 미세차이 비교구문 연구

指導教授 이 강 재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3 年 5 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梁 建 芬

梁建芬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 年 7 月

위 원 장 박 정 구 (印)

부위원장 이 옥 주 (印)

위 원 백 지 영 (印)

위 원 박 민 준 (印)

위 원 이 강 재 (印)

【 국 문 초 록 】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비슷한 의미의 세 가지 비교구문인 ‘X 比 YW 一些’, ‘X 比 YW 不了多少’ 및 ‘X 比 YW 不到哪里去’의 통사, 의미, 화용 기능을 탐구하기 위한 데 있다. 비교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인지 방식 중 하나이다. 이전의 비교구문 연구가 일반적으로 정적인 비교구문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고에서는 화용론적 각도에서 비교를 표현할 때 화자의 입장, 태도 및 감정을 어떤 수단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반 비교구문과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대비는 물론 각각 세 구문 내부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인 특유의 담화 의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각 구문의 비교결과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무엇인가? 둘째, 각 구문의 의미 특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각 구문의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비교를 표현할 때 화자는 어떤 수단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까?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각각 2 장, 3 장, 4 장의 논의를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2 장에서는 우선 이 세 가지 비교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비교결과항에 쓰이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통점의 경우 첫째, 상태 형용사는 양(量)적인 특징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고, 성질 형용사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好/坏’, ‘大/小’ 등 의미적 대조를 이루는 1 음절 형용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형용사가 부정적인 형용사보다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이점의 경우 첫째, ‘W 一些’ 구문의 경우에는 비교결과항으로 W 는 성질 형용사이거나 심리동사, 동보구조, ‘有’+

추상명사 등이 사용된다. 이 구문에서 동사구가 쓰일 수 있는 이유는 형용사 처럼 정도량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W 不了多少’ 구문의 경우에는 비교결과항으로 주로 도량 측정이 가능한 일부 성질 형용사와 ‘高明’과 같은 평가적 형용사가 사용된다. 셋째, ‘W 不到哪里去’ 구문의 경우에는 비교결과항으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 ‘好’, ‘坏’, ‘差’ 등이 주로 사용된다.

3 장에서는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객관적 비교, 차등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 증거성 비교 등 개념을 사용하여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의 관계 차이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첫째, ‘一些’ 구문과 ‘不了多少’ 구문의 경우 비교주체와 비교객체가 동질성을 가지면 객관적 비교와 차등비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一些’ 구문: 高铁比动车好一些 [객관적 비교], 我比她还大一些 [차등비교]; ‘不了多少’ 구문: 他的个子比他妹妹高不了多少 [객관적 비교], 这些城市的非农业人口长期徘徊不前, 比刚建国时也多不了多少 [차등비교]에 해당됨.) 둘째, ‘不了多少’ 구문과 ‘不到哪里去’ 구문의 경우 부정부사 ‘不’로 인해 모두 동등비교와 반향비교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不了多少’ 구문: 雪下得太少了, 比浓霜厚不了多少 [동등비교], 你比我也强不了多少, 一样也是浑蛋. [반향비교]; ‘不到哪里去’ 구문: 赚也赚不到几个钱, 赔也赔不到哪里去 [동등비교], 我是个渣男, 你也好不到哪儿去, 凭什么训我? [반향비교]에 해당됨.) 셋째, ‘不到哪里去’ 구문의 경우에는 화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구문에서 그 근거를 추가하는 증거성 비교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师父笨, 徒弟自然也聪明不到哪里去 [증거성 비교]에 해당됨.)

4 장에서는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화용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W 一些’ 구문의 경우 화자는 양태부사와 양태동사를 통해 본인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우선 사용빈도가 높은 양태부사들을 보면 ‘的确’, ‘确实’, ‘诚然’ 등 기대부합 부사 또는 ‘稍’, ‘略’, ‘稍微’, ‘稍稍’, ‘略微’, ‘略为’, ‘稍许’ 등 稍微系 부사들이 포함된다.¹⁾ 다음으로 양태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

자의 견해와 태도를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강한 주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Palmer(2001)의 영어 양태동사에 대한 서술을 기반으로 ‘一些’ 구문의 주관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要’, ‘能’, ‘会’ 등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W 不了多少’ 구문의 화용론적 특징은 주로 과장식비교와 반기대비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과장식비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X와 Y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지 않고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유사성을 찾아 추상적인 비교기준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는 비유식 과장, 부각식 과장, 대비식 과장 등의 과장 정도에 따라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차이를 나타낸다. 반기대비교의 경우, Dahl(2001)은 중성정보, 반기대정보, 기대정보의 관점에서 ‘W 不了多少’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고찰했는데 흔히 대화나 독백의 맥락에서는 ‘发现’, ‘猜想’, ‘看来’, ‘觉得’, ‘在我眼中’ 등을 동반하는 수단으로 화자의 반기대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其实’, ‘居然’, ‘简直’ 등과 같은 반기대 부사가 공기하면 화자의 강한 의외성을 나타낼 수 있다. 셋째, ‘W 不到哪里去’ 구문의 화용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기대비교의 경우, 문맥을 통해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江南来的茶叶, 一定差不到哪里去[강남 지역은 중국의 주요 차 생산지로 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차의 품질이 좋다는 의미를 나타냄.]) 다음은 양태부사 ‘当然’, ‘肯定’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화자의 합리적인 추측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凌晨三点才睡觉的人儿, 隔天精神肯定好不到哪里去[화자가 자신의 견해를 강조함]) 마지막으로 양태 접속사인 ‘再……也’, ‘即使’, ‘就算’ 등을 통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대부분 ‘양보’를 나타내는 단문이나 ‘인과’ 또는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 쓰여 화자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주요한 수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爱书的女生再坏也坏不到哪里去[책을 좋아하는 여학생은 훌륭할 것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냄.])

1) 반기대 부사인 ‘反而’, ‘居然’ 등 의외성의 의미를 가진 부사는 ‘一些’비교문의 객관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 본고에서는 세 가지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 의미적 특징, 화용적 특징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 세 가지 비교구문의 용법 및 기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사적 측면에서 비교결과항 W에는 형용사,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부사와 접속사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비교주체(X)와 비교객체(Y) 간에 속성이나 상태 등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미세차이 비교구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문장 단위보다는 문맥 단위에서 명확하게 구현되는데 이는 주관성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용론 측면에서 이 세 가지 구문의 미세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논의를 통해 세 구문이 서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현대중국어에서 이 세 가지 구문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를 모색할 수 있다.

주요어: 비교구문, 객관적 비교, 주관적 비교, 차등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 기
대비교, 반기대비교, 과장식비교, 양태부사, 양태동사, 평가적 형용사,
담화기능

학 번: 2012-31255

〈목 차〉

【국문초록】	i
제1장 서 론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에 관한 고찰	8
1.3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6
1.3.1 이론적 배경	16
1.3.2 연구 방법	19
1.3.2.1 형용사의 분류	19
1.3.2.2 비교 유형 분류	25
1.4 논의 구성	32
1.4.1 연구의 범위 및 자료	32
1.4.2 논의 구성	33
제2장 미세차이 비교구문 통사적 특성	35
2.1 ‘X比YW一些’ 구문	35
2.1.1 비교항의 대칭성	35
2.1.2 비교결과항의 성분	42
2.1.2.1 성질 형용사	42
2.1.2.2 심리동사	53

2.1.2.3 동보구조	55
2.1.2.4 ‘有’+추상명사	56
2.2 ‘X比YW不了多少’ 구문	60
2.2.1 비교항의 대칭성	60
2.2.2 비교결과항에 쓰이는 형용사	64
2.2.2.1 도량형용사	65
2.2.2.2 평가적 형용사	69
2.3 ‘W不到哪里去’ 구문	72
2.3.1 비교항의 대칭성	72
2.3.2 비교결과항에 쓰이는 형용사	73
2.3.2.1 성질 형용사	76
2.3.2.2 평가적 형용사	77
2.4 소결	80

제3장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의미적 특성 82

3.1 ‘X比YW一些’ 구문	82
3.1.1 객관적 비교	82
3.1.2 차등비교	85
3.2 ‘X比YW不了多少’ 구문	87
3.2.1 객관적 비교	87
3.2.2 동등비교	89
3.2.3 반향비교	90
3.3 ‘W不到哪里去’ 구문	93
3.3.1 주관적 비교	93
3.3.2 동등비교	95
3.3.3 반향비교	98

3.3.4 증거성 비교	101
3.4 소결	103
제4장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화용적 특성	106
4.1 ‘X比YW一些’ 구문	107
4.1.1 양태부사의 사용	108
4.1.2 양태동사의 사용	116
4.2 ‘X比YW不了多少’ 구문	125
4.2.1 과장식비교	125
4.2.2 반기대비교	131
4.2.3 양태부사의 사용	141
4.3 ‘W不到哪里去’ 구문	144
4.3.1 기대비교	144
4.3.2 양태부사의 사용	147
4.3.3 양태접속사의 사용	150
4.4 소결	163
제5장 결 론	167
【參考文獻】	172
【中文摘要】	182

〈표 차례〉

<표 1-1> ‘一些’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21
<표 1-2> ‘不了多少’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22
<표 1-3> ‘不到哪里去’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23
<표 1-4> 세 가지 비교구문의 형용사와 예문의 수	24
<표 1-5> 본고 형용사의 명칭 분류	25
<표 1-6>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나타나는 비교 유형	32
<표 2-1> ‘一些’ 구문에서 형용사의 적극의미-소극의미의 대비	52
<표 2-2> ‘不了多少’ 구문의 형용사	64
<표 2-3> ‘不了多少’ 구문에서 형용사의 적극의미-소극의미의 대비	66
<표 2-4> ‘不到哪里去’ 구문의 형용사	73
<표 2-5>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형용사의 적극의미-소극의미 대비	75
<표 2-6> 세 비교구문의 객관성과 주관성 차이	81
<표 3-1> 비교점의 속성 생략 여부	84
<표 4-1> ‘一些’ 구문의 양태부사	109
<표 4-2> 양태동사와 ‘比’의 위치(BCC)	117
<표 4-3> ‘不了多少’ 구문의 주관적 표기	134
<표 4-4> 한국어 접속부사의 분류	151
<표 4-5> 양태 접속사 ‘即使’의 분류	157

〈그림 차례〉

<그림 1-1> ‘一些’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22
<그림 1-2> ‘不了多少’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23
<그림 1-3> ‘不到哪里去’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24
<그림 4-1> ‘一些’ 비교구문에 나타나는 제한적 부사	113
<그림 4-2> ‘一些’ 비교구문에 출현하는 중성기대 부사	115
<그림 4-3> 정보 값의 종류	133
<그림 4-4> 접속부사와 양태부사의 관련성	151

제1장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대상 간에 ‘비교’를 통해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복잡한 외부 세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사물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들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교 관계가 언어표현에 투사되면서 비교 범주는 등등비교, 차등비교 등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구성원이 하위체계를 가지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비교’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인지 방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어 언어학계에서도 비교문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다양한 비교 표지에 기반한 전형적인 비교 구문에 대한 연구이다(邓凤民 2012, 郑慧仁 2013, 杨艳·江荻 2016). 고대 중국어에서는 주로 ‘于’자문, ‘方之’²⁾구문을 논의하였고, 현대중국어에서는 주로 ‘比’자문, ‘不如’ 구문, ‘像……一样’ 구문, ‘有’자문을 논의하였다(黄晓 1992, 相原茂 1992, 曾艳 2001, 胡斌彬 2010, 周丁钉 2013, 马赫 2016). 통시적인 관점과 제 2 외국어 습득의 관점에서도 비교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陈珺·周小兵 2005, 谢白羽 2011, 叶诗雨 2016, 孙艳霞·刘向晖 2017, 郭帅 2021).

2) 梁建芬(2021)에 따르면, ‘方之’ 구문은 東漢 말기에 발생하여, 위진·육조 시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주로 ①X方之于Y, ②X方之Y, ③X以Y方之, ④X, 方之更W 등 4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쓰이는 특정한 비교구문이 어떤 통사 환경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담화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많지 않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미세차이 비교구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세차이 비교구문은 비교주체와 비교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예를 들어, 외모, 키 등)의 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구문을 의미한다. 현대중국어의 대표적 미세차이 비교구문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1) a. X比YW一些
- b. X比YW不了多少
- c. W不到哪里去

X는 비교주체³⁾이고, Y는 비교객체⁴⁾이며, W는 비교결과항⁵⁾이다. 대부분의 비교문에서 비교결과항은 형용사가 쓰이지만 ‘X比YW一些’ 구문에서는 비교결과항으로 동사가 출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구문에는 모두 개사 ‘比’를 수반할 수 있으며, W 뒤에 서로 다른 표지가 출현한다. (1b), (1c)는 부정부사 ‘不’를 부가하였으며, (1b)는 의문대사 ‘多少’를 부가하였고, (1c)는 의문대사 ‘哪里’를 부가하였다. 이처럼 미세차이 비교구문은 통사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의미 기능 역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비교주체(Comparative subject)는 보통 비교주체, 비교 중심 대상(오경숙 2003), 비교어구(김정대 1993), 비교주체어(하길중 1998) 등으로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刘丹青(2012), 李蓝(2003), 张赅(2005)에 따라 비교주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4) 비교객체(Comparative object)는 비교기준(刘丹青 2012, 李蓝 2003), 기준어구(김정대 1993), 비교 기준 대상(오경숙 2003)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张豫峰(1999)에 따라 비교객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5) 본고의 비교결과항은 李蓝(2003)의 비교결과(比较结果)라는 용어를 참고하고 ‘항’을 추가해서 만들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 a. 他个头比我高一些。
그의 키는 나보다 조금 크다.
b. 他个头比我高不了多少。
그의 키는 나보다 얼마 크지 않다.

(2)는 ‘他’와 ‘我’의 키 차이가 크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2a)는 ‘高一些’를 써서 키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나타내지만, (2b)는 ‘高不了多少’를 써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남자친구의 월급에 관한 대화를 나타낸다.

- (3) a: 你男朋友每个月赚多少钱?
당신의 남자친구는 한 달에 얼마나 버나요?
b: 一万元。
1만 위안요.
a: 哇! 这么多!
와! 그렇게 많아요!
b1: 嗯, 是的, 比我多一些。
응, 맞아, 나보다 조금 많아.
b2: 多什么啊, 比我多不了多少。
뭐가 많아요? 나보다 별로 많지 않은데요.
b3: *多什么啊, 比我多一些。

(3a)는 (3b)의 남자친구 월급 1만 위안이 큰 액수라고 여긴다. 이에 대해 (3b)가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어지는 대화가 달라진다. (b1)는 “嗯, 是的, 比我多一些.”처럼 1만 위안이 많은 월급이라는 (a)의 말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보다 조금 많다는 의미로 ‘一些’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b2)과 (b3)는 ‘多什么啊’라는 별로 많은 것

이 아니라는 (3b)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나보다 조금 많다는 미세차이 비교구문은 (b2)처럼 ‘不了多少’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b3)처럼 객관적으로 나보다 조금 많다는 의미로 ‘一些’를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一些’와 ‘不了多少’의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세차이 비교구문에서 ‘一些’와 ‘不了多少’를 썼을 때의 차이를 보이는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4) a. 两人同班了十多年, 感情当然比别人要好一些。
b. *两人同班了十多年, 感情当然比别人好不了多少。
두 사람은 십여 년 동안 같은 반이었으니 감정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을 거예요.
- (5) a. *两人同班了十多年, 感情居然比别人要好一些。
b. 两人同班了十多年, 感情居然比别人好不了多少。
두 사람은 이미 같은 반에서 십여 년을 지냈지만 감정이 뜻밖에도 다른 사람보다 얼마 많이 좋지 않습니다.

(4)는 ‘当然’이라는 부사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 (4a)처럼 ‘一些’를 쓸 수 있지만 (4b)처럼 ‘不了多少’를 쓸 수 없다. (5)는 ‘居然’이라는 부사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 (5a)처럼 ‘一些’를 쓸 수 없지만 (5b)처럼 ‘不了多少’를 쓸 수는 있다. 즉, 부사어의 차이로 문법적 적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양태부사를 사용했음에도 ‘一些’와 ‘不了多少’ 구문이 모두 문법적으로 타당하다.

- (6) a. 他妈妈是个旧式女人, 虽然比一般人稍微高明一些, 但也高明不了多少。
그의 어머니는 옛날 여자여서 일반 사람보다 조금 현명이지만 많이 현명하지는 않다.
- b. 他妈妈是个旧式女人, 比一般人高明不了多少, 稍微高明一些。
그의 어머니는 옛날 여자여서 일반 사람보다 크게 현명하진 않고 조금 더 현명할 뿐이다.

부사 ‘稍微’를 사용한 (6)은 ‘一些’와 ‘不了多少’ 구문 모두 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되는데 양태부사 ‘当然’과 ‘居然’에 의해 ‘一些’와 ‘不了多少’ 구문 사이에 적법성이 달라진다. 이로부터 양태부사에 의해 미세차이 비교구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不了多少’와 ‘一些’ 구문이 호환되지 않는 예문을 좀 더 살펴보자.

- (7) a. 一般来说, 男人的寿命比女人要短一些。
 b. *一般来说, 男人的寿命比女人要短不了多少。
 일반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수명이 여자보다 조금 더 짧을 것이다.
- (8) a. 我真想不到你游得那么好, 比孙杨慢不了多少。
 b. *我真想不到你游得那么好, 比孙杨慢一些。
 나는 당신이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생각도 못 했다. 쑤양보다 그다지 느리지 않아.

(7)은 양태동사 ‘要’가 쓰인 경우인데, (7a)의 ‘一些’ 구문은 추측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양태동사인 ‘要’와 함께 쓰인 것이 문법적으로 적격하지만 ‘不了多少’가 쓰인 (7b)는 비문이다. 이는 ‘不了’에 이미 화자의 주관적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⁶⁾ 양태동사 ‘要’를 부가한 (7b)는 주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기가 복잡해져서 언어 경제성 원리⁷⁾에도 위배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8)은 과장 용법을 갖는 미세차이 비교구문이다. ‘不了多少’를 쓴 (8a)는 문법적으로 적격하지만, ‘一些’를 쓴 (8b)는 비문이다. 두 문장에서 통사적 부분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는 과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비교객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孙杨’이 중국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세

6) 吴福祥(2002) 참조.

7) Zipf(1949:19)가 처음으로 ‘최소 노력 원칙(principle of least effort)’의 이론을 제시한 후 학자들은 ‘언어 경제성 원리’를 언급하였다. 언어 현상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개념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의사소통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계기록 보유자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비교객체와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좀 더 살펴보자.

(9) 师父笨, 徒弟自然也聪明不到哪里去。

스승이 바보라면, 제자도 당연히 그리 똑똑하지 못할 것이다.

(10) 他的死比泰山轻不了多少。

그의 죽음은 태산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

(9)에서 비교는 암시적일 뿐이다. 스승을 바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반면, 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자의 똑똑한 정도는 스승보다 크지 않다고 표현하였다. (10)은 비교주체 ‘그의 죽음(他的死)’과 태산을 비교한다. 일반적인 비교문이라면 죽음과 삶 등 같은 속성을 비교하지만 이러한 관례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태산이라는 과장적 비교객체를 사용한다. 이렇듯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성격이 전혀 다를 때의 미세차이 비교구문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8~10)을 통해 비교객체의 성격과 관련해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不到哪里去’ 구문을 통해 주관적인 감정의 평가를 나타내는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1) 多你一个不算多, 少一个也少不到哪里去。

당신 하나 추가해도 많지 않고, 당신 하나 빠져도 그렇게 적지도 않다.

(11)은 한 사람의 중요성 여부를 표현할 때 구어체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즉, ‘하나가 더 있다고 많지 않고, 하나가 더 없다고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부터 ‘不到哪里去’가 객관적인 수량이 아닌 주관적인 감정의 평가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미세차이 비교구문에서 객관적인 수량과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구문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不到哪里去’와 ‘一些’ 및 ‘不了多少’ 구문이 호환되지 않는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2) a. 堵车的时候, 即使打车也比坐公交车快不到哪里去。
 b. *堵车的时候, 即使打车也比坐公交车快一些。
 차가 막힐 때, 택시를 탄다고 해서 버스 타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겠어?
- (13) a. 你说我们丑! ? 你自己也帅不到哪里去。
 우리가 못생겼다고! ? 당신도 그렇게 멋지지 않아!
 b. *你说我们丑! ? 你自己也帅不了多少!

(12)에서 ‘即使’는 선행절이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고 후행절의 결과나 결론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문은 양보 또는 전환 관계에 속한다. 양보 또는 전환을 나타내는 복문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식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이러한 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 ‘不到哪里去’가 쓰인 (12a)는 문법적으로 적격한 반면, ‘一些’를 쓴 (12b)는 비문이다. 이는 전환복문에서 미세차이 비교구문을 쓰는 데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13)은 서로 외모를 공격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선행절은 ! ? 의 두 가지 문장부호를 병렬해서 쓰면서 상대의 평가에 대해 분노 또는 불만을 나타내며, 후행절에서는 부정적인 말투와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평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강한 평가의 어투는 (13a)처럼 ‘不到哪里去’를 사용할 수 있지만 (13b)처럼 ‘不了多少’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어투가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구문의 선택제약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미세차이 표현의 비교구문 간에 나타나는 통사적, 의미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매우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통사적 측면에서 비교결과항 W에는 형용사,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부사와 접속사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비교주체(X)와 비교객체(Y) 간에 속성이나 상태 등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세차이 비교구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의미 차이는 문장 단위보다는 문맥 단위에서 명확하게 구현되며 이들 간에 의미 차이가 주관성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一些’, ‘不了多少’, ‘不到哪里去’ 이 세 가지 미세차이 비교구문은 비교주체와 비교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외모, 키 등)의 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정도의 차이가 아주 작은 구문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구문이 비슷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서, ‘居然’, ‘当然’와 같은 부사들이 세 가지 구문에 다르게 적용되는지, ‘不到哪里去’ 구문이 ‘即使’와 같은 양태접속사와 함께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관계를 보면 ‘不到哪里去’는 아버지와 아들같이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는 대상을 비교하는 반면, ‘不了多少’ 구문은 죽음과 태산과 같은 동질성이 없는 대상이나 상황을 비교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차이 비교구문인 ‘一些’, ‘不了多少’, ‘不到哪里去’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분석하여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1.2 선행 연구에 관한 고찰

1.2.1 일반 비교구문에 관한 선행연구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는 중국어 문법 체계를 최초로 논의한 《马氏文通》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중국 내 문법학자들은 중국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898년 《马氏文通》에서 비교 범주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를 시작한 이후 黎锦熙(1924:184~186), 高名凯(1948:497~503), 吕叔湘(2002) 등 문법학자들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초기의 논의는 주로 비교 범주의 정의와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특히 吕叔湘(2002)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었다. 이후 80년대 초부터 문법학자들은 ‘비교’에 대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및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여 ‘比’자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马真 1985, 殷志平 1987, 任海波 1987, 邵敬敏·刘焱(2002), 刘慧英 1992, 谢仁友 2006, 许国萍 1996[2007]). 21세기 이후로 통시적, 유형학적인 시각에서 중국어 비교구문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방언, 소수 민족어 등에도 관심을 확대시켰다. 최근에는 컴퓨터언어학의 관점에서 비교문의 추출 및 인식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朴敏浚 2017).

우선 비교 범주 면에서 각자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논의로는 马建忠(1898), 高名凯(1948), 吕叔湘(2002), 刘焱(2004), 陈珺·周小兵(2005) 등이 있다. 马建忠(1898)은 비교문의 범주를 ‘동등비교(平比)’, ‘차등비교(差比)’, ‘최상급 비교(极比)’로 구분하였고⁸⁾, 高名凯(1948)는 비교문을 ‘차등비교’와 ‘최상급 비교’로 구분하였다. 이후 吕叔湘(2002:352~371)은 ‘比较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비교를 ‘类同(유사)’, ‘比拟(비유)’, ‘近似(근사)’, ‘高下(상하)’, ‘不及(미달)’, ‘胜过(우월)’, ‘尤最(최상)’, ‘得失(득실)’, ‘不如(불여)’, ‘倚变(의변)’ 등 10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刘焱(2002)은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비교를 ‘동등’과 ‘차등’

8) 马氏文通(1898:144)은 ‘論比三之八’이라는 장에서 비교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만물의 형태 속성은 통일된 표현 방식이 없다. 동일한 형용사에 대해 사물 간의 비교나 유사한 관계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비교의 의미이다. (“凡色相之麗於髓也，至不齊也。同一静字，以所肖者浅深不能一律，而律其不一，所謂比也。”) 동등비교, 차등비교, 최상급비교 이 세 가지 분류 방법은 후속 연구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으로 구분하였고, ‘동등’을 다시 ‘相同’, ‘类同’, ‘近似’ 등으로 하위 분류했으며 ‘차등’에 대해서는 ‘不及’, ‘高出’, ‘极端’ 등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陈珺·周小兵(2005)은 외국 유학생의 중국어 비교문에 대한 학습 오류를 측정하여 비교구문을 20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비교구문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비교구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비교문을 제시하고 각각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부사와 관련된 연구(陆俭明(1980), 沈红丹(2003), 文全民(2008)), 비교구문의 부정형과 관련된 연구(相原茂(1992), 张和友(2002), 吴福祥(2004), 郭娜(2005), 吴瑛健(2013), 刘娜(2013))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부사의 쓰임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陆俭明(1980)에서는 비교문에 쓰이는 부사 ‘还’와 ‘更’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비교문을 다섯 가지 구문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문에서 ‘还’와 ‘更’의 의미와 용법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更’은 단순히 객관적인 정도의 발전(递进发展)을 나타내는 반면 ‘还’는 전환이나 변화(转折变化)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沈红丹 (2003)은 ‘还’는 화자의 기대와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의미를 나타내며 주관적인 평가와 태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文全民(2008)은 ‘更’과 ‘还’의 비대칭 현상을 조사하여 긍정문과 부정문에서의 용법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更’과 ‘还’를 서로 교체할 수 있지만, 부정형식에서는 ‘更’과 ‘还’의 사용 조건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还’는 일반적으로 부정 비교문에서 반문 어기(反问语气)를 나타내는 데 반해, ‘更’은 주로 서술문에서 사용한다. 다음으로 비교문의 부정형식과 관련된 연구는 相原茂(1992), 张和友(2002), 吴福祥(2004) 등이 있으며 주로 ‘不比’와 ‘没有’ 비교구문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郭娜(2005), 吴瑛健(2013), 刘娜(2013) 등에서는 ‘不比’, ‘不如’, ‘不像’ 등 구문 간에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상 기존의 일반 비교구문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비교구문에 대한 유형 분류에 중심을 두었고 대부분 각 유형에 속하는 예문들을 열거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비교문에 쓰이는 부사에 주목한 연구도 몇몇 있었지만 주로 ‘更’과 ‘还’의 차이에 대해 고찰했을 뿐 기타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형식의 비교구문의 경우에는 단지 구문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긍정식 비교구문과의 대조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2.2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대한 선행 연구

다음은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미세차이 비교구문 ‘W 一些’, ‘W 不了多少’, ‘W 不到哪里去’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W 一些’

지금까지 학자들은 주로 어휘적 측면에서 ‘一些’와 ‘一点儿’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W 一些’의 비교 의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W 一些’와 ‘W 一点’은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一些’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W 一点’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陈冰飞·郭桃梅(2012)를 포함한 여러 학자의 ‘一些’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一些’의 핵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陈冰飞·郭桃梅(2012)는 Horn(1972)의 관점을 참고하여, 실험을 통해 ‘一些’의 핵심 의미는 전체에서 작은 부분을 가리키지만 경우에 따라 ‘전체’(全部)의 의미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는 주관, 객관의 측면에서 ‘一些’와 ‘点儿’의 단어 의미 차이를 연구했다. 胡雷(2008)는 명사 수식에 있어서 ‘一些’는 객관적인 표현이고, ‘一点儿’은 주관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一点儿’와 ‘一些’ 간 용법의 구분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一些’의 미세차이 비교구문 측면에서 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A 一点’ 구문에 대해서는 현대중국어 문법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A 一点’ 구문의 의미와 ‘A’ 형용사의 특징과의 연관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A 一点’의 형용사 특징에 대해서는 马庆株(1992)와 陆俭明·沈阳(2004)의 견해가 있다. 马庆株(1992)는 ‘A 一点’ 구문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는 사람이 통제 가능한 [+可控(통제 가능)]의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며, 陆俭明·沈阳(2004)은 ‘A 一点’ 구문은 명령문(祈使句)에서 사용되며 [+可控(통제 가능)]의 의미적 특징 외에도 반드시 [-非贬义(비하하지 않는)]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의 두 학자의 논문에서는 ‘聪明’, ‘高尚’, ‘谦虚’, ‘大方’과 같은 형용사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⁹⁾

‘A 一点’의 구문 의미에 대해 袁毓林(1993)은 ‘A 一点’이 명령문에 쓰일 때 형용사 ‘A’는 고정적인 의미가 아닌 변화의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에게 ‘快一点’이라고 말하면 지금 속도보다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张平(2007)은 ‘A+点’이 비교구문에서 사용되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구문에서 형용사 ‘A’의 성질은 ‘哥哥高一点’과 같이 약간 더 높거나 더한 정도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2. ‘W 不了多少’

현대중국어 언어학 분야에서 ‘W 不了多少’ 구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沈开木(2000), 张雪梅(2015), 卢博敏(2020), 郭若祺(2022) 등의 논문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陆俭明·沈阳(2004:124)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과 함께할 때 ‘겸손(谦虚)’하고 ‘대담(大方)’해지도록 자신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하다(聪明)’ 또는 ‘고상하다(高尚)’와 같은 형용사의 성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싶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상해지고 싶다고 해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沈开木(2000)은 ‘A 不了多少’ 구문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A의 성질에 주목하여, A는 비교문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구문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A에 대한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후 张雪梅(2015)는 沈开木의 연구를 기반으로 ‘A 不了多少’ 구문의 의미 특징과 담화 기능에 대해 더욱 깊이 논의하였다. 그는 이 구문에서 두 비교항은 비교성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화자의 주관적 평가 또는 감정을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 구문은 대비성(对比性), 모호차이성(模糊差异性), 역설 의미(悖离义) 등 3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연구는 언어 환경과 비교객체의 속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要金牛座诚心道歉, 比登天容易不了多少(황소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받으려 하는 것은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구문에서 과장의 표현 수단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과장 표현과 비교객체인 ‘登天’의 성질 간에 관계는 연구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卢博敏(2020)은 ‘A 不了多少’ 구문의 문법 기능,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외국인 학생의 오류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A 不了多少’의 의미에 대한 이전의 결론에 머물렀으며, 문법 기능의 분석도 표층적으로만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구문의 사용 및 의미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는 ‘W 不了多少’의 용법 기능과 여러 언어 맥락에서의 사용에 대한 더 깊은 분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郭若祺(2022)는 ‘A 不了多少’ 구문이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관계에 따라 서술적 평가(叙实性评价)와 과장적 평가(夸张性评价)의 두 가지 평가 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과장적 평가에서 비교객체는 전형적인(典型)¹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교객체

10) 郭若祺(2022)는 아래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의 종류에 따라 과장의 정도도 다를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4.2.1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상 언급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대부분 ‘A 不了多少’ 구문의 의미, 형용사의 특징, 비교의 종류 등 구문문법의 측면에서 접근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언어환경의 측면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았다. 또한, 예문을 설명할 때 발화가 쓰이는 구체적인 담화 환경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예문을 분석해보면 구체적인 대화 환경에 따라 ‘A 不了多少’의 과장과 반기대비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담화 환경을 고려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W 不到哪里去’

‘W 不到哪里去’와 관련된 논문은 지금까지 吴为善·夏芳芳(2011), 全国斌(2014), 후문옥·김현철(2017, 2023), 李梦梦(2018), 丁晓菲(2019), 岳辉·郭若祺(2021) 등 6 편이 있다. 이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吴为善·夏芳芳(2011)은 구문문법 이론을 기반으로 ‘A 不到哪里去’ 구문의 사용환경과 구문의 생성 기제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으로 ‘A 不到哪里去’ 구문은 인과, 조건 등 복문 환경에서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문에 대한 예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你爸爸没有出息, 你也好不到哪里去。”에서는 한 사람의 성공 여부가 가정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 관점인 ‘老子英雄儿好汉’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吴为善·夏芳芳(2011)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해 모욕이나 비판하는 언어적 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这还是人吗? 比鬼好看不了多少。(사람이 맞긴 한가요? 귀신보다 딱히 예쁘지 않아요.)여기에서 ‘귀신’은 전형적으로 공포영화에서의 인식처럼 매우 못생기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万国斌(2014)은 정도량(程度量)의 관점에서 ‘A 了去了’와 ‘A 不到哪里去了’ 두 구문 간 의미 차이를 분석했다. 그는 화용적 기능과 구문 형성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 ‘A 不到哪里去了’ 구문은 ‘A 了去了’와 달리 과도한 과장(极度夸张)이 아니고 적당한 과장(适度夸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용사 A를 도량형용사¹¹⁾에만 집중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주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즉, 과장된 비교는 일반적으로 평가적 형용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侯文玉·金鉉哲(2017[2023])은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주관성과 주관량을 중심으로 ‘X 不到哪里去’ 구문의 의미와 특징을 논의하였다. 특히 주관량에 관련이 되는 비교표기, 부사, 양태동사, 담화표지어 등과 공기하며 주관량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찰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X 不到哪里去’ 구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不到哪里去’ 구문과 공기할 수 있는 부사에는 ‘其实’, ‘实在’, ‘自然’, ‘总’ 등이 있다. 그러나 각 부사가 ‘X 不到哪里去’와 공기할 때 어떤 화용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李梦梦(2019)은 양적 범주이론¹²⁾을 바탕으로 ‘V/A 不到哪里去’ 구문의 양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V/A 不到哪里去’ 구문의 의미는 물체의 양(物量), 주로 사물에 대한 수량을 부정한다. 이 논문이 비교적 짧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V/A 不到哪里去’ 구문의 담화기능을 다루기가 부족했다.

丁晓菲(2019)는 대외 중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A 不到哪里去’와 ‘A 不了

11) 陆俭明(1989)은 양적[量性] 특징을 지닌 성질 형용사를 ‘도량형용사(量度形容词)’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보통 ‘大/小’·‘长/短’·‘高/低’ 등과 같이 쌍으로 출현한다. 도량형용사라는 용어는 박민준(2018)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12) 李宇明(2000:30)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사물(인간, 동물), 사건, 특성 등이 모두 ‘양(量)’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양(量)은 물체의 양(物量), 공간의 양(空间量), 시간의 양(时间量), 동작의 양(动作量), 레벨량(级次量), 어세(语势) 등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多少’ 두 가지 구문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구문 의미와 화용적 특징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두 구문의 구조와 문체상의 차이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구문의 언어적 특징을 묘사한 것에 그치며,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岳辉·郭若祺(2021)는 ‘A 不了多少’와 ‘A 不到哪里去’ 두 가지 구문을 비교하며 두 구문의 차이점을 중점 논의했다. 이 연구에서 ‘A 不了多少’ 구문에는 주로 도량형용사가 들어가는 반면, ‘A 不到哪里去’에는 주로 긍정적인 형용사 ‘好’와 부정적인 형용사 ‘坏’ 등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상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A 不了多少’와 ‘A 不到哪里去’가 형식과 의미 면에서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두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위 두 구문 외에도 ‘W 一些’까지 추가하여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3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3.1 이론적 배경

비교문은 현대 중국어에서 특징적인 구문 중 하나이다. 그중 미세차이 비교구문은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내부 특징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구문들의 화용론적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담화분석과 주관화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이론이 비교구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은 미국 언어학자 Zellig Harris(1952)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담화분석은 단일 문장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문장을 연구하여 담화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구조에 초점을 둔다.¹³⁾ 이후 Hill et al. (1986:349)¹⁴⁾은 담화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우리가 언어표현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상호편안함의 기준을 설정하고 교감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我这身衣服怎么样? 这样搭配好看吗?” 丈夫走过来向妻子问到, 妻子笑了一笑, “你的裤脚破了个洞, 还有上下颜色不太搭配…。总之, 好看不到哪里去。”(“내가 입는 옷 어때요? 이렇게 매칭하면 잘 어울려요?” 남편이 다가와 묻자 아내가 웃으며 “바짓가랑이에는 구멍이 있고 위아래의 색깔도 안 어울려요. 어쨌든 별로예요.”)라고 말했다. 이 문장에서 남편의 옷차림에 대한 아내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남편에게 입고 있는 옷이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을 고르는 데 있어 서도 세심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难看’ 대신 ‘好看不到哪里去’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즉,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긍정적인 어휘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W 不到哪里去’에 긍정적인 형용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W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10개 형용사를 살펴보면 부정적 형용사는 ‘差’, ‘坏’ 등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好’, ‘好看’, ‘高’, ‘强’, ‘高明’, ‘高级’, ‘聪明’, ‘清高’ 등 8개 형용사는 모두 긍정적인 형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성(subjectivity)’은 일반적으로 Benveniste(1971:226)¹⁵⁾가

13) 廖秋忠(1991)에서 재인용.

14) Watts(2003:51)에서 재인용.

원문: “Politeness is one of the constraints on human interaction, whose purpose is to consider other’s feeling, establish levels of mutual comfort and promote rapport.”

15) “It is in the instance of discourse in which I designates the speaker that the speaker proclaims himself as the ‘subject’, and so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 basis of subjectivity is in the exercise of language.”

제시한 ‘언어에 대한 자아의 태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의 뒤를 이어 Lyons(1977[1982]), Langacker(1990) 등 학자들은 주관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Lyons(1982:102)¹⁶⁾는 언어의 주관성을 의미연구의 범주로 성공적으로 귀납한 학자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표현에는 주체 자아의 인식 감지, 태도, 의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Langacker(1990)는 인지언어학의 대표적인 언어학자로 Lyons(1982)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시적인 측면에서 주관성을 서술했다. Langacker(1990)의 관점에 따르면, 주관화는 화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언어적인 표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관화는 언어 사용자들 간에 공유되는 개념 구조를 형성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의미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주관화는 언어 학습과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어떤 시각으로 외부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주관화이론과 관련해 학자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지만 대략 아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¹⁷⁾

- a. 화자의 관점(perspective)
- b. 화자의 감정(affect)
- c. 화자의 인식(epistemic modality)

주관성이란 용어는 비록 현대중국어 문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우선 沈家煊(2001:271)이 제시한 화자의 인식과 관련 있는 양태부사, 양태동사 등이 비교문에 쓰이는 것에 주목해 본고의 연구대상인

16) the term subjectivity refers to the way in which natural languages, in their structure and their normal manner of operation, provide for locutionary agent's expression of himself and of his own attitude and beliefs. (Lyons 1982:102 재인용)

17) 沈家煊(2001:269)에 인용.

미세차이 구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如果每个人都关心自己的事, 地球就会比现在转得快一些。(만약에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신경을 쓴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문에서 양태동사 ‘会’를 사용하면서 지구의 속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화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항상 466m/초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것이 보편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X 比 YW 不了多少’ 구문에서 ‘多少’는 허화(虚化) 용법¹⁸⁾이고, ‘不了’ 뒤에 후행한다. 이 구문에서 ‘不了’는 화자가 관련된 ‘多少’에 대한 주관적 부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주관적 부정은 언어 환경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유형의 주관화는 화자의 바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如’, ‘即使’ 등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如四个人一起外出, 坐的士比巴士贵不了多少。(가령 네 명이 함께 외출한다면, 택시를 타는 것이 버스보다 크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에서 선행절 ‘如四个人一起外出’는 화자가 ‘贵不了多少’를 판단하는 전제로 간주된다. 따라서 화자는 문맥의 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내세워 자기의 판단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 ‘X 比 YW 一些’는 일반적으로 조건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주관화 이론을 토대로 부사와 반기대 관계, 주관화와 주어 인칭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세 구문의 주관화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3.2 연구 방법

1.3.2.1 형용사의 분류

형용사 분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 朱德熙(1956,1982), 陆俭明

18) 陈昌来, 占云芬(2009)에서 참고.

(1989), 沈家煊(1995), Stojanovic (2015)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형용사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朱德熙(1956, 1982)는 형용사를 성질 형용사와 상태 형용사로 구분했다.¹⁹⁾ 이러한 분류는 지금까지 중국 문법학계에서 중국어 문법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陆俭明(1989)은 형용사가 [+도량(量度)]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량형용사’를 정의했다. 이런 종류의 형용사는 대부분 일음절 형용사이고 사물의 길이, 넓이, 두께, 수량 등을 묘사한다. 또한 大-小, 长-短, 高-矮 등 쌍을 이루는 형용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沈家煊(1995)에서는 인간의 인식은 ‘有界’와 ‘无界’의 대립을 가지며, 물체는 공간상에서 ‘有界’와 ‘无界’로 구분되고, 동작은 시간상에서 ‘有界’와 ‘无界’로 구분되며, 특성은 정도나 양상에서 有界와 无界로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有界 형용사는 명확한 한계나 제한이 있는 형용사를 가리키며, ‘大’, ‘高’, ‘远’ 등이 있다. 이들은 한정된 정도를 나타내며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大의 한계는 물체의 크기이며, 高의 한계는 물체의 높이이다. 无界 형용사는 명확한 한계나 상한이 없는 형용사를 가리키며, ‘好’, ‘美丽’, ‘聪明’ 등이 있다. 이들은 무한한 정도를 나타내며 명확한 한계가

19) 朱德熙(1956:1~2)는 현대중국어의 형용사를 간단식과 복잡식으로 나누었다. 간단식 형용사는 일음절 형용사(大, 红, 多, 快, 好)와 이음절 형용사(干净, 大方, 糊涂, 规矩, 伟大)이고, 복잡식은 아래의 네 종류 형용사이다.

- a. 重叠式(중첩식) : 小小儿, 远远儿, 老老实实, 干干净净
- b. 带后加成分的形容词(형용사+부가성분) : 黑乎乎, 乱哄哄, 甜丝丝, 光溜溜, 香喷喷, 红通通, 蓝英英, 绿油油, 干巴巴, 硬邦邦, 慢腾腾, 傻里呱唧, 黑咕隆咚, 灰不溜湫, 白不吡咧
- c. 雪白, 冰凉, 通红, 鲜红, 喷香, 粉碎, 稀烂, 贼亮, 精光
- d. 以形容词为中心构成的词语(형용사구) : 很大, 很好, 非常漂亮, 那么长, 多么新鲜

朱德熙(1956:4)는 간단식 형용사는 단순한 속성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를 성질 형용사라고 한다. 반면 복잡식 형용사는 상황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며 이를 상태형용사라고 한다. 본고의 성질 형용사는 朱德熙의 개념을 따른다.

없다. 따라서 형용사의 有界와 无界의 분류 방법은 여전히 정도성(程度性)에 중점을 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tojanovic(2015)은 형용사를 정도적 형용사, 다차원 형용사, 체감 형용사, 평가적 형용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도적 형용사는 ‘热’, ‘大’와 같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형용사이고, 다차원 형용사는 ‘美丽’, ‘聪明’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형용사이고, 체감 형용사는 ‘咸’과 같이 경험자의 감각과 관련이 있는 형용사이고, 평가적 형용사는 ‘好’, ‘坏’와 같이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다음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W 一些’ 구문, ‘W 不了多少’ 구문, ‘W 不到哪里去’ 구문 등 세 가지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결과항에 어떠한 형용사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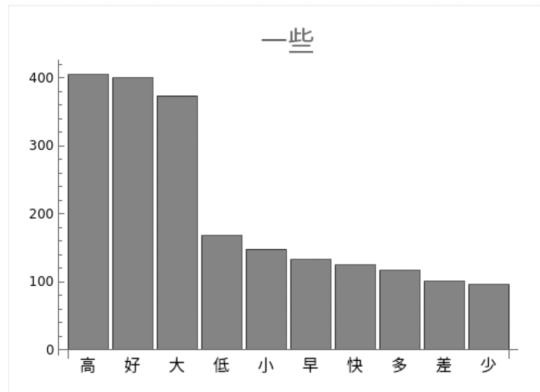
BCC 검색결과, ‘W 一些’ 구문의 비교결과항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용사 10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高(405) ²⁰⁾	好(400)	大(374)	低(168)	小(148)
早(133)	快(125)	多(117)	差(101)	少(96)

〈표 1-1〉 ‘一些’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 괄호 안에 있는 수자는 BCC 에서 ‘比*a 一些’를 검색하였을 때 형용사가 나타나는 출현횟수를 의미한다.



〈그림 1-1〉 ‘一些’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一些’ 구문에서 형용사를 검색해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객관적인 형용사인 ‘高’이다. 반면에 ‘不了多少’와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용사는 주관적인 형용사인 ‘好’이다. 이는 ‘一些’ 구문이 객관적인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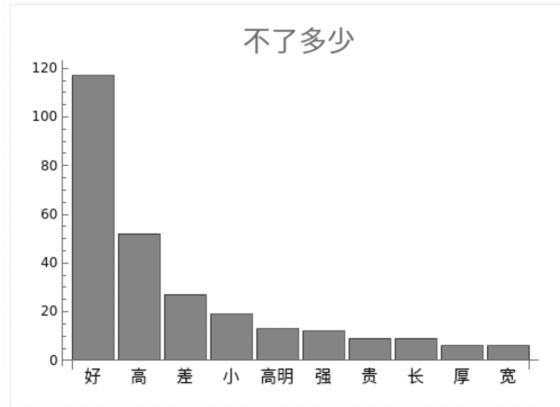
다음 ‘W 不了多少’ 구문에서 비교결과항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용사 10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好(117) ²¹⁾	高(52)	差(27)	小(19)	高明(13)
强(12)	贵(9)	长(9)	厚(6)	宽(6)

〈표 1-2〉 ‘不了多少’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 괄호 안에 있는 수자는 BCC 에서 ‘比*a 不了多少’를 검색하였을 때 형용사가 나타나는 출현횟수를 의미한다.



〈그림 1-2〉 ‘不了多少’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표 1-2>를 살펴보면, ‘不了多少’ 구문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10 개의 형용사가운데서도 사물의 크기, 가격, 길이, 두께, 넓이와 관련된 수량을 나타내는 ‘小’, ‘贵’, ‘长’, ‘厚’, ‘宽’ 등 5 개의 도량형용사가 기타 형용사보다 훨씬 많이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객관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不了多少’ 구문의 비교항으로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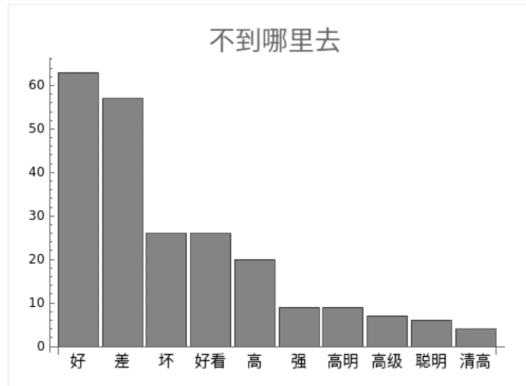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W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비교결과항에 나타나는 형용사 가운데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10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好(63) ²²⁾	差(57)	坏(26)	好看(26)	高(20)
强(9)	高明(9)	高级(7)	聪明(6)	清高(4)

〈표 1-3〉 ‘不到哪里去’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괄호 안에 있는 수자는 BCC 에서 ‘a 不到哪里去’를 검색하였을 때 형용사가 나타나는 출현횟수를 의미한다.



<그림 1-3> ‘不到哪里去’ 구문의 형용사의 출현빈도

<표 1-3>을 살펴보면, ‘不到哪里去’ 구문의 형용사는 거의 객관적인 도량형용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평가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好’, ‘差’, ‘坏’가 많이 나타난다. 10 개 형용사 가운데서 형용사 ‘高’를 사용할 때, 사람의 키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보다는 대부분 주관적인 ‘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문이다. 평가 형용사는 주관적인 색채를 띤 형용사로서 대부분 화자의 관점이나 견해를 반영하고 사물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보다는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세 가지 비교구문의 비교결과항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빈도가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BCC 코퍼스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교구문의 형용사와 예문의 수이다.²³⁾

구문	형용사의 수량	예문 수
W一些	515	4089
W不了多少	39	318
W不到哪里去	56	292

<표 1-4> 세 가지 비교구문의 형용사와 예문의 수

23) 구체적인 형용사는 2 장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 세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결과항에 쓰이는 형용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형용사는 기존의 성질(性质) 형용사 혹은 상태 형용사 또는 有界(bounded)와 无界(unbounded) 등의 분류로는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형용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미세구문의 결과항에 쓰이는 형용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형용사 분류	용례
도량형용사	她的年齡比我小不了多少。
성질 형용사	经常运动的人胖不到哪里去的。
평가 형용사	你爸爸没出息, 你也好不到哪里去。

〈표 1-5〉 본고 형용사의 명칭 분류

1.3.2.2 비교 유형 분류

지금까지 비교구문에는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차등비교와 동등비교, 객관적 비교와 주관적 비교, 명시적 비교와 내재적 비교 등 여러 가지 비교 유형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본고의 연구 방법 중 반향비교, 반기대비교 등의 비교 유형이 어떻게 비교의 틀에서 분류 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차등비교와 동등비교

일반 비교구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차등비교와 동등비교이다. 그러나 현대중국어 비교구문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차등비교구문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동등비교에 대한 연구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다. 刘丹青(2003)은 유형론 관점에서 중국어 차등비교문을 고찰했는데 그 예가 “小张比小王高”이다. 이 비교문에서는 비교항이 두 개이고 형용사의 성질만을 고려하였다. 물론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간단히 차등비교구문의 부정형식

‘不比’를 언급할 때는 차등비교와 동등비교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4) 不比他高：比他矮
그보다 키가 크지 않다: 그보다 작다.
- (15) 不比他高：跟他一样高
그보다 키가 크지 않다: 그와 키가 같다.

여기서 ‘不比他高’가 두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부정부사인 ‘不’를 사용하여 비교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些’ 구문은 부정부사인 ‘不’가 없어서 그 의미를 단순하게 차등비교로 해석할 수 있다. 즉, ‘一些’비교문의 기본 의미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의 어떤 속성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차등비교이다. 반면 ‘不了多少’ 구문과 ‘不到哪里去’ 구문은 부정부사 ‘不’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 의미는 차등비교와 동등비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비교구문은 특히 동등비교 의미가 나타날 때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차이나 격차를 모호하게 하면서 사용된다. ‘不了多少’ 구문의 경우, 동등비교 의미일 때 비교기준은 전형성이 있어서 어떤 과장된 효과뿐만 아니라 반박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비교객체는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비교대상과 비교되며 비교대상 간에 차이를 모호하게 나타내는 수사적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他的死比泰山轻不了多少。(그의 죽음은 태산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에서 사람의 죽음을 태산과 동등하게 비교함으로써 과장의 의미를 뚜렷하게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비교구문은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不到哪里去’ 구문의 경우, 동등비교 의미를 나타낼 때 전형적인 비교기준을 선정하지 않고 주관적인 비교결과항인 ‘好’, ‘坏’, ‘差’를 선택하면서 어떤 사회집단에서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爱书的

女生再坏也坏不到哪里去”는 중국인의 사유 방식에서 책은 인간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문은 발화자가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차이나 격차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또는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부정부사 ‘不’를 사용할 때 반향비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

(8) 我真想不到你游得那么好, 比孙杨慢不了多少。

나는 당신이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생각도 못했다. 쑤양보다 그다지 느리지 않네요..

여기에서 비교주체인 ‘你’와 비교객체인 중국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자 세계기록 보유자인 ‘孙杨’의 수영 속도를 비교한다. 이 구문의 비교결과항인 慢을 사용하지만 문맥에 따르면 ‘快’의 의미로 해석된다. 즉, ‘你’의 수영 속도는 ‘孙杨’만큼은 아니지만 빠르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이러한 비교구문을 반향비교(反向比较)²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반향비교란 부정부사 ‘不’를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비교 의도를 표현할 때 담화 내의 객관적 사실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의미와 상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객관적 비교와 주관적 비교

객관적 비교와 주관적 비교는 비교문의 또 다른 분류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객관적 비교는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비교한다. 예를 들어, 두 제품의

24) 张雪梅(2016:55)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문은 ‘悖离义(역설 의미)’를 사용하여 상대의 일부 판단을 부정한다. 또한, 卢博敏(2020:21)는 ‘A 不了多少’ 구문의 의미 특징을 설명할 때 유사한 ‘情感反向性(감정반향성)’을 언급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W 不了多少’ 구문의 비교객체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성능을 비교할 때 면적, 크기, 무게, 출력, 속도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한다. 반면, 주관적 비교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을 기반으로 비교한다.

먼저 객관적 비교와 주관적 비교가 가지는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형용사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형용사 ‘轻’이 들어가는 비교구문으로 하나는 객관적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비교이다.

(16) 这个箱子比那个箱子轻一些。

이 상자는 저 상자보다 조금 가볍다.

이 예문은 객관적 비교이다. 객관적 비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를 수행하며, 주관적인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 예문에서 상자의 무게는 비교의 기준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은 ‘轻’이 들어가는 주관적 비교이다.

(17) 我们受的伤, 比王宝强轻不了多少。(网络用语)²⁵⁾

우리가 받은 상처는 왕보강보다 조금도 가볍지 않다.

이 예문은 개인의 주관적 감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주관적 비교이다. 다시 말해서, ‘我们受的伤(우리가 입은 상처)’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고, 王宝强보다 가볍지 않다는 기준이나 근거 역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둘째, 비교대상 간에 동질성의 여부 관계로 하나는 객관적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비교 중 과장식비교이다.

25) <http://zjnews.china.com.cn/yuanchuan/2016-08-19/98492.html> 의 예문은 中国网에서 검색된다.

- (18) a. 要金牛座诚心道歉, 比双子座容易不了多少。
황소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으려면 쌍둥이자리보다 그리 쉽지 않다.
- b. 要金牛座诚心道歉, 比登天容易不了多少。
황소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으려면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그리 쉽지 않다.

(18a)는 서로 다른 별자리를 비교한다. 이 때 비교대상 간은 같은 속성으로 객관적 비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8b)에서 비교주체는 金牛座诚心道歉이고, 비교객체는 ‘登天’이다. ‘登天’이라는 비교기준을 제시하고 이는 화자가 ‘金牛座’의 고집을 과장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관련된다. 이런 비교는 표면적인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건 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통해 표현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교기준으로 인해 과장된 비교문을 본고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셋째, 화용적 맥락에서 화자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반기대 비교도 될 수 있고 기대비교도 될 수 있다.

- (5) 两人同班了十多年, 感情居然比别人好不了多少。
두 사람은 이미 같은 반에서 십여 년을 지냈는데 감정이 뜻밖에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 (19) 江南来的茶叶, 一定差不到哪里去。
강남에서 온 차잎이니까 당연히 좋겠지.

(5)는 두 사람은 같은 반에서 10여 년 이상 함께 공부했으니 원래는 다른 친구보다 사이가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후속절에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반기대비교는 화자가 청자의 예상과 상반되는 의견이나 결론을 표현하는 것으로 청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 (19)에서처럼 기대비교는 청자의 예상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결론

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강남 지역은 중국 차(茶)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로 고급의 녹차, 홍차, 우롱차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강남 지역의 차는 중국 차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3. 명시적 비교와 내재적 비교

‘내재적 비교(implicit comparison)’라는 개념은 프랑스인 언어학자 Alain Peyraube(1989)가 처음 제시하였다. 그는 고대중국어 비교구문을 연구할 때 ‘내재적 비교’와 ‘명시적 비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으며, ‘내재적 비교구문’은 비교기준과 비교표지가 생략된다고 하였다. 아래 예문은 비교기준과 비교표지가 생략된 내재적 비교구문이다.

(20) 这道儿更小啊。

이 길이 더 작구나!

(21) 还是这个好。

역시 이게 좋아.

(22) 这张桌子高五尺。

이 탁자 5척 높아야.

(Peyraube, 1989:589 제인용)

그러나 Peyraube(1989)는 내재적 비교구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후 刘丹青(2003)이 “木头轻, 棉花更轻(나무가 가볍지만 면은 더 가볍다)”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이를 ‘意会式’²⁶⁾ 비교구문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비교구문에는 비교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맥 추리를 통해 비교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吴庸(2015)은 ‘내재적 비교구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그의 박사 논문에서는 구문문법 측면에서 출발하여, 중국어 ‘내재적 비교구문’을 20 가지로 분류하였다.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통사 구조는 ‘비교주체’, ‘비교객체’와 ‘비교결과항

26) 意会式(의미를 이해하여 표현하는 방식).

(好, 坏 등)'으로 구성된다. '比'자 비교 표지가 있는 문장은 의미와 문법 구조를 통해 비교구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比'자 비교 표지가 없는 “아빠는 쓰레기인데 아들도 별로 좋지 않아(爸爸是渣男, 儿子也好不到哪里去)”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 비교 표지 ‘比’자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비교구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3) 经常运动的人胖不到哪里去的。

늘 운동하는 사람은 살이 찌도 그다지 찌지 않을 것이다.

(24) 爱书的女生再坏也坏不到哪里去。

책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리 나빠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 두 문장은 내재적비교에 속한다.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비교 기준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추론에 의존하여 이러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즉, (23)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운동하는 사람이 살이 덜 찌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4)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하여 책을 좋아하는 여성이 더 교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내재적 비교는 화자의 의도를 간접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구문을 분류하거나, 비교결과항의 속성을 단지 양적 측면만 고려하거나, 현상을 언급할 때 구체적인 담화 환경을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예문을 분석하다 보면 구체적인 발화 환경에 따라 화자의 의도와 문화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미세차이 비교구문을 단일 기준이 아닌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발화 환경을 고려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위에서 분류한 비교유형을 정리해본다면 다음 표와 같다.

구별 기준	비교 유형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의 정도 차이	차등비교	동등비교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동질성 여부	객관적 비교	주관적 비교
비교결과항의 의미		반향비교
청자와 화자 간에 정보 차이	기대비교	반기대비교
비교 표지 ‘比’의 출현 여부	명시적 비교	내재적 비교

〈표 1-6〉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나타나는 비교 유형

1.4 논의 구성

1.4.1 연구의 범위 및 자료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경우 본고의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상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미세구문의 세 가지 유형 외에도 ‘X 比 YW 一点’, ‘X 不比 YW 多少’ 등의 구문이 있다. 본고에서 세 가지 구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X 比 YW 一点’을 선택하지 않고 ‘X 比 YW 一些’를 선택한 이유는 문체 때문이다. ‘X 比 YW 一些’는 문학문체, 대화문체, 신문문체 등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반면, ‘X 比 YW 一点儿’은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검색된 예문의 수는 ‘X 比 YW 一点儿’보다 훨씬 더 많고 이로 인해 ‘X 比 YW 一些’ 구문은 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X 比 YW 不了多少’와 ‘X 不比 YW 多少’는 유사한 구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X 比 YW 不了多少’는 X와

Y가 W라는 특정한 속성에 대해 거의 같다는 것을 나타내며, X와 Y의 차이도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他的死比泰山轻不了多少。”에서 죽음의 속성에 대한 비교로 X와 Y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강조한다. 반면, ‘X不比YW多少’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사물이나 상황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这种汽车的价格不比其他同级车型贵多少, 但是它的油耗更低。(이런 자동차의 가격은 다른 동급 차종보다 얼마 비싸지 않지만, 그것의 연비는 더 낮다.)”와 같이 두 종류 자동차의 가격과 연비와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경우 이 구문 형식을 사용한다.

본고에서 이용한 코퍼스는 주로 북경어언대학 국제한어교육기술개발센터가 제공한 BCC이다.²⁷⁾ BCC 중국어 코퍼스는 신문체(20억 자), 문학체(30억 자), 종합(19억 자), 고대 중국어(20억 자), 대화체(6억 자, 웨이보 및 영상 자막) 등 다양한 분야의 코퍼스로 오늘날 사회의 언어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 코퍼스이다²⁸⁾. 이 코퍼스를 선택한 이유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균형적이기 때문에 저자의 개별적 스타일이나 문체의 영향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BCC 코퍼스의 경우 ‘통계’ 기능을 통해 단어 빈도를 쉽게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사용된 예문은 BCC에서 추출한 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서술의 필요에 따라 일부 예문은 선행연구 논문에서 인용하였고, SNS인 新浪微博에서 수집한 것도 일부 있으며 필자가 직접 만든 문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1.4.2 논의 구성

본 논문은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은 서론부분으로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기존 연구 성과, 본 논의를

27) 전수조사 및 통계분석을 진행할 때는 BCC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예문 분석을 할 때에는 북경대학교 중국언어학연구센터가 개발한 CCL 코퍼스에서 선택하기도 하였다.

28) <http://bcc.blcu.edu.cn/help#introd> 에서 참고.

전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등을 소개한다.

2 장은 통사적 관점에서 미세차이 비교구문에서 쓰이는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서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대칭성에 관한 서술과 비교점²⁹⁾의 생략 원인, 비교결과항의 특징 등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설명한다. 특히 ‘一些’ 구문을 고찰할 때는 일반 비교구문의 특성도 고찰한다.

3 장은 의미론적 관점에서 각 구문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장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관계로 인한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객관적 비교, 차등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 증거성 비교 등 개념을 사용하여 각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특성을 구분하며 고찰하고자 한다.

4 장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각 구문의 특성을 고찰한다. 구체적인 담화맥락 또는 특정한 발화상황을 고려하여 구문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양태부사, 양태동사, 양태접속사 등의 쓰임으로 인한 화자의 주관태도와 관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 장은 결론부분으로 앞서 기술한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29) ‘비교점’(张豫峰, 1999)에 대한 정의는 ‘비교해야 할 어떤 지점(또는 어떤 측면)으로 ‘높다’, ‘굵다’, ‘재미있다’, ‘길다’ 등이 있다고 한다. 张豫峰은 위와 같이 ‘비교점’을 형용사로만 정의했지만 아래의 예문처럼 的의 뒤에 명사성분도 비교점이 될 수 있다.

(1) 她的英语比我好一些。

그녀의 영어 실력은 나보다 조금 더 좋다.

(2) 这个苹果比那个苹果甜。

这个苹果(的甜度)比那个苹果甜。

이 사과는 그 사과보다 달다. *这个苹果的(大小/价格)比那个苹果甜。

(1)은 조사 ‘的’의 뒤에 중심어인 영어(英语)의 수준이 비교점이 된다. (2)는 조사 ‘的’가 없지만 이 문장에서 ‘달다(甜)’가 비교점으로, 두 사과의 당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비교점이란 문맥에 따라 반드시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비교점은 모호성이 존재하는데 朴敏浚(2017:13)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미세차이 비교구문 통사적 특성

吕叔湘(2002:352)은 비교의 본질을 두 사물이 반드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어야 비교 관계가 성립된다고 간결하게 정의했다.³⁰⁾ 본 장에서는 비교기준의 문법적 표지 형태에 따라 분류된 세 가지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1에서는 비교항의 대칭성, 비교결과항의 특징의 두 가지 측면에서 ‘一些’ 비교구문에 대해 살펴보고, 2.2에서는 ‘不了多少’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2.3에서는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X比YW一些’ 구문

2.1.1 비교항의 대칭성

비교항의 대칭이란 비교주체 X와 비교객체 Y의 문법 구조와 의미 구조의 대칭적 분포를 말한다. ‘一些’ 비교구문에 있어서 비교항의 선택제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영어 비교구문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Napoli(1983)에 따르면 영어 비교문의 비교대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비교적 일관된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30) 원문은 아래와 같다: 异同, 高下, 都生于比较。。。必须有相同的部分, 又有相异的部分, 才能同中见异, 或异中见同, 才能有比较关系。同中见异, 如“昨天热, 今天更热”(高下); 异中见同, 如“你姓张, 我也姓张”(类同)。

- (1) Mary is taller than John.
- (2) Mary cries more often than sings.
- (3) John sings more than he talks.
- (4) I organize more than I actually run her life.
- (5) I like to eat on the porch more than in the kitchen. (Napoli, 1983)

위의 예문에서 ‘than’의 앞뒤에 출현하는 성분을 살펴보면, (1)에는 명사 ‘Mary’와 ‘John’, (2)에서는 동사 ‘cries’와 ‘sings’, (3)에서는 주술구조(主谓结构) ‘John sings’와 ‘he talks’, (4)에서는 주술구조(主谓结构) ‘I organize’와 ‘I actually run her life’, (5)에서는 장소구 ‘on the porch’와 ‘in the kitchen’이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성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吕叔湘(1942)은 중국어 ‘比’ 구문의 전후에 명사, 동사, 형용사, 절이 올 수 있으며,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두 항의 품사나 구조는 보통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许国萍(1996)의 경우 중국어의 비교문을 체언적 구조, 용언적 구조, 부치사구 구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吕叔湘(1942)과 许国萍(1996)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예문을 분석하였다.

- (6) 我比他还大一些。
나는 그보다 나이가 좀 많다.
- (7) 他的年龄要比他的外貌大一些。
그는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다.
- (8) 有群众监督会比没有群众监督好一些, 更谨慎一些。
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보다 감독을 받는 것이 더 낫고, 더 신중하다.
- (9) 孩子的话, 两个要比一个好养一些。
아이의 한 명보다 둘일 때 조금 더 잘 기를 수 있다.
- (10) 咖啡的话, 这种比那种要香一些。
커피는 이 종류가 저 종류보다 더 향기롭다.
- (11) 看你的皮肤, 红比黄要适合一些。
당신의 피부를 보니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린다.

(6)에서 비교대상인 ‘我’와 ‘他’는 인칭대명사이고, (7)에서 ‘他的年齡’과 ‘他的外貌’는 수식구조로 이루어졌다. (8)에서 ‘有群众监督’와 ‘没有群众监督’는 동빈구조이고, (9)에서 ‘两个’와 ‘一个’는 수량구조이며, (10)에서 ‘这种’과 ‘那种’은 ‘지시대명사+양사’구조이며, 예문(11)에서 ‘红’과 ‘黄’은 색깔을 묘사하는 형용사이다. 위의 예문을 통해 ‘一些’의 비교대상은 속성 제한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명사, 대명사, 수량사, 형용사, 동사, 수식구조를 막론하고 비교대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대칭에는 언어보편성이 존재한다. 비교주체와 비교객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인류의 인지 심리에 부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칭성은 이상적 인지모형에만 존재할 뿐, 실제 언어환경에서는 각 언어의 부호화 방식이 다르며 언어 경제성 등 원인 때문에, 비교문에는 완전식과 생략식이 존재하게 된다.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의 4 가지 유형이 있다.

2.1.1.1 비교주체 생략

‘一些’비교문에서 비교주체가 생략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며, 연구 데이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2) 自从流亡之后, 他(...)对于幽默的反应似乎比以前还要来得敏感一些。
망명 이후, 그의 유머에 대한 반응은 예전보다 좀 더 민감해진 것 같다.
- (13) 昨天参加了北京的公务员考试, 考完也没有多少把握, (...)但比上海考试的感觉略好一些。
어제 北京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별로 자신이 없었지만, 上海에서 본 시험보다는 느낌이 조금 좋다.
- (14) 有29.1%的人对自己从事职业的满意程度(...)比5年前高一些。
(조사대상 가운데) 29.1%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5년 전에 비해서 다소 높아졌다.
- (15) 如果他留在那里, 或是退一步, 转到另一所大学去, 是否会已经成为国际

上知名的科学家, (...)比现在受人尊重些呢?

만약 그가 그곳에 머무르거나 혹은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대학으로 옮겨 갔다면, 이미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 지금보다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위의 예문에서 비교주체가 생략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비교주체가 함의되었기 때문이다. (12)의 경우 비교객체 ‘以前’을 통해 볼 때, 비교주체 ‘现在’임을 알 수 있다. (13)의 경우 ‘北京公务员考试’와 ‘上海公务员考试’ 간의 비교인데, ‘北京’의 시험이 ‘上海’의 시험보다 다소 쉽거나 자신이 시험을 잘 보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呂叔湘에 따르면, 비교주체인 X와 비교객체인 Y가 공통된 성분을 포함할 경우 그 중 하나를 생략한다면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성분인 비교객체 Y를 생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X를 생략하였는데, 본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张伯江(1997)³¹⁾은 ‘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 기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2)에서 ‘现在’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사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언어는 ‘현재의 시간’을 무표지(无标记)로 표현한다.³²⁾

둘째, 비교기준이 ‘지금’의 시간인 경우, 비교결과항은 일반적으로 미래

31) 张伯江(1997)은 만약 사람의 머리 속에서 ‘현실적인 세계(现实的世界)’와 ‘비현실적인 세계(非现实的世界)’로 나눈다면 일반 사람들은 눈앞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가장 현실적인 세계로 여긴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발생 중인 일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확하기 파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가 필요 없다고 했다.

32) 언어에서의 표지 현상(markedness)은 문법의 범주 안에 존재하는 비대칭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량’이라는 문법적 범주에서 영어의 복수형은 표지(marked)이고, 단수형은 무표지(unmarked)이다. Boy 라는 단어의 복수형은 반드시 -s 를 붙이고 단수형은 -s 를 붙이지 않으며 무표지라고 한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전형적인 개념은 무표지이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과 관련이 있다. (沈家煊 1999:22~36에 참조)

에 대한 불확실한 가정을 기술하고 진술된 상황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따라서 비교주체를 생략하더라도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2.1.1.2 비교객체Y의 중심어 생략

비교주체가 수식어-중심어 구조인 경우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본고의 코퍼스 검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실 언어환경에서 언어의 부호화 방식, 언어 경제성 등 요소로 인해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에 상이한 환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주체의 경우, ‘수식어-중심어 구조’를 통해 비교점 정보를 명확히 찾아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6) 他的蓝眼睛比父亲略深一些。(领属关系)
그의 파란 눈은 아버지보다 좀 깊다.
- (17) 他小心地走上了三楼, 这里的空气要比下面相对好一些。(时地关系)
그는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의 공기는 아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좋았다.
- (18) 她的个子比一般女学员要高一些。(整体-部分关系)
그녀의 키는 일반 여학생에 비해 조금 더 크다.
- (19) 我的家庭条件要比一般的同学都要好一些, 因为我父亲那个时候就是处级干部了。(属性关系)
나의 가정형편은 일반적인 학우들에 비해 좀 나았다. 아버지가 그 당시 처장급 간부였기 때문이다.

위의 (16~19)에서 비교주체는 ‘他的蓝眼睛’, ‘这里的空气’, ‘她的个子’, ‘我的家庭条件’이고, 비교객체는 ‘父亲’, ‘下面’, ‘一般女学员’, ‘一般的同学’이다. 비교객체에서 ‘蓝眼睛’, ‘空气’, ‘个子’, ‘家庭条件’ 등 중심어를 생략한 것은 언어의 경제성에 부합한 것이다.

2.1.1.3 비교주체가 주술구조인 경우

비교주체에 주술구조가 쓰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래의 예문에서 살펴보자.

- (20) 他穿着红色T恤衫和牛仔裤, 比他50多岁的实际年龄显得年轻一些。
그가 붉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으니, 50이 넘은 실제 나이보다 분명히 더 젊어 보인다.
- (21) 让他们死在别人手中总比死在自己手中会让我好受一些。
그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 손에서 죽는 것 보다는 나로서는 좀 더 잘 견디도록 해준다.
- (22) 如果我十八岁学, 会比现在学得快一些。
만일 내가 18세에 배웠다면, 지금보다 좀 더 빨리 배웠을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비교주체 X는 각각 ‘他穿着红色 T 恤衫和牛仔裤’, ‘让它们死在别人手中’, ‘如果我十八岁学’이며, 비교객체 Y는 ‘他 50 多岁的实际年龄’, ‘死在自己手中’, ‘现在学’이다. 여기에서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면 언어학적 ‘조응(anaphora, 照应)³³⁾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의 비교객체인 ‘死在自己手中’의 본래 형식은 ‘让他们死在自己的手中’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생략 현상이 나타난 것은 특정 환경에서는 문맥을 통해 이미 공통적인 정보(共知信息)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중복해서 표현하게 되면 언어 경제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비교객체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때 언어표현이 더욱 간결해져서 신정보를 부각시킬 수 있다.

33) Roelofsen, F. (2008:1)에 따르면, 조응이란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he, she, it 과 같은 대명사는 앞의 내용에 근거해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2.1.1.4 비교객체가 임의지칭 대명사 경우

‘一些’ 비교문의 비교객체는 임의지칭(任指)³⁴ 대명사인 ‘什么’나 ‘谁’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비대칭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3) 那个花花公子比谁都坏一些。
저 난봉꾼은 누구보다도 더 나쁘다.
- (24) 只要每天平平安安的比什么都好一些。
매일 평안한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 (25) 能够留下一些美好的回忆, 总比什么都没有要好一些。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야 좀 낫다.

위의 (23~25)에서 비교주체는 각각 ‘那个花花公子’, ‘只要每天平平安安的’, ‘能够留下一些美好的回忆’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주체가 사람인 경우에는 비교객체로 의문대명사 ‘谁’가 쓰이고 비교주체가 사건이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 비교객체로 ‘什么’가 사용되는데 이때 ‘谁’와 ‘什么’는 모두 임의지칭(任指) 대명사의 용법이다.

지금까지 대칭성의 측면에서 ‘一些’ 비교문에 나타나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비대칭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비대칭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은 ‘시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와 ‘언어전달의 경제성원칙’이 화자의 발화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4) 중국어 의문 대명사 ‘谁’, ‘哪里’, ‘什么’는 의문을 나타내는 용도뿐만 아니라 ‘임의지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1) 这事村里人谁都知道。(胡盛伦·王健慈 1989 에 재인용)

이 일은 마을 사람 누구든지 다 안다.

이 예문에서 ‘谁’는 임의지칭의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문을 나타내는 용법이 아니며, 이는 마을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1.2 비교결과항의 성분

본 절에서는 ‘一些’ 비교구문의 비교결과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비교결과항의 W 위치에 어떠한 성분들이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성분들이 쓰이면서 나타나는 구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비교결과는 주로 비교대상의 성질이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통해 표현한다. 그 밖에 일부 동사와 동사구도 이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 구문에 들어가는 형용사, 동사, 동사구 등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2.1 성질 형용사³⁵⁾

첫 번째, 비교결과항의 음절수를 살펴보자.

BCC 에서 검색된 ‘一些’ 비교문에 사용될 수 있는 일음절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高好大低小早快多差少强晚长慢贵深短重老弱近冷远
难宽迟矮久薄淡轻瘦硬浅胖窄厚粗浓紧细软广甜帅熟
白猛俗苦蓝惨凉灵绿笨美嫩偏牢旧实坏红钝纯杂脏足
热黄傲暗黑严糟勤穷贱稀虚野香准 (총84개)

‘一些’ 비교문에 사용될 수 있는 이음절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容易 复杂 便宜 年轻 简单 安全 轻松 困难 聪明 好受 好看 清楚 舒服

35) ‘一些’ 구문의 BCC 코퍼스에서 키워드 ‘比*a 一些’로 검색이 되는 형용사는 모두 515 개이다. ‘不了多少’와 ‘不到哪里去’는 각각 39 개, 56 개의 형용사가 나온다. 따라서 ‘不了多少’와 ‘不到哪里去’ 구문에 나온 도량형용사, 평가적 형용사 등은 여기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단지 성질 형용사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또한 ‘一些’비교구문은 일반비교구문과 차이점을 두고 서술한다.

严重 成熟 重要 幸福 文明 高明 好过 实际 确切 快乐 自由 深刻 逊色
 强烈 乐观 丰富 宽广 麻烦 出色 厉害 亲密 幸运 真实 宽松 先进 丰满
 稳妥 低沉 干净 缓慢 长久 漂亮 严格 详细 落后 具体 好听 简便 矮小
 亲热 坚强 清醒 可靠 明显 合适 宽泛 合理 痛苦 热闹 精彩 广阔 古怪
 精细 全面 温和 含蓄 寒冷 高雅 高级 紧张 高大 清淡 纤细 小巧 费时
 苗条 强大 客观 勇敢 软弱 优越 恰当 有效 友好 愉快 老练 老实 冷静
 超前 深奥 平静 凉爽 美好 慎重 安静 勤奋 实惠 激烈 时髦 生动 积极
 世故 活泼 瘦小 艰苦 舒适 顺利 随便 坦然 黑暗 通俗 柔和 结实 好走
 好玩 好吃 谨慎 危险 贵重 温暖 温柔 精明 光滑 稳重 公道 细致 高兴
 清新 高贵 鲜明 富裕 现实 费力 方便 严肃 亲切 科学 可爱 短促 独特
 可亲 洋气 可信 强劲 英俊 硬朗 客气 胆小 优秀 优裕 宽敞 宽大 粗大
 有利 宽厚 有力 有趣 传统 奇特 迟钝 普遍 泼辣 老成 远大 平稳 扎实
 真诚 平坦 冷淡 真切 镇定 镇静 正规 苍白 凉快 不同 灵活 直接 直率
 便利 保守 壮实 昂贵 难看 明智 猛烈 安心 仔细 外向 腼腆 明亮 敏锐
 明快 明朗 敏感 密切 木讷 拿手 耐久 美丽 难闻 茂密 内向 忙碌 宁静
 率直 浓郁 暖和 廉价 理智 频繁 平安 平常 平等 平凡 平和 平衡 理想
 累人 老相 迫切 朴素 劳累 凄惨 魁梧 齐整 起劲 宽裕 谦卑 谦虚 快活
 刻薄 刻板 可取 可怕 抢手 亲爱 可敬 苛刻 慷慨 开胃 轻快 开明 轻微
 开朗 俊俏 剧烈 清洁 清瘦 清爽 清晰 清闲 静 清秀 精致 精确 确实 精干
 惊诧 仁慈 认真 紧密 讲理 简明 锐利 简陋 散漫 善良 简练 艰难 深沉
 深厚 间接 深切 坚硬 深远 深邃 神气 坚挺 急躁 生硬 省事 急促 激进
 激动 实用 活跃 适当 昏暗 荒僻 舒心 划算 糊涂 爽快 水灵 顺畅 顺耳
 顺口 厚重 松弛 红润 随和 踏实 宏观 特别 特殊 体面 甜润 合身 贴切
 贴心 和善 和蔼 痛快 妥当 好笑 豪华 寒酸 伟大 卫生 含糊 广泛 光明
 管用 文雅 稳当 稳健 乖巧 古板 稀薄 细腻 细微 细小 公平 恭敬 侠义
 狭窄 高尚 干练 富贵 福气 相称 丰腴 丰裕 像样 丰盛 丰厚 辛苦 新式
 心软 形象 纷乱 分明 性感 凶恶 凶狠 凶猛 修长 肥胖 繁琐 严密 繁复
 动听 艳丽 动人 低下 低微 殷实 阴冷 阴凉 阴郁 隐秘 低贱 道德 到家
 大方 脆弱 优雅 优异 粗犷 粗壮 悠闲 有劲 粗糙 匆忙 出名 有用 稠密
 幼稚 充分 持久 诚挚 成功 沉着 沉重 窄小 沉闷 沉静 彻底 潮湿 长远
 长寿 整洁 整齐 正常 差劲 不安 直露 标准 稚嫩 被动 暴躁 周密 主动
 壮观 薄弱 准确 安分 自然 自如 安定 自在 剽悍 尴尬 嘈杂 民主(총 429개)

BCC 코퍼스 검색결과 ‘一些’ 구문을 총 4,089 개의 예문을 추출하였는데 비교결과항에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형용사의 수량은 총 515³⁶⁾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일음절 형용사의 용례는 84 개, 이음절 형용사는 429 개이다. 일음절 형용사와 이음절 형용사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출현빈도의 경우 일음절이 이음절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형용사인 ‘亮’과 ‘明亮’(밝다), ‘暗’과 ‘黑暗’(어둡다)은 각각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출현빈도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구문 검색결과 ‘亮’은 10 회, ‘明亮’은 1 회 출현하였고, ‘暗’은 6 회, ‘黑暗’은 1 회 출현하였다. 반면에 형용사의 수량만 놓고 본다면 이음절 형용사가 일음절 형용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포를 이루는데 이는 현대중국어에서 이음절 단어가 우세한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一些’ 비교구문은 일종의 문어체 형식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일음절과 비교했을 때 이음절 형용사의 서면어 색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음절과 이음절 형용사뿐만 아니라 다음절 형용사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예문이 그러하다.

(26) 她们两人对交际应酬要比别人聪明老练一些。

두 사람은 사교와 오락에서 남들보다 똑똑하고 세련됐다.

(27) 她这些年到处旅行，现在来到这个公司，每次演讲都比其他人更加沉稳自信一些。

그녀는 수년간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지금 이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매번 연설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위의 (26~27)에서 비교결과항에 4 음절인 ‘聪明老练’과 ‘沉稳自信’이 쓰

36) ‘一些’ 구문에서 BCC 코퍼스에서 키워드 ‘比*a 一些’로 검색이 되는 형용사는 모두 515 개 검색이 되었지만 실제로 ‘比*要好一些, 比*要强一些’ 등 2 개를 제외하고 실제로 513 개가 출현하였다.

였는데 ‘聪明老练’은 형용사인 ‘聪明’과 ‘老练’의 병렬구조로 쓰여 ‘她们’의 강한 사교 능력을 묘사한다. ‘沉稳自信’은 형용사인 ‘沉稳’과 ‘自信’의 병렬구조로 쓰여 그녀의 훌륭한 연설 능력을 묘사한다.

비교항으로 나타나는 형용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렬형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8) a. 他比我高。
그는 나보다 크다.
- b. 他比我高一些。
그는 나보다 조금 크다.
- c. *他比我高, 帅。
그는 나보다 조금 크고 잘 생겼다.
- d. 他比我高一些, 帅一些。
그는 나보다 조금 크고 잘 생겼다.

(28a)와 (28b)에서는 형용사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一些’를 부가하거나 부가하지 않아도 문장이 모두 성립된다. 하지만 (28c)와 같이 ‘高’와 ‘帅’ 두 형용사가 연속적으로 출현할 경우 ‘一些’가 없으면 비문이 된다. 이는 운율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冯胜利(2000:2)는 ‘三十而立’와 ‘种植花’를 예로 들어 문장의 적격성 여부에 운율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³⁷⁾ 그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안정적인 리듬을 가져야 하며 지나치게 불규칙한 부분이나 파동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하나의 문장에 형용사 두 개를 연속해서 나열했을 때 두 형용사의 음높이와 음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문장의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8c)의 “他比我高, 帅”에서 2 개의 일음절 형용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면 음높이와 음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리

37) 중국어는 ‘种植花草’와 ‘种花草’가 모두 합법적인 표현이지만, ‘种植花’라는 표현이 없는 이유는 음운적으로 보면 중국어 음운은 [2+1] 음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음운 불안정 때문이다. (冯胜利 2000:2)

듬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게 들린다. 그러나 (28d)의 “他比我高一些, 帅一些”에서처럼 ‘一些’를 추가하면서 문장 전체의 리듬이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워진다.

다음은 비교항으로 이음절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29) a. 新矿有技术, 要比旧矿安全一些.

새 광산 개발에는 기술을 활용하므로 옛 광산 개발보다 더 안전하다.

b. 一般来讲是雄体比雌体大一些, 在动物界里边就是雄性要比雌性好看一些, 个体要强壮一些。可能鸟类是比较明显的, 雄鸟都是比雌鸟好看, 你看孔雀都能看出。

일반적으로 수컷은 암컷보다 조금 더 큰 편이며, 동물 세계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잘생기고 개체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조류에서 이런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수컷 조류가 모두 암컷보다 더 예쁘다. 공작새를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c. ?在动物界里边就是雄性要比雌性好看, 个体要强壮。

(29a)는 기술을 활용하는 ‘새 광산 개발’과 ‘옛 광산 개발’을 비교하는데 비교점은 ‘안전성 문제’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존재한다. (29b)는 수컷 동물과 암컷 동물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외모와 체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好看’과 ‘强壮’이라는 두 개의 이음절 형용사를 통해 수컷이 외모와 체력이 암컷보다 약간 우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들 형용사 뒤에 ‘一些’를 부가함으로써 문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균형적인 운율은 문장 전체를 매끄럽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반면 (29c)에서도 ‘好看’과 ‘强壮’을 나열하는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중국어 문법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구조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³⁸⁾

38) 중국인 유학생인 1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 명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반면 7 명은 여전히 어색하다고 말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나이가 22 세

음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CCL 에서 ‘比\$5 一些, \$5 一些’³⁹⁾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된 예문들을 살펴보면, 형용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음절의 예문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⁴⁰⁾

이상으로 비교결과항의 음절에 대하여 고찰했다. 다음으로 비교결과항의 성질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분류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는 형용사의 등급성이다. Kennedy & McNally(2005)는 ‘tall’, ‘expensive’, ‘awake’, ‘straight’와 같은 형용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에서 27 세 사이이며, 여성 6 명과 남성 4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산둥(山东) 지역에서 6 명, 시안(西安)에서 1 명, 난창(南昌)에서 1 명, 상하이(上海)에서 2 명, 사아먼(厦门)에서 1 명이다.

39) \$는 CCL 상 한 문장에서 두 키워드의 간격을 말한다, 즉, ‘比\$5 一些, \$5 一些’은 ‘比’와 ‘一些’의 간격이 5 개 이내의 글자라는 뜻이다.

40) CCL 에서 검색이 된 예문은 아래와 같이 총 11 개이고,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음절 예문은 8 개이다. (검색 날짜:2023 년 3 월 31 일)

- 1.棒球和垒球可以说是一对兄妹。它们的比赛规则以及场地,器材都基本相同。所不同的只是垒球的球体比棒球要稍大一些,也软一些。
- 2.在夏令季节,由于天热人们出汗多,体内盐分消耗大,因而人们嘴里往往发淡,食欲减退,所以制作各种菜肴时,口味要比冬天稍咸一些,鲜一些,这样既能补充人体盐分不足,又能促进人的食欲。
- 3.古铁雷斯与墨西哥城一样,坐落在群山环抱的谷地中。只是海拔比墨城略低一些,高楼大厦少一些。
- 4.就我来说,经过的曲折,恐怕比别人还要大一些,觉悟还要迟一些。
- 5.她的身材看来比平时高了一些,腰也细了一些,这使得她更加飘逸。
- 6.他不知道他父亲比祖父更阔了一些,还是差了一些。
- 7.男女之爱并不比骨肉之情大一些,而是自由一些。
- 8.一般来讲是雄体比雌体大一些,在动物界里边就是雄性要比雌性要好看一些,个体要强壮一些。
- 9.富贵人家的女儿,也不是非常差的,只是跟我们刚才说的那些媳妇来比稍微差一些,逊色一些。
- 10.就我来说,经过的曲折,恐怕比别人还要大一些,觉悟还要迟一些。
- 11.他们把大家吃剩的东西给她吃,她吃得比狗好一些,比猫又差一些。

등급성을 설명하였다.

- (30) a. Michale Jordan is tall.
Michale Jordan은 키가 크다.
b. The Mars Pathfinder mission was expensive.
화성 탐사 미션은 (비용이) 비싸다.

Kennedy & McNally(2005:349)에 따르면, tall 이나 expensive 는 등급형 형용사(gradable adjectives)에 해당한다. (30a)에서 Michale Jordan 의 키가 큰지 작은지는 비교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Michale Jordan 의 키가 170 센티미터이고 비교기준이 160 센티미터일 경우 (30a)의 문장은 참일 것이다. 그러나 비교기준이 180 센티미터이면 (30a)의 문장은 거짓이 된다. 이는 예문(30b)에서도 적용된다. 화성 탐사 미션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 비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비교기준인 NASA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30b)는 거짓이지만 비교기준을 산악자전거에 둔다면 (30b)는 참으로 간주될 것이다.

다음 (31a-b)에 쓰인 형용사 ‘awake’와 ‘straight’를 살펴보면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

- (31) a. The baby is awake.
아기가 깨어 있다.
b. The rod is straight.
그 막대기는 곧은 일자이다.

Kennedy & McNally(2005:356)에 따르면 (31a)의 형용사 ‘awake’는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아기가 깨어 있는 정도는 다른 비교 기준(다른 아기)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기가 0 이상의 깨어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31b)의 형용사 ‘straight’는 최대 기준(Maximum standards)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

서 (31b)에서는 막대가 백 퍼센트 완전히 곧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wake’와 ‘straight’의 비슷한 부분은 (31a-b)의 형용사 ‘tall’와 ‘expensive’ 처럼 어떤 기준에 대해 나타난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awake’와 ‘straight’ 같은 형용사는 ‘tall’와 ‘expensive’ 같은 형용사와 등급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아래(32)와 같이 비교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

- (32) a. The baby is more awake now than it was a few minutes ago.
아기는 지금 몇 분 전보다 더 깨어 있다.
b. Rod A is straighter than Rod B.
A 막대기는 B 막대기보다 더 곧다.

아래에서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형용사의 등급성을 살펴보자.

- (33) 在温带和热带的大洋中，阳光直接照射着海水，表层海水的温度要比下面的高一些。
온대와 열대의 대양에서는 태양이 직접 바다에 비치기 때문에 바다 표면의 온도가 아래쪽보다 조금 높다.
- (34) 一般来说，市场里的高山土鸡要比平原土鸡贵一些。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고산지역의 토종닭이 평원지역의 토종닭보다 약간 비싸다.
- (35) 导演的右边是一个维吾尔族姑娘，那相貌,那神态,那身材，乍一看，她几乎认为那就是自己，过了一会儿，她才发现，那姑娘的下巴要比她圆一些，当然，服装也不一样。她急急忙忙地看图片下面的文字报道。⁴¹⁾
감독의 오른쪽에는 위구르족 소녀가 있었다. 그 얼굴, 표정, 체형을 힐끗 보면 거의 그녀 자신인 줄 알았을 정도로 비슷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그 소녀의 턱이 조금 더 둥글고, 옷차림도 물론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황급히 사진 아래의 기사를 보았다.

41) 예문은 王蒙의 《新的光》 <http://xiandangdai.xiusha.com/w/wangmeng/000/021.htm> 에서 찾음.

(33~35)는 각각 ‘高’, ‘贵’, ‘圆’이 비교결과항으로 사용되었다. (33)에서는 바다 표층수의 온도와 그 아래쪽의 온도를 비교하기 위해 ‘高’을 사용했다. (34)에서는 고산지역의 닭과 평원지역의 닭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贵’를 사용했다. 이러한 형용사는 등급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반면, 예문 (35)의 ‘圆’⁴²⁾은 등급성은 없지만 타원형과 표준적인 원형으로는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도량형용사를 살펴보자. 陆俭明(1989)에 의하면 도량형용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a. 大, 长, 高, 深, 粗, 重, 远, 快, 晚(迟), 贵, 多
- b. 小, 短, 低(矮), 窄, 薄, 浅, 细, 轻, 近, 慢, 早, 贱(便宜), 小

陆俭明(1989)에 따르면 위에 제시한 형용사는 도량과 관련이 있어서 도량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량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일음절인데, ‘贵’의 경우 반의어는 일음절인 ‘贱’보다 이음절인 ‘便宜’가 회화체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42) Lin & Peck(2016:10)에 따르면 ‘真’-‘假’-‘方’-‘圆’은 등급성이 없는 형용사이다 (non-scalar adjectives). 영어의 wooden, geological, locked, hand-made 등 형용사도 등급성이 없어서 비교구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 a. ?? 这张圆桌比那张圆桌圆。
- b. 我的脸, 比月饼圆。

Lin & Peck(2016:11)에 따르면 예문 b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굴이 월병보다 둥글 수는 없지만 ‘문학적 의미’(unless it is used in a non-literal sense)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구문이 성립되는 반면에 예문 a와 같이 비교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圆’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 또한 위의 견해에 동의하며 소위 ‘문학적 의미’는 ‘내 얼굴이 월병처럼 아주 둥그랗다’라는 비유의 용법을 나타낸다고 본다.

面积/体积：大小⁴³⁾
长度：长/短
高度：高/低/矮
宽度：宽/窄
厚度：厚/薄
深度：深/浅
重量：重/轻
距离：远/近
速度：快/慢
时间：晚(迟)/早
价格：贵/贱(便宜)
数量：多/少

陆俭明(1989)에 의하면 도량형용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도량형용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량형용사로 볼 수 없다.

A+(了)+表示定量的数量词

아래는 BCC 코퍼스에서 검색되는 도량형용사의 사용빈도를 나타낸다.

43) 여기의 내용은 陆俭明(1989:46)에 따라 정리한다.

	적극적 형용사		비율 (적극:소극)	소극적 형용사	
	형용사	출현 횟수		출현 횟수	형용사
1	大	374 ⁴⁴⁾	2.5:1	148	小
2	高	405	2.2:1	185	低(168),矮(17)
3	多	117	1.2:1	96	少
4	快	125	2.8:1	45	慢
5	粗	13	2.2:1	6	细
6	贵	41	1.3:1	31	便宜
7	长	50	2.1:1	24	短
8	宽	19	2.7:1	7	窄
9	重	24	2.4:1	10	轻
10	深	32	4:1	8	浅

<표 2-1> ‘一些’ 구문에서 형용사의 적극의미-소극의미의 대비

<표 2-1>에서 보듯이, ‘W 一些’ 구문에서는 모든 도량형용사가 출현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W 一些’ 구문이 신문체에서 많이 출현하고 객관성이 더 강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극적 의미 형용사보다는 적극적 의미 형용사가 더 많이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一些’ 비교문에서 비교결과항이 형용사인 경우에 대해 논의하였다. 吕叔湘(2002:365)에 따르면 “엄밀하게 말하면, 동작은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없고, 오직 동작의 정도에 대해서만 강약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으며 “동사로 직접 비교를 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였다.⁴⁵⁾ 본고에서

44) 숫자는 BCC에서 검색어인 ‘比*a 一些’로 검색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용사의 출현 횟수를 말한다. 이는 ‘통계(统计)’를 통해 얻은 결과이다. 여기서의 ‘A’는 형용사를 가리킨다. 그리고 BCC의 ‘*’와 CCL의 ‘\$’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BCC 웹사이트(<http://bcc.blcu.edu.cn>)에 있는 예시인 ‘见*面’, ‘把*V 下去 w’, ‘是*的 w’를 살펴보면 *의 역할은 한 문장에서 见과 面 같은 두 키워드 사이의 공간에 다른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严格地说, 动作是不能比较高下的, 只能在动作的程度上分强弱。

BCC 코퍼스를 통해 검색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사는 비교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一些’ 비교구문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3 가지 동사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一些’ 비교구문에서 비교결과항이 동사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2.2 심리동사

심리동사는 동사의 하위 분류이다.⁴⁶⁾ 본고에서 BCC 코퍼스 검색 결과 ‘一些’비교구문의 비교항에 심리동사가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심리동사가 쓰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了解(5) 明白(3) 重视(3) 知道(2) 喜欢(1) 注意(1) 关心(1) 熟悉(1) 理解(1)
小心(1) 爱(1)

다음은 이러한 심리동사가 쓰이는 예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6) “威廉亨利堡的首领要能早点见到他的女儿，不是更加高兴吗？要是还得再过上一夜才见到她们，说不定会使他的心肠变硬，赏金方面也没原来那么慷慨哩！”“难道说，白脸孔对自己的孩子，早上会比晚上少爱一些吗？”印第安人冷冷地问道。“那当然不是这样。”海沃德生怕自己已说错了话，急忙纠正说。“不错，白人确实常常会把自己的祖坟给忘了，有时候也会想不起他应该爱的和答应要爱的人，但是对自己子女的钟爱，是永远也不会消减的。”

46) 북경대학교 중어중문과에서 편집한 《现代汉语》에 따르면 일부 심리활동과 관련된 동사는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로 ‘很想’, ‘很同意’, ‘很喜欢’, ‘很讨厌’, ‘很怕’, ‘很恨’ 등이 있다. 이러한 동사는 마치 형용사처럼 ‘很’과 공기 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很想家’ (매우 집에 가고 싶다), ‘很同意他的意见’ (그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 ‘很喜欢孩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다) 등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심리동사는 주관적인 경험, 감정, 욕망, 태도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p.284)

“윌리엄 헨리성(William Henry Castle)의 지도자가 그의 딸을 빨리 만날 수 있으면 더욱 기쁘지 않을까요? 그녀들을 보기 위해 하룻밤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아마도 그의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고, 현금 보상도 원래만큼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백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저녁보다 아침에 조금 적게 사랑할까요?” 인디언이 차갑게 물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헤이워드(海沃德)는 이미 잘못 말한 게 아닌지 두려워하여 급히 바로잡았다. “맞아요, 백인들은 종종 자신의 조상의 무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나 사랑해야 한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에 대한 애정은 영원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 (37) 他们之间，除了那档子事不和谐，其他的该算是圆满的吧！说起来，她还是挺喜欢他的，比预料中还喜欢一些，只要不必做那件事，她想她会更喜欢他的。

그들 사이에는 그 일을 제외하면 조화롭다고 할 만큼 원만한 관계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녀는 그를 정말로 좋아하는 편인데,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그녀는 더욱 더 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 (38) 康拉德由于耳濡目染，对这些骑士的隐语，比他的上司了解一些，他向困惑的大宗师解释了这段话，说这是俗人的用语，是指他们心目中的情妇；但这解释并不能使执拗的博马诺完全满意。

康拉德는 항상 보고 들어서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이 기사(騎士)들이 사용하는 은어(隱語)에 대해 그의 상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는 당황한 대장에게 이 말을 설명해줬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뜻은 그들의 마음속의 애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고집스러운 博马诺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 (39) 你读了这么多年的书，应该比我们明白一些。

당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으니, 우리보다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위의 예문에서 ‘爱’와 ‘喜欢’, ‘了解’, ‘明白’은 모두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심리동사이다. (36)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다른 것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다. (37)에서는 남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예상보다 조금 크다고 묘사하는 내용이다. (38)에서는 ‘康拉德’는 ‘大宗师’

보다 기사들의 은어를 더 잘 이해한다는 정도를 묘사하고 있다. (39)는 ‘你’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我们’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표현하는 내용이다.

2.1.2.3 동보구조

‘一些’ 비교문에 쓰이는 동보구조는 주로 ‘V+得+Adj+一些’ 형식이 쓰인다. 중국어에서 동보구조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생산성도 높으며 일반 비교문에서 자주 나타난다. 중국어 비교구문은 동작 행위와 관련이 있을 때 동작 행위 발생 후에 양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어 문장의 구성 원칙에 따라 결과를 나타내는 속성은 동사 뒤에 보어성분으로 나타난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40) 我想她可以演得比这更好一些。

나는 그녀가 이보다 좀 더 잘 연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1) 他脸上干干净净的, 口红擦得比昨天还浓一些。

그의 얼굴은 깨끗했고, 립스틱은 어제보다도 좀 더 짙게 발랐다.

(40)에서는 술어 “동사·演·+得+형용사·好”를 사용하여 연기가 좋은 정도를 대비시킨 것이다. (41)에서는 술어 “동사·擦·+得+형용사·浓”을 사용하여 립스틱의 농도를 대비시킨 것이다.

비교결과항에 형용사가 쓰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앞뒤에 다른 성분을 부가하지 않는다. 반면, 비교결과항에 동사가 출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 형식으로는 쓰일 수 없고 동보구조 형식으로 출현해야 한다. 동보구조의 ‘一些’ 비교문이 정도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이유는 동작 행위가 발생한 이후 정도 및 수량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47) 刘芬·石毓智(2020:7)에서 참고.

- (42) a. *我比他演些。
b. 我比他演得好一些。
나는 그 사람보다 연기를 좀 더 잘한다.
- (43) a. *他比昨天擦些。
b. 他比昨天擦得浓些。
그는 어제보다 (립스틱을) 좀 더 짙게 발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교객체가 보여 위치에 출현하더라도 문장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44) a. 我比他演得好一些。
b. 我演得比他好一些。
나는 그 사람보다 연기를 좀 더 잘한다.
- (45) a. ? 他比昨天擦得浓一些。
b. 他擦得比昨天浓一些。
그는 어제보다 (립스틱을) 좀 더 짙게 발랐다.

(44~45)에서 ‘好’, ‘浓’은 성질 형용사에 속한다. 이러한 형용사는 동사 ‘演’과 ‘擦’의 뒤에 출현하고 ‘演得好一些’, ‘擦得浓一些’로 구성된다. (44a)에서는 ‘我’와 ‘他’ 간에 연기 능력에 대한 수준을 비교하는 반면, (44b)에서는 연출이 이미 끝난 후에 ‘我’와 ‘他’의 연기 능력을 비교한다. (45a)는 조금 어색한 문장이지만 (45b)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2.1.2.4 ‘有’+추상명사

동사 ‘有’ 자체는 양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일부 추상명사 뒤에서는 양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용례로 ‘潜力’, ‘经验’, ‘阅历’, ‘前景’ 등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46) 就经济发展来说, 中国西部市场比东部市场更有潜力。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서부 시장은 동부 시장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47) 我们是比一般的医院有经验。
우리는 보통의 병원에 비해 경험이 좀 더 많다.
- (48) 她比我们要更有阅历, 称呼起我们来一口一个‘小孩’。
그녀는 우리보다 경험이 좀 더 많아서,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애기’라고 불렀다.
- (49) 互联网产业比IT大, 而且比IT更有前景。
인터넷 산업은 IT보다 크며, 게다가 더 큰 전망을 갖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一些’ 비교문에 사용되는 ‘有+추상명사’에서 추상명사는 모두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폄하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⁴⁸⁾

- (50) 一百万的赌注恐怕比这来得更有意义一些。
백만의 노름돈이 이것보다는 좀 더 유의미할 거 같다.
- (51) 当医生要比当病人好当, 当演员比当观众要有吸引力一些。
의사 노릇이 환자 노릇보다 하기 낫고, 배우 노릇이 관중 노릇보다는 좀 더 매력이 있다.
- (52) 我始终觉得黑色要比白色有气质一些。
저는 항상 검은색이 하얀색보다 좀 더 기품이 있다고 느껴져요.
- (53) 小孩子总是要比老人要有活力一些。
어린이는 아무래도 노인보다 항상 활력이 넘치는 것 같다.

(50~53)에서는 ‘有’의 뒤에 추상명사인 ‘有意义’, ‘有吸引力’, ‘有气质’, ‘有活力’이 쓰였다. ‘有’와 추상명사가 결합하면 추상명사의 성질이 더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有意义’는 ‘의미가 크다(意义很重大)’, ‘有吸

48) 有价值, 有意义, 有活力, 有概念, 有道理, 有盼头, 有气质, 有说服力, 有体统, 有吸引力, 有层次, 有质感, 有气质

引力’는 ‘인기가 많다(吸引力很强)’, ‘有气质’는 ‘품격이 있다(气质很好)’, ‘有活力’는 ‘활력이 넘친다(活力十足)’와 같이 긍정적인 추상명사와 결합하면 그 의미가 확장된다.

구체적인 명사의 경우는 ‘一些’ 비교문에 사용할 수 없다.

(54) 我比你有一些钱。

나는 너보다 좀 더 돈이 있다.

(55) *妈妈比我们要有一些钥匙。

(56) *他这个性格外向, 比你们有一些朋友。

위의 예문에서 ‘有’는 ‘소유’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언어학자들이 언급한 ‘희망[企及]’ 의미도 아니다 (赵元任, 1979).⁴⁹⁾ 이러한 ‘有’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도의 양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55)와 (56)에서 ‘钥匙’와 ‘朋友’는 모두 구체적 사물로 정도성이 없기 때문에 ‘有’ 뒤에 사용될 수 없다. 위의 세 예문을 통해 ‘有’에 후행하는 명사가 추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추상적 의미의 어휘는 의미가 모호하여 ‘一些’의 불확정성과 공기할 수 있으며, 추상명사 자체에는 정도의 차이가 없지만 ‘有’와 결합한 후에는 정도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아래 예문은 ‘些’의 부가 여부에 따른 의미 차이를 보여준다.

(57) a. 我比你有些钱。

b. 我比你有钱。

49) 赵元任(1979)은 X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올라서 Y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有’가 구성하는 비교문에 상태 제시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 외에도, 미세한 동작을 묘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동작은 주로 발화시의 심리활동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동작행위와는 다르다.

중국어에서 ‘有钱’은 다의어로 맥락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 위의 두 문장에서 ‘有钱’의 의미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57a)에서 ‘有钱’은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어 ‘화자(我)’가 ‘청자(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문장 (57b)에서 ‘有钱’은 특정한 한계 의미를 가지며, ‘我’가 비교적 부유한 경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57a)는 돈의 양을 비교하고, (57b)는 두 사람 간에 부유한 특성을 비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교하는 것은 양적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부유함 정도의 차이이다.

이상에서 ‘一些’ 비교문의 비교결과향인 경우에 대해 형용사와 동사로 나누어 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용사는 음절 수에 따라 일음절, 이음절, 다음절로 나누어 서술했다. 특히 ‘一些’ 비교구문에서 연속적으로 2개의 일음절, 이음절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운율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이어서 형용사의 속성에 따라 의미를 고찰하였다. 상태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등급성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성질 형용사 위주로 고찰했다. 동사의 경우 심리동사, 동보구조, ‘有’+추상명사 등으로 나누고 이 세 가지 동사성분이 ‘一些’ 비교구문에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였다. 우선 심리동사인 경우 사람의 심정은 변화 폭이 있기 때문에 등급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一些’ 비교구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동보구조의 경우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도, 행위의 속도 등과 같은 양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동보구조도 비교의 척도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一些’ 비교구문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有’+추상명사의 경우 명사가 추상적 어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모호하여 ‘一些’의 불확정성과 공기할 수 있으며, 추상명사 자체에는 정도의 차이가 없지만 ‘有’와 결합한 후에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2 ‘X比YW不了多少’ 구문

본 절에서는 비교항의 대칭성, 비교점의 생략, 비교결과항의 양적 특성이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不了多少’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2.1 비교항의 대칭성

太田辰夫(2003)는 비교는 상대비교와 절대비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대비교는 비교대상이 문장 내에 출현하는 반면, 절대비교는 비교대상이 문장 내에 출현할 수도 있고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와 절대 개념은 비교항 사이의 심층 의미 관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는 비교항의 생략 문제와 관련이 있다.

2.1.1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비교항은 단어가 쓰이거나 동일한 유형의 구가 쓰인다. 이처럼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통사적 대칭성은 비교항의 기본 의미조건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 모델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통사적 비대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W 不了多少’ 구문에서도 일부 요소가 생략되어 X와 Y 간에 통사적 비대칭을 이루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2.2.1.1 비교객체 Y의 중심어 생략

X와 Y를 비교함에 있어서 X가 수식어-중심어(修饰短语)인 경우 일반적으로 Y에서 중심어를 생략할 수 있다. 중심어가 생략될 때 일반적으로 구조조사 ‘的’도 같이 생략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的’를 보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 (58) 当时灯光昏暗, 比现在亮不了多少, 所以我只看得见你的轮廓, 听得到你的声音。
 그때는 불빛이 희미해서 지금보다 조금도 밝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윤곽만 볼 수 있었고 너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 (59) 以前经常去大城市买衣服, 现在不去了。因为那里的东西比这儿多不了多少, 价格还高。
 예전에는 대도시로 옷을 사러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가지 않아요. 여기보다 물건이 딱히 많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에요.
- (60) 萨吉化, 你叫龟甲, 你的皮好像也比别人的厚不了多少, 不如改叫乌龟算了!
 萨吉化, 너의 이름은 龟甲이다. 너의 피부는 남들보다 별로 두꺼울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거북이라고 불러야겠어!

(58)에서 비교주체의 ‘当时’와 비교객체의 ‘现在’의 서로 다른 두 시점을 통해 ‘灯光’의 밝기를 비교하고 있다. (59)의 비교주체는 ‘那里(大城市)的衣服’이고 비교객체는 ‘这儿(小城市)的衣服’이다. 두 도시의 옷의 수량을 비교하면서 대도시에 가서 옷을 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60)의 비교주체는 ‘你的皮’이고 비교객체는 ‘别人的皮’이다. 피부는 인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的’를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비교객체의 중심어인 ‘皮’만을 생략하였다. ‘萨吉化’의 이름은 원래 ‘龟甲’이지만 화자는 상대방의 이름을 반대로 바꾸어 ‘乌龟’로 풍자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乌龟’는 ‘缩头乌龟’의 의미로 상대방의 피부(皮肤)가 너무 얇아서 사교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2.1.2 비교객체의 술어부분 생략

‘W 不了多少’ 구문에서 비교객체의 술어를 생략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61) 他跑起步来比运动员慢不了多少。

그는 뛰기 시작하면 운동선수보다 그리 느리지 않다.

(61)에서는 ‘他’와 ‘运动员’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한다. 비교주체인 ‘他跑起步来’는 주술구이고 비교객체는 ‘运动员跑起步来’인데, 비교객체서 두 항의 공통성분인 ‘跑起步来’를 생략해서 표현하였다.

비교점이란 비교의 내용과 근거이며, 비교주체과 비교객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W 不了多少’ 미세차이 비교구문에서 비교점은 두 항에 출현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생략도 가능하다. 비교점의 위치는 유연해서 비교전항뿐만 아니라 비교후항에도 나타날 수 있고, 비교전항과 비교후항에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62) 你现在的成绩比去年差不了多少。

너의 현재 성적은 작년보다 그리 나쁘지 않다.

(63) 员工比经理工资少不了多少。

직원은 사장보다 급여가 별로 적지 않다.

(62)은 비교전항인 ‘现在的成绩’과 비교후항인 ‘去年的成绩’의 비교이다. 여기에서 비교의 내용은 ‘成绩’인데 비교점은 비교전항에만 나타난다. (63)은 비교전항의 ‘员工’와 비교후항의 ‘经理’를 급여(‘工资’)에 대해 비교한 것으로 비교점은 비교후항만 나타난다.

분석결과, 비교점이 비교전항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반면 비교점이 비교후항에 출현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예문에서는 비교점이 화제로 쓰여 문두에 출현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64) 就棋艺来讲, 他比门外汉好不了多少。
바둑 솜씨로 말하자면, 그는 문외한보다 딱히 실력이 좋지 않다.
- (65) 论年龄, 他比我小不了多少。
나이를 따지면 그는 나보다 별로 많지 않다.

(64)에서는 비교전항인 ‘他’와 비교후항인 ‘门外汉’은 바둑 실력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며 비교점인 ‘棋艺’가 화제로 문두에 출현하였다. (65)는 ‘他’와 ‘我’의 나이를 비교한 것으로 비교점 ‘年龄’은 화제로서 문두에 출현하였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66) 老大⁵⁰⁾还是道上⁵¹⁾有点名气的人物, 没想到胆子却比老鼠大不了多少!
老大는 이 바닥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인물인데, 의외로 담력은 쥐보다도 딱히 크지 않다.
- (67) 他吞吞吐吐地说, 比树叶颤动的声音大不了多少。
그는 우물쭈물하여 말하였는데. (목소리가) 나뭇잎이 떨리는 소리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 (68) 其实, 我姑姑也比我大不了多少, 她只比我大五岁!
사실, 나의 고모도 나보다 별로 나이가 많지 않다. 그녀는 겨우 나보다 다섯 살 위다!
- (69) 这人的年纪看来比我大不了多少, 却要我叫他大叔。
이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저씨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비교결과항 내에 있는 형용사에 여러 의미항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0) 老大 : 원래는 형제 중 먼저 태어난 사람(예: 형제 중 첫째)을 말하며, 나중에는 상위로의 개념으로 널리 인용되고, 나아가 한 그룹의 리더 또는 최고로도 인용된다.

51) 道上 : 강호(江湖)의 뜻으로 황제 및 관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무협 소설에서 말하는 강호이며, 자신들의 규칙이 있는 곳이다.

비교점은 생략하지 않는다. 위 예문의 비교결과항은 형용사 ‘大’이다. ‘大’의 의미항목으로는 면적, 부피, 음량, 담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66), (67)에서는 비교점이 되는 속성명사인 ‘胆子’와 ‘声音’은 생략하지 않았다. 만약 ‘胆子’와 ‘声音’을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불명확해져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68), (69)에서 비교점은 속성명사가 모두 ‘年纪’이다. 이 경우 비교점이 (68)처럼 나타나지 않아도 되고, (69)처럼 나타나도 된다. 이처럼 형용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각 의미항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형용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2.2 비교결과항에 쓰이는 형용사

미세차이 비교구문 ‘X 比 YW 不了多少’에서 W 는 제약이 존재한다. 말뭉치에 의하면, W 에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구문	음절	형용사 종류
不了多少	일음절	大, 好, 高, 差, 小, 强, 贵, 长, 厚, 宽, 快, 慢, 多, 矮, 低, 迟, 难, 瘦, 早
	이음절	高明, 好看, 好听, 便宜, 坚固, 复杂, 慈祥, 宽裕, 利索, 年青, 高尚, 亲密, 轻松, 清晰, 清醒, 热闹, 容易, 舒服, 安静, 逊色

〈표 2-2〉 ‘不了多少’ 구문의 형용사

BCC 코퍼스에 따르면 ‘不了多少’ 구문은 318 개의 예문이 있고 형용사는 총 39 개가 검색된다. 그 중 일음절 형용사의 용례는 19 개, 이음절 형용사는 20 개이다. 따라서 일음절 형용사와 이음절 형용사 모두 해당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일음절 형용사가 전체 형용사의 약 48.7%를 차지하고, 이음절 형용사는 약 51.3%를 차지한다. ‘不了多少’ 비교구문의

형용사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도량형용사’가 쓰이고, 다른 하나는 이 구문에 쓰이면서 평가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구문에서 평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본고에서는 평가적 형용사로 부르고자 한다.

2.2.2.1 도량형용사

본고에서의 ‘도량형용사’란 물리적인 상태를 지시하는 양극단의 관계에 있는 형용사를 의미한다. ‘不了多少’ 비교구문은 이러한 도량형용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汉拿山比智异山高, 比雪岳山更高一些.”라는 문장에서와 같이 ‘한라산의 고도(height)인 물리적인 수평적 높이 상태’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길다-짧다’, ‘크다-작다’, ‘높다-낮다/작다’와 같은 단일한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不了多少’ 비교구문은 이러한 도량형용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구문에서 ‘多少’란 수량을 나타내므로, ‘大’, ‘小’, ‘长’, ‘厚’ 등과 같이 크기, 길이, 두께 등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의 표를 보자.

순번	적극적 형용사	출현 횟수	비율 (적극:소극)	출현 횟수	소극적 형용사
1	大	177 52)	9.8:1	19	小
2	高	52	7.4:1	7	低(5), 矮(2)
3	多	9	0.5:1	19	少
4	快	12	3:1	4	慢
5	粗	10	-	0	细
6	贵	9	3:1	3	便宜
7	长	9	-	0	短
8	宽	6	-	0	窄
9	重	1	-	0	轻
10	深	0	-	0	浅

<표 2-3> ‘不了多少’ 구문에서 형용사의 적극의미-소극의미의 대비

위의 <표 2-3>에서 크기와 관련 있는 도량형용사인 ‘大’의 출현빈도는 9.8:1로 가장 높았고, ‘高’, ‘小’, ‘少’ 등이 그 뒤를 이었다. ‘快’, ‘粗’, ‘多’, ‘贵’, ‘长’, ‘慢’ 등 형용사는 출현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음절 형용사 중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것은 ‘大’, ‘高’, ‘快’ 등의 긍정적 형용사이고, 이에 대응되는 부정적 형용사 ‘小’, ‘低/矮’, ‘慢’는 긍정적 형용사의 출현빈도에 비해 적게 쓰이고 있었다. 이와 대조해서 ‘一些’ 구문에서 논의한 <표 2-1>를 살펴보면 ‘大’-‘小’와 ‘高’-‘低/矮’의 출현비율은 각각 2.5:1과 2.2:1인 데 반해, ‘不了多少’ 구문에서의 비율은 9.8:1과 7.4:1로 나타났다.

‘一些’ 비교구문의 경우, 객관적 비교를 나타내며 비교주체 X와 비교객체 Y 간에 실제적인 비교가 이루어진다. 반면 ‘不了多少’ 비교구문의 경우

52) 숫자는 BCC에서 ‘比*a 不了多少’를 검색하였을 때 형용사가 나타나는 출현횟수를 말한다.

에는 과장식 비교가 대부분이며, 비교주체 X는 비교객체 Y에 비유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는 출현빈도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一些’ 비교구문의 경우에는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가 비교적 균형있게 출현하는 반면, ‘不了多少’ 비교구문은 주로 적극적 형용사가 훨씬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2-3>에서 보듯이 ‘大’(177 회), ‘高’(52 회)로 특히 높은 출현비율을 차지하게 된 것은 비교항의 유생성(animacy)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생성(animacy)이란 생명체나 존재에 대한 개념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유생성은 일반적으로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거나, 생물체들 간에 계층을 형성하는 등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유생성을 언어와 관련하여 최초로 연구한 학자는 Jespersen(1922:391~394)이다. 그는 인도유럽어족에서 성(gender)의 기원이 유생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 Comrie(1989:185)는 등급 개념이 제시된 유생성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그는 유생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하나의 위계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유생성의 위계는 높은 순서부터 ‘인간>동물>무생물’ 순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유생성은 명사구의 고유한 속성으로 간주된다. 형용사는 사물의 속성과 성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형용사에 대해서는, 만약 한 가지 속성이 100% 사람을 표현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런 형용사는 가장 높은 유생성을 가진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형용사가 사람을 묘사하는 대신 사물을 묘사한다면 가장 낮은 유생성을 가진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不了多少’ 구문의 경우 두 비교항목으로 나타나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로 일반적으로 사람(+유생성)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70) 你小时候也比一般的婴儿娇小许多, 比一先令⁵³⁾大不了多少。
너는 어렸을 때 다른 영유아보다도 훨씬 작았어. 1파운드 동전보다 별로 크지 않았거든.
- (71) a. 祁连山: 你那个宝贝弟子是我出手解决的, 完全没有别人帮忙。
네가 아끼는 제자는 내가 해결했어. 다른 사람 도움은 전혀 없이.
b. 赫连新: 我不信, 你比我的弟子高不了多少, 哪能这么容易杀死他!
못 믿겠어, 너는 내 제자보다 (무술이)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쉽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70)에서 형용사 ‘大’(크다)는 어릴 때의 몸집과 1 파운드 동전을 비교하여 ‘你’가 아주 작은 몸집이라는 것을 표현하였다. (71b)에서 ‘高’는 발화문맥을 통해 祁连山과 赫连新的 제자의 무술(武功) 능력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大’와 ‘高’ 등 형용사가 쓰인 ‘不了多少’ 구문을 보면 비교항으로 주로 유생성을 지닌 사람, 동물, 생물 등이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비교항목이 유생성이 낮은 경우 ‘不了多少’ 구문에 쓰였을 경우 문장은 어감상 좋지 않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72) a. 空地上的沙子比其它地方要细一些。
빈 땅 위의 모래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가늘다.
b. ??空地上的沙子比其它地方要细不了多少。
- (73) a. 这一些短文章, 仅仅是比其他文章短一些。
이런 짧은 문장들은 단지 다른 문장에 비해 조금 짧을 뿐이다.
b. ??这一些短文章, 仅仅是比其他文章短不了多少。

(72)에서는 ‘细’(가늘다)은 공터의 모래와 다른 곳의 모래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였고 (73)의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를 비교하고 있다. 즉, 이

53) 先令은 영어로 Shilling이다. Shilling 은 영국 및 영연방 국가의 통화 단위이고, 이는 파운드(pound)의 1/20 또는 12 펜스(pence)와 동일하다.

들의 비교항목으로 출현하는 대상을 보면 모두 무생물이다. 이러한 비교구문은 ‘一些’로 많이 나타나지만 ‘不了多少’ 구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2.2.2.2 평가적 형용사

BCC 코퍼스에서 검색되는 평가적 형용사는 ‘好’, ‘差’, ‘高明’, ‘强’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好’와 ‘差’의 출현빈도를 보면 ‘好’의 용례는 117 개에 달하는 반면, ‘差’는 그 용례가 27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好+不了多少’의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74) 曹氏含泪道：“孙茂才，想当初你一个比叫花子好不了多少的东西，来到我们家，致庸好心收留了你，我看你可怜，让人帮你缝衣服，做鞋帽，你才像个人样儿！可我万万没想到，你竟是个面兽心的东西。”

曹氏が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손모재(孙茂才)야, 너는 예전에 거지보다 별로 낫지 않지만 致庸이 너를 착한 마음으로 받아줬어. 내가 볼 때 너가 불쌍해 보여 다른 사람이 옷도 수선해주고 신발과 모자를 만들게 해서 겨우 네가 사람답게 된 거야!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 네가 심술궂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75) 你打算用偷情出轨的手段來逼迫我让步吗？你的品性真的比一个妓女好不了多少。

당신이 외도해 놓고 나를 억지로 굴복시킬 작정이었어? 당신의 인격은 정말로 창녀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

(76) 她只是生了你，就该欠你一辈子债，服侍你一辈子吗？你又不缺胳膊又不缺腿，你真比一个畸形儿好不了多少！你给我醒过来！醒过来！醒过来！

그녀는 단지 너를 낳았을 뿐인데 평생 네게 빚을 지고 일평생 너를 모셔야 하는 거야? 네가 팔도 다리가 부족하게 아닌데도 기형아보다 그렇게 나올 게 없네. 제발 깨어나! 깨어나! 깨어나라구!

(77) 原振侠的情绪，低落到了极点。玛仙在巫师岛上被爱神带走之后，独自在巫师岛上又呆了将近一个月的原振侠，看来比白痴也好不了多少。

原振侠은 기분이 매우 저하되었다. 사랑의 여신(爱神)이 마仙을 마법사(巫

师) 섬에서 데려간 후, 原振侠은 마법사 섬에서 한 달 가까이 혼자 지냈는데 바보(白痴)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였다.

(75~76)을 보면 비교항으로 나타나는 비교주체로 각각 ‘你的品性’, ‘你’ 등이 쓰이고, 비교객체의 위치에 각각 ‘妓女’, ‘畸形儿’ 등이 쓰이고 있다. 이때 비교객체를 보면 화자가 판단하기에 비교기준으로 아주 레벨이 아주 낮은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好不了多少’하다는 것은 비교주체가 아주 형편없음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화자의 관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형용사 ‘好’를 제외하고도 이 구문에는 또 ‘高明’, ‘强’ 등 평가적 형용사도 쓰이는데 다음 예문이 그러하다.

(78) 我知道我的行为比那些专门在拍卖场上竞买小妾的富商高明不了多少, 但我想将你永远留在身边, 不是以主人和奴隶的关系, 而是以……

내의 행동이 경매장에서 첩을 입찰하는 부자들보다 그다지 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말아야….

(79) 风清扬懊悔莫及, 最难消受美人恩⁵⁴⁾, 他听得多了, 先前总笑解风畏色⁵⁵⁾如虎, 不意而今自己比他也强不了多少。

风清扬은 후회막심했다. 미인의 유혹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이전에는 항상 解风이 여자들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는데, 예상치 못하게도 이제는 자신도 解风보다 그다지 낮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우선 (78)을 살펴보면 비교주체의 위치에 ‘我的行为’가 쓰이고 비교객체의 위치에 ‘专门在拍卖场上竞买小妾的富商’가 쓰이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행동’이 ‘경매장에서 첩을 입찰하는 부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도 그들보다 낮지 않다고 여긴다. 다음으로 (79)에서 ‘风清扬’은 자신도

54) 여기에서 恩은 미인의 유혹을 의미한다.

55) 여기에서 ‘色’은 여성을 의미한다.

‘解风’과 다름없이 여자의 유혹에 약하다는 점을 깨닫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W 不了多少’ 구문의 비교결과향으로는 주로 형용사가 쓰인다. 이는 앞서 논의한 ‘一些’ 구문에서 비결결과향으로 성질 형용사, 심리 동사, 동보구조 등 여러 성분이 쓰일 수 있는 경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不了多少’ 구문은 위에서 살펴본 형용사 외에도 동보구조가 출현했는데 아래와 같이 두 개 예문에 불과하였다.

(80) A: 你们在营地过得好吗?

너희들 캠프에서 잘 지내니?

B: 过得比狗好不了多少。

개보다 잘 지낸다고도 할 수 없어요.

(81) 劲科.阿班旦杜同死亡进行了长期斗争, 现在他被征服了。他躺在一头稍稍升高了的病床上, 精疲力竭。他已经枯竭得比一具骷髅强不了多少。当年生机盎然的一头黑发, 现在已经变成一撮一撮像线一样的污秽东西。

劲科.阿班旦杜는 죽음과 오랫동안 싸웠지만 이제 그는 정복당했습니다. 그는 약간 높아진 침대에 누워 있으며 지친 상태입니다. 그는 이미 해골보다 별로 강하지 않을 정도로 지쳐있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검은 머리 카락은 이제 실처럼 더러움이 묻은 송이 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80)에서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나타내며, 두 번째 사람은 자신들이 캠프에서 개처럼 지낸다고 말하고 있다. ‘过得比狗好不了多少’는 ‘你们’과 ‘개’의 생활의 ‘질’적 측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처럼 캠프에서 어떤 군인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81)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죽음과 싸워왔고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뼈만 남은 상태를 과장하여 묘사한다. 이러한 예문들은 주로 객관적인 비교보다는 과장된 비교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동보구조의 경우 보어의 위치에는 결과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W 不了多少’의 경우에는 모호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결과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비교구문은 동보구조로 쓰이는 경우

가 2 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W不到哪里去’ 구문

본 절에서는 비교항의 대칭성, 비교점의 생략, 비교결과항의 양적 특성 등 세 가지 관점에서 ‘W不到哪里去’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2.3.1 비교항의 대칭성

‘W不到哪里去’ 구문은 일반적으로 종속복문(偏正复句)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며,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초점에 해당한다. 吴为善·夏芳芳(2011)은 이 구문이 상식비교(암묵적 비교)와 차등비교 범주(명시적 비교)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⁶⁾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코퍼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명시적 비교보다는 상식적 비교의 예문이 훨씬 많다.⁵⁷⁾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82) 他会的我全会, 比我也高明不到哪里去。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전부 다 할 수 있어. (그가) 나보다 딱히 뛰어나지 않아.

(83) 严格说起来, 中国的怕老婆比日本不怕老婆高级不到哪里去, 中国之怕乃怨偶之恨, 非爱情之怕也。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 남자가 아내를 무서워하는 것은 일본 남자가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보다 그다지 차원이 높지 않다. 중국 남자가 무서워

56) 吴为善·夏芳芳(2011)에 따르면, 상식비교는 常式比较로서 비교표지 ‘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고, 차등비교는 差等比较로서 비교표지 ‘比’가 나타나는 문장을 말한다.

57) BCC 검색 결과, ‘a不到哪里去’의 예문은 292 개이고, ‘比*a不到哪里去’의 예문은 단지 22 개만 출현한다.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원한으로 애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다.

위의 (82)과 (83)은 비교표지 ‘比’가 쓰인 명시적 비교구문에 속한다.

蒋绍愚·曹广顺(2005)⁵⁸에 따르면, 비교구문은 문법형식으로 형식적 조건이 존재하지만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는 형식적 조건이 없다고 하였다. ‘不到哪里去’ 구문에는 일반적으로 비교표지 ‘比’가 나타나지 않는다.

- (84) “你说我们丑!?” “你自己也帅不到哪里去!”
 “우리가 못생겼다고!?” “당신도 그렇게 멋지지 않아!”

(84)에는 비교표지 ‘比’가 출현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我们’과 ‘你’의 외모를 비교하는 의미가 드러난다. 이처럼 비교표지 ‘比’가 없는 문장은 ‘W 不到哪里去’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4 장의 화용적 측면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3.2 비교결과항에 쓰이는 형용사

미세차이 비교구문 ‘W 不到哪里去’에서 W 는 제약이 존재한다. 말뭉치에 의하면, W 에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구문	음절	형용사 종류
W不到哪里去	일음절	好, 差, 坏, 强, 高, 低, 帅, 大, 小, 黑, 厚, 贵, 旧, 阔, 古, 慢, 穷, 长, 湿, 瘦, 险, 糟, 犷
	이음절	好看, 高明, 高级, 聪明, 清高, 好吃, 厉害, 高兴, 高尚, 高贵, 便宜, 舒服, 复杂, 好听, 含糊, 惊喜, 可怕, 客气, 美满, 难过, 难看, 干净, 热闹, 善良, 悲伤, 和善, 嚣张, 安分, 幸福, 逊色, 整齐, 正直, 忠贞

〈표 2-4〉 ‘不到哪里去’ 구문의 형용사

58) 蒋绍愚·曹广顺(2005) 참조.

BCC 코퍼스에서 ‘W 不到哪里去’ 구문은 292 개가 추출되었는데 총 56 개의 형용사가 이 구문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음절 형용사가 23 개, 이음절 형용사는 33 개이다. 사용횟수를 살펴보면 ‘W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형용사 ‘好’의 용례가 63 건에 달해 가장 많이 출현했고 다음으로 이와 상반된 의미의 ‘坏’와 ‘差’는 합쳐서 83 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好’, ‘坏’, ‘差’ 등이 쓰이는 용례가 전체 292 개의 예문에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반면, ‘宽’, ‘重’, ‘深’ 등과 같이 사물의 넓이, 무게, 깊이 등을 나타내는 객관적 형용사는 1 건도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은 주관적 평가에 주로 쓰이고, 실제적 차이를 나타내는 데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예문은 특이하게도 도량형용사 ‘贵’, ‘大’, ‘高’, ‘小’, ‘低’ 등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 (85) 大概正常票价四五百吧, 贵不到哪里去。再贵也就七八百。
대개 정상 가격은 대략 사오백 원 정도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 비싸봤자 칠팔백 원 정도지.
- (86) 恰恰相反,他们的心情很苦恼。他们是穷苦的佃农人家, 全部土地比一个菜园大不到哪里去。
그와 반대로 그들의 마음은 고뇌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소작농의 집이었고, 모든 토지는 채소밭 하나보다 크지 않았다.
- (87) 何法琪穿了高跟鞋也比曹苇杭高不到哪里去, 偏还作态地弯下身子, 朝台下的他招了招手。
何法琪는 하이힐(高跟鞋)을 신었을 때도 曹苇杭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허세를 부리며 몸을 일부러 숙여서 무대 아래의 曹苇杭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 (88) 问题是, 大事小事, 骨肉相连, 一颗核子弹击中了纽约, 固是大事, 可是一下子把贵阁下的眼睛医瞎啦, 站在你和你家人的立场, 事也小不到哪里去。
문제는 크고 작은 일들이 가족 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만약 원자탄이 뉴욕을 타격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대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갑자기 당신의 눈이 멀어지는 것은 당신과 가족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소한 일이 아니다.

(89) 内陆地区的气温会达到100度, 沿海地区的气温也低不到哪里去。

내륙 지역의 기온은 (화씨) 100도까지 상승할 것이며, 연안 지역의 기온도 그렇게 낮지 않을 것입니다.

(85~89)에서 비교결과항에 쓰이는 형용사 ‘贵’, ‘大’, ‘高’, ‘小’, ‘低’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도량형용사이지만 문장에서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비교항 간의 객관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유(과장법)을 통해 그러한 정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85)의 경우에 ‘票价’에 대해 ‘비싸봤자 정상 가격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며, (86)의 경우에는 ‘소작농으로 소유한 땅은 겨우 채소밭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즉, 비교항 간의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와 수사법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一些’ 구문과 ‘不了多少’ 구문에 대해 조사한 항목과 동일한 일음절 형용사의 용례 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적극적 형용사		비율 (적극:소극)	소극적 형용사	
	어휘	출현 횟수		출현 횟수	어휘
1	大	259)	1:1	2	小
2	高	20	5:1	4	低(4),矮(0)
3	多	0	-	0	少
4	快	3	-	0	慢
5	粗	0	-	0	细
6	贵	1	-	0	便宜
7	长	1	-	0	短
8	宽	0	-	0	窄
9	重	0	-	0	轻
10	深	0	-	0	浅

〈표 2-5〉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형용사의 적극의미-소극의미 대비

59) 숫자는 BCC 에서 ‘a 不到哪里去’를 검색하였을 때 형용사가 나타나는 출현횟수

2.3.2.1 성질 형용사

우선 ‘大’, ‘小’ 등 형용사가 쓰이는 ‘X 比 YW 不到哪里去’ 구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예문은 百度에서 검색된 예문이다.

- (90) 官渡之战前夕, 从地图上看, 袁绍的地盘比曹操大不到哪里去吗?⁶⁰⁾
관도 전투 전야의 지도를 보면, 원소(袁绍)의 영토가 조조(曹操)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 (91) 这种丧尸最引人注目的是大脑, 他们的大脑异常庞大, 比起身子宽度也小不到哪里去, 看起来就像是身体的延伸。大脑上是一个巨大嘴巴, 张开的嘴巴几乎把脑袋分成两半, 嘴巴里面没有牙齿。⁶¹⁾
이런 종류의 좀비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의 뇌이다. 그들의 뇌는 특이하게도 매우 거대하며 몸통의 너비와 비교해도 그다지 작지 않아서 마치 몸의 연장인 것처럼 보인다. 얼굴은 거대한 입이 있으며, 벌어진 입은 거의 두 조각으로 머리를 나눈다. 입 안에는 이빨이 없다.

(90)에서는 성질 형용사 ‘大’는 두 사람의 영토 크기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와 조조의 영토, 가신(家臣) 등 인적 자원, 영향력 등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94)에 출현하는 형용사 ‘小’도 마찬가지다. 좀비의 머리 크기와 몸에 대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머리와 몸의 비율이 비슷하여 좀비의 형체가 기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90)과 (91)처럼 비교항목이 문장에 모두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교항목은 없이 ‘W 不到哪里去’만으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BCC 검색 결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를 말한다.

60) <https://zhidao.baidu.com/question/1821916131594600268.html> 에서 검색함.

61) <https://baijiahao.baidu.com/s?id=1627401330617636440&wfr=spider&for=pc> 에서 검색함.

(92) 哪用买什么被子! 还好是在广东, 冷也冷不到哪里去。

무슨 이불을 산다는 거야! 그나마 广东이라서 추워 봤자 그렇게 춥지 않을 거야.

(93) 经常运动的人胖不到哪里去的。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살이 찌도 그다지 찌지 않을 것이다.

(92)와 (93)을 살펴보면 ‘W 不到哪里去’ 구문에 형용사 ‘冷’과 ‘胖’이 쓰이고 있다. 이 두 형용사는 성질 형용사이지만 이 구문에 쓰이면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92)에서 ‘冷’은 심리적 기대를 기준으로 간주된다. ‘广东’은 중국 남쪽의 도시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온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广东의 기후’는 화자가 예측하기에는 아무리 추워도 두꺼운 이불을 덮을 정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문에서 ‘广东의 실제 기후’를 비교주체로 ‘화자의 심리예측’을 비교객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비교점은 기온이며, ‘冷(차갑다)’은 기온을 묘사하는 속성에 해당한다. (93)에서 ‘胖’ 역시 심리적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93)에서 비교주체는 ‘经常运动的人’이고 비교객체는 ‘일반인’이다. 화자는 일반적으로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몸매와 식단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뚱뚱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발화로 볼 수 있다.

2.3.2.2 평가적 형용사

‘W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에는 평가적 형용사가 성질 형용사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형용사로 ‘好’와 ‘坏’가 있다. Stojanovic(2015)의 관점에 따르면 평가적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평가적 형용사는 다차원적이며, 차원의 선택은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형용사라도 문맥적 상황에 따라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⁶²⁾ 둘째, 평가적

62) 아래 예문과 해석은 Stojanovic(2015:9)에서 재인용.

형용사는 주로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닌 사회 계층적 표현에 사용된다.

- (94) 你爸爸没出息, 你也好不到哪里去。
네 아버지는 출세하지 못했으니, 너도 그다지 나을 바가 없을 거야.
- (95) 一个男人只要怕老婆, 就坏不到哪里去。⁶³⁾(罗永浩语录)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자는 아무리 나쁘더라도 별로 나쁠 수 없다.
- (96) 你们上几代评语不错, 下几代也差不到哪里去。
조상 세대가 평가가 좋으면 (앞으로) 자손 세대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94~96)를 보면 각각 비교항의 형용사로 ‘好’, ‘坏’, ‘差’ 등 평가적 형용사가 쓰이고 있다. (94)에서는 아버지의 출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장래에 대해 평가하고 있고, (95)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남성의 품성을 추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6)에서는 옛말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듯이 윗세대에 대한 평가가 아랫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절 형용사인 ‘好’, ‘坏’, ‘差’ 등 외에도 ‘W 不到哪里去’ 구문에는 ‘含糊’, ‘高明’, ‘清高’ 등 평가적 형용사도 쓰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Hardy’s acting is intense in every respect.

Hardy의 연기는 모든 면에서 강렬하다.

(2)Hardy’s acting is intense, except for the way he speaks.

Hardy의 연기는 말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강렬하다.

위에 두 예문 모두 형용사 ‘강렬하다(intense)’를 사용하지만, 문맥에 따라 각각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연기의 경우는 동작, 제스처 또는 언어에서 강렬하면 나쁜 것이 될 수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강렬하다는 형용사로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1)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2)는 언어를 제외하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한다.

63) 예문은 百度文库에 검색했음.

https://wenku.baidu.com/view/d3188df1b84cf7ec4afe04a1b0717fd5360cb231.html?_wks_ks_1688019028807&bdQuery=%22比“+”坏不到哪里去“

- (97) 当然, 老子花心, 小的也含糊不到哪里去。
물론, 애비가 바람둥이던 자식도 그다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닐 거야.
- (98) 一个男人向女人开枪开炮⁶⁴, 实在高明不到哪里去。
남자가 여자한테 마구 공격하는 것은 정말 별로다.
- (99) 别总是把‘家丑’的帽子硬扣在我头上, 你自己也清高不到哪里去。
맨날 나한테 ‘가문의 수치’ 같은 낙인을 찍지 마. 너도 그다지 고상하지는 않잖아.

언어는 문화의 매개체로서 그 집단의 사회적 심리를 반영하고 기록한다. (97~99)를 살펴보면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을 통해 중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심리적 특징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각 예문에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97), ‘훌륭한 남자는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98), ‘집안의 허물은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99)라는 중국인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담겨있다.

‘W 不到哪里去’ 구문은 화자가 상대방을 혼계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못마땅한 경우에 많이 쓰여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나 견해를 나타낸다.

- (100) 我是无耻, 但你夺妻也漂亮不到哪里去。
내가 뻔뻔스럽기는 하지만 네가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그렇게 멋진 건 아니야.
- (101) 不过你拒绝听过来人的经验谈, 也聪明不到哪里去。
그런데 너는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길 거절하고 있다니, 너도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 (102) 你回来整天把脸色给我看, 拿老婆当出气筒算什么英雄好汉, 再威风也威风不到哪儿去。
당신이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나한테 눈치주면서 나(아내)를 화풀이용으로 대하는 것이 무슨 영웅인 셈이야? 아무리 위풍당당해도 그렇게 대단

64) 开枪开炮 : 총과 대포를 쏜다는 것으로 무지막지하게 공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폭력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 못해.

(100)은 화자가 자신의 뻔뻔함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친구의 와이프를 빼앗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에는 “朋友妻, 不可欺”이라는 속담이 있다. (101)는 화자가 상대방이 선배이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도 중국에는 “不听老人言, 吃亏在眼前”이라는 속담이 있다. (102)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집에서 눈치를 주면서 자신을 화풀이용으로 대하는 행동을 비판한다. 이는 중국에서 친구 간의 신의와 상호 존중,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국의 문화를 나타내는 문장이기도 하다.

2.4 소결

본 장에서는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주로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대칭성 여부, 비교항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 비교결과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대칭성 부분을 살펴보면, 비교주체 혹은 비교객체의 일부 성분이 주로 생략되는데 이는 ‘시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와 ‘언어전달의 경제성원칙’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의 경우 인간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재시간을 무표지로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또는 미래와의 비교에서 현재는 생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한편, ‘언어전달의 경제성원칙’의 경우,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성분 안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비교주체 또는 비교객체에서 한 번만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뒤 발화문맥을 통해 비교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비교결과항으로 쓰이는 세 구문의 성분들에 대해 고찰해보았는데 세 구문 모두 형용사가 대부분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一些’ 구문의 경우에는 비교결과항에 심리동사, 有+추상명사, 동보구조 등도 쓰일 수 있는데 이는 객관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이는 ‘不了多少’ 구문과 ‘不到哪里去’ 구문에서는 평가적 형용사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전자의 경우 평가적 형용사 외에 도량형용사도 쓰이는 경우가 있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몇몇 성질 형용사가 쓰이기는 했지만 주로 평가적 형용사 ‘好’, ‘坏’, ‘差’ 등 세 형용사의 출현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가지 구문이 비록 모두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속하지만 이들은 객관성이 비교적 강한데서 점차 주관성이 강한 비교를 나타내는 위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一些’ 구문	<	‘不了多少’ 구문	<	‘不到哪里去’ 구문
[객관성 强]		[객관성 渐弱, 주관성 渐强]		[주관성 强]

〈표 2-6〉 세 비교구문의 객관성과 주관성 차이

<표 1>과 관련해 이 세 가지 비교구문이 나타내는 객관의미와 주관의미는 이어지는 3 장의 논의를 통해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의미적 특성

姜南(2016)은 고대중국어부터 무표지의 비교구문은 통상 차등비교와 동등비교 두 가지로 모두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⁶⁵⁾ 본 장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차등비교, 동등비교를 고찰한 후 객관적 비교, 반향비교, 증거성 비교 등을 통해 각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에서는 ‘一些’ 비교구문의 객관적 요소를 고찰하고, 3.2에서는 ‘不了多少’ 비교구문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3.3에서는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1 ‘X比YW一些’ 구문

본 절에서는 ‘X比YW一些’ 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비교하는 데 많이 쓰이는 것이며, 크게 비교주체-비교객체의 객관적 비교, 비교주체-비교객체의 차등비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3.1.1 객관적 비교

언어표현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65) 姜南(2016)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无标记的比较句普遍存在平比和差比歧义两解的复杂形式.” 姜南(2016)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로 太田辰夫(1958, 2003), 贝罗贝(Peyraube, 1989), 魏培泉(2001), 张赫(2005) 등이 있다고 한다.

두 사물이나 사물의 속성을 비교할 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비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사물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一些’ 비교구문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비교를 나타내기보다는 두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이는 ‘不了多少’ 구문과 ‘不到哪里去’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BCC 검색 결과, ‘X 比 YW 一些’ 비교문의 객관성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 a. 비교항 객관성
- b. 비교점 객관성

첫째, 비교항 객관성의 고찰

여기서 ‘비교항’은 비교기준을 참조 대상으로 비교항 간의 속성이 다른 주관성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高铁比动车快一些。
高铁는 动车보다 조금 빠르다.
- (2) 这部电视剧剧情这么烂, 我看比一坨狗屎也好不了多少。
이 드라마의 줄거리가 이렇게 엉망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개똥보다 얼마 낫지 않다.
- (3) 疫情之下机票越来越难买, 在我看来, 回国比上月球的机会多不了多少。
팬데믹 시기에 항공권은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귀국할 기회가 달에 가는 기회보다 많지 않을 거 같아 보인다.
- (4) 律师这一行业, 说真的, 比鲨鱼好不到哪里去。
정말로 변호사란 직업이 상어보다 나을 게 없다.

(1)은 ‘高铁’와 ‘动车’의 속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속도는 두 비교항의 공통된 속성에 속한다. 반면, (2~4)는 비교항이 같은 속성이 아니다. (2)는

화자는 비교기준 ‘狗屎’를 통해 TV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였다. (3)에서 달에 갈 기회가 적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사실로 귀국할 확률이 달에 오를 확률만큼 적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귀국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4)에서 비교객체인 ‘상어’는 일반인의 인식에서 아주 무서운 존재이다. 비교주체인 ‘변호사’가 비교객체인 ‘상어’와 비교되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상어’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변호사’가 아주 무서운 세계에서 생존하고 있다고 묘사한다. 이러한 (2)~(4)와 같은 예문은 주관적인 비교를 나타내기 때문에 ‘一些’ 구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둘째, 비교점 객관성의 고찰

앞서 2.1.1에서 ‘一些’ 비교문의 비교항 대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교대상이 되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비교점은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사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실제 상황일 수도 있으며, 상품 정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교점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속성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언어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생략될 수 있다.

비교 결과항	생략가능 속성	생략 불가능 속성
‘大小’	면적	年纪, 年龄, 尺寸, 声音, 音量, 噪音, 功率, 规模, 比重, 影响, 贡献, 力气, 规模, 幅度
‘好差’	질	情况, 条件, 效果, 方面, 运气, 感觉, 处境, 效果, 分辨率
‘强’	질	能力, 单位, 记性, 经验, 隔音, 做工
‘多少’	수량	人, 时间, 内容, 含量, 性价比, 功能, 油耗
‘快慢’	속도	生产力, 进度, 水平, 动作, 反应, 启动, 起步

<표 3-1> 비교점의 속성 생략 여부

위의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결과항의 기본 속성이 비교점과 일치할 때에는 비교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

만 비교결과항이 나타내는 기본 속성이 아닌 경우 비교점은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⁶⁶⁾

위와 같이 ‘不了多少’ 구문과 ‘不到哪里去’ 구문 형식에 비해 ‘一些’ 비교구문의 경우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나타내고, 두 비교대상이 대부분 유사한 부류의 사물이나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점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1.2 차등비교

중국어에는 중고시대부터 차등비교문(差比句)과 동등비교문(平比句)을 혼동해서 사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구문이 차등비교로도 동등비교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대중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비교구문으로 ‘如’ 구문, ‘似’ 구문, ‘不比’ 구문 등이 있다.

차등비교와 동등비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의 크기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비교대상 간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등비교에 해당하는 반면, 비교대상 간에 양적 차이가 존재하면 차등비교에 해당한다. 차등비교문인지 동등비교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비교대상이 공통 속성에서 양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5) *妈妈比孩子大一些。

66) a. 高铁比动车快一些。

고속철도는 动车보다 좀 더 빠르다.

b. 这个月的工作进度比上个月的快一些。

이번 달의 업무 진도는 지난 달보다 조금 더 빨랐다.

a와 b는 똑같은 형용사 ‘快’를 사용하지만 a의 비교점은 速度(속도)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b의 비교점인 进度(진도)를 언급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 (6) 她长了一张娃娃脸, 使她看上去比她要照顾的孩子大不了多少。

그녀는 동안이어서 그녀가 직접 돌보아야 할 아이보다도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인다.

위에서 보듯이 ‘一些’ 비교구문의 사용은 화자가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양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5)의 경우 비교주체로 엄마가 등장하고 비교객체로 아이가 출현하였으며 비교결과항을 통해 나이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마는 아이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고, 나이 차이는 최소 15년(여성의 출산가능 나이를 감안했을 경우)인데, 이는 미세차이 ‘一些’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비문이다. 하지만 (5)와 동일하게 엄마와 아이의 나이를 비교하는 (6)은 문장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에는 ‘不了多少’ 구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선행절에서 ‘娃娃脸’이 후행하는 절의 정당성을 확보한데다 이 문장은 ‘不了多少’를 써서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주관성을 띠기 때문이다. 즉, 문장의 내용은 ‘她’와 ‘孩子’의 나이가 실제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她’가 동안이어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一些’ 비교구문이 동등비교를 표현하지 않고 차등비교를 표현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비교항의 허지(虛指) 여부와 관련이 있다.

- (7) 干啥都是职业, 谁也比谁高贵不了多少; 无论干啥, 只要能活出一个真正的人, 就不枉来到世上走一遭。

무엇을 하든 다 직업이고, 누구도 누구보다 별로 고귀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든 만약에 진정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산 것이다.

- (8) *谁也比谁高贵一些。

의문대명사 ‘谁’의 용법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의문을 나타내는 기본 용법 외에도 허지(虛指)나 임의지칭(任指) 등의 非의문의 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⁶⁷⁾ (7)의 ‘谁’는 비(非)의문적 용법으로 문맥을 통해 화자는 ‘活出真正的人’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업의 고귀함과 비천함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비교객체로 허지대명사(虚指代词) ‘谁’가 쓰였을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구체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없다. 즉, (7)과 같이 비교주체와 비교객체로 허지대명사 ‘谁’가 쓰였을 경우, ‘동등’의 의미가 훨씬 분명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8)에서와 같이 차등비교를 나타내는 ‘一些’ 비교구문은 이와 같은 문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3.2 ‘X比YW不了多少’ 구문

본 절에서는 ‘X比YW不了多少’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문은 객관적 비교, 차등비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정부사 ‘不’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등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비교기준의 속성으로 인해 반향비교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보다는 주관적 사실에 대한 동등비교와 반향비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래에서는 객관적 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의 순서로 논의하도록 한다.

3.2.1 객관적 비교

객관적 비교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관계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일사물 간의 비교’(同物自比)⁶⁸⁾이고, 다른 하나는 ‘동류내의 비교’(同类他比)⁶⁹⁾이다. 전자는 동일한 대상을 과거, 현재, 미

67) 다음의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 | | |
|--------------------|----------------|
| a. 你昨天见谁了?(의문) | 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
| b. 这个人谁也不认识。(임의지칭) |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

68) 同物自比는 동일한 사물 간에 시점에 따른 차이에 대한 비교를 가리킨다.

래의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비교주체과 비교객체가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비교의 기준점은 해당 사물의 과거 상황이며, 문장에는 ‘比+과거시간’ 등이 추가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9) 这些城市的非农业人口长期徘徊不前, 比刚建国时也多不了多少。
이러한 도시의 비농업 인구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으며 건국되었을 때 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 (10) 虽然是三家人同住在一个院子里, 也没有热闹的气象, 日子过得很清闲, 甚至在除夕, 也比平时热闹不了多少。
비록 세 가족이 같은 집에 살았지만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없이 여유로운 날들이 흘러갔다. 심지어 그믐날에도 평소보다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았다.

(9)는 현재의 인가와 건국 당시의 인구를 비교한 것으로 비교의 기준점은 건국 당시 인구수이다. (10)은 ‘설날과 평상시의 떠들썩한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9), (10)은 모두 동일한 사물 간의 비교로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다음은 동류 내의 비교(同类他比)에 대해 살펴보겠다. 동류 내의 비교란 비교주체 X와 비교객체 Y의 현재 시점에서의 비교를 가리킨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부류 내의 사물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1) 杰克的个子在美国孩子中算矮的, 比他妹妹高不了多少, 打篮球是没有“前途”的。
Jack의 키는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작은 편이며, 그의 여동생보다도 별로 크지 않아서 농구를 하면 장래가 없다.
- (12) 他租了一辆面包车, 一算帐比飞机票贵不了多少, 且方便又气派, 途中还可边走边玩, 十分称心。
그는 차를 한 대 렌트했는데, 계산해보니 비행기표보다도 별로 비싸지 않

69) 同类他比는 다른 사물 간의 동일한 시점에 따른 비교이다.

았다. 게다가 (운전하는 것이) 편하고 호사스럽다고 생각했다. 운전하는 도
중에서 차를 세우고 마음대로 놀 수도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다.

(11)의 비교대상은 ‘杰克的个子’와 ‘妹妹的个子’이다. (12)는 차량의 임
대비용과 비행기표 가격을 비교하여 차량 임대의 편리성을 강조한다. (11)
의 키 비교과 (12)의 교통비용 비교 모두 객관적인 실제 상황에 기초하였
다. 따라서 두 사물 간에 실제 차이를 나타내며, 위의 두 예문 모두 객관적
으로 정량할 수 있는 비교구문이다.

3.2.2 동등비교⁷⁰⁾

동등비교는 X와 Y가 모두 형용사 A의 특성을 갖지 않으며, 둘 사이의
차이도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아니다. X와 Y는 유사하거나 동
일하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3) 雪下得太少了, 比浓霜厚不了多少。

눈이 너무 적게 내려서, 짙은 서리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다.

(13)에서 ‘雪’와 ‘霜’은 모두 두껍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
낸다. 위의 문맥에서 두 비교항을 한 쌍으로 묶은 이유는 참조물 ‘浓霜’을
도입함으로써 눈이 적게 내렸다는 ‘雪下得少’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다. 즉, 적게 내린 눈의 두께를 짙은 서리와 비교해 눈의 양이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70) 중국어 비교구문에서 동등비교란 완전한 동등비교(同等比较)의 의미도 있고, 근
사비교(近似比较)의 의미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구문은 ‘X和Y一样A’ 구문
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구문은 ‘X有Y那么A’ 구문이다. 동사 ‘有’를 통해서 구
성하는 비교구문은 비교대상 간의 정도가 비슷함을 말한다(김은희(2002)참조). 본
고에서 논의하는 ‘不了多少’ 구문은 ‘X有Y那么a’ 구문과 의미 기능이 비슷하
다.

계속해서 다음 대화문에 등장하는 동등비교를 살펴보자.

(14) 余志芳：姐姐们，都该让给我吧！我不是最小、最苦吗？看看我的手，什么好字眼儿也安不上；大雁已经回来好多天了，我的冻疮可还没好！

언니들, 모두 나에게 양보해 주세요! 내가 가장 어리고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보세요. 어떤 좋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기러기가 돌아온 지 이미 며칠이나 되었는데도 동상이 낫지 않았어요.

宋玉娥：我比你也强不了多少！我不也老干苦活儿吗？

나도 너보다 딱히 좋지 않아. 나도 맨날 힘든 일 하고 있잖아?

余志芳：你在家总比我强点，老爷爷待你多么好啊！

언니는 항상 집에 있으니 어쨌든 나보다는 조금 낫죠. 할아버지께서 언니를 얼마나 잘 대해주세요! (老舍戏剧)

(14)에서 余志芳은 자신의 소망과 불만을 표출했는데, 그는 자신이 가장 어리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며 손에 있는 동상이 아직 낫지 않아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宋玉娥’는 자신도 자주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상황도 좋지 않다고 공감한다. 따라서 이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의 유사한 점과 공통된 어려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동등비교에 해당한다.

3.2.3 반향비교

반향비교(反向比较)란 화자가 ‘W 不了多少’ 구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때, 담화 내의 객관적 사실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의미와 상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용사 A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사용된다. ‘X 比 YA’로 진술되는 사실은 두 비교항에 대한 객관적 판단인 반면, ‘W 不了多少’는 청자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는 이전의 판단이 불충분함을 청자에게 알려준다.71)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5) a: 我看你比过去可是浑蛋多了……
 내가 보기에 너는 과거보다 훨씬 머저리 같아.
 b: 你比我也强不了多少, 一样也是浑蛋。
 너도 나보다 딱히 낫지 않아. 마찬가지로 머저리아.
- (16) 老猫道：“穿着这个, 我看比蜗牛快不了多少”。
 늙은 고양이 말했다. “내 생각에 이것을 착용하면 달팽이보다도 별로 빠르지 않을 것이다.”
- (17) 胡耳有什么能耐, 比猪狗强不了多少。
 胡耳은 별 능력이 없어서 개돼지보다도 딱히 대단할 것이 없다.
- (18) 气氛超尴尬的, 比鸿门宴也好不了多少。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다. 鸿门宴보다도 그다지 나을 게 없었다.
- (19) 留着柳朝云在身边, 比起豢养一只雌虎安全不了多少。
 柳朝云을 옆에 두는 것은 암호랑이를 키우는 것보다 별반 안전하지 않다.

(15~19)를 보면 모두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强’, ‘快’, ‘好’, ‘安全’ 등 형용사가 쓰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不了’가 결합하면 부정적 의미를 표현한다. (15)에서 ‘你’와 ‘我’는 모두 ‘混蛋’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면 모두 형용사 ‘坏’로 표현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미의 형용사 ‘强’으로 표현했다. (17)에서 ‘胡而’은 사람의 이름이다. ‘人比猪狗强’은 일반인의 기본 상식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반대로 ‘胡而’과 ‘猪狗’의 능력의 차이가 적다고 판단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된다. (16)에서 비교객체는 ‘蜗牛’, (18)의 비교객체는 ‘鸿门宴’, (19)의 비교객체

71) 张雪梅(2016:55)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문은 ‘悖离义(역설 의미)’를 사용하여 상대의 일부 판단을 부정한다. 또한, 卢博敏(2020:21)은 ‘A 不了多少’ 구문의 의미 특성을 설명할 때 유사한 ‘情感反向性(감정반향성)’을 언급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W 不了多少’ 구문의 비교객체 속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는 ‘豢养一只雌虎’이다. 달팽이(‘蜗牛’)는 가장 느린 동물이고, 홍문의 연(鸿门宴)은 가장 긴장된 분위기이며, 호랑이를 키우는 것(豢养一只雌虎)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화자는 비교기준점이 가장 낮은 비교객체와 비교결과항인 ‘W 不了多少’를 통해 비교주체가 비교객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W 不了多少’ 구문은 왜 반향비교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는 Chierchia(1998:339-405)⁷²⁾의 种类(kinds)와 属性(properties)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Chierchia(1998)에서는 种类(kinds)와 属性(properties)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류와 (복수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정보를 포장하는 두 가지 모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우리 세계의 개의 종류는 개(dog)의 총체, 모든 개를 구성하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실체, 또는 주변의 모든 개의 융합과 동일시될 수 있다. 우리의 프레임워크에서 이 엔티티(entity)는 개들의 집합에 의해 모델링된다.’⁷³⁾

위의 설명에 따르면 种类는 모든 물체의 해당 속성이 정의하는 자연부류에 대응된다. 예를 들면, 일반명사 ‘dog’는 dog의 속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dog라는 부류에 대응될 수도 있다.

위의 (16)에서 ‘달팽이(蜗牛)’, (17)에 쓰인 ‘돼지와 개(猪狗)’, (19)에 출현하는 ‘호랑이(老虎)’ 등은 총칭의 개념으로 그 개념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가령 ‘달팽이’의 느린 정도, ‘돼지와 개’의 험오도, ‘호랑

72) Chierchia, G.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4): 339~405.

73) “It should be clear that kinds and (plural) properties can in a way be seen as two modes of packaging the same information. ... Thus, the dog-kind in our world can be identified with the totality of dogs, the scattered entity that comprises all dogs, or the fusion of all dogs around. In our framework this entity is modeled by the set of dogs.”

이'의 위협성 등이 그러하다. 한 명사가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W 不了多少' 구문의 과장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과 서로 호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팽이'가 동작이 느린 대표적인 동물로, '호랑이'가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로 간주되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인 인지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보편적인 인식을 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개'는 서양 문화에서는 가족과 같은 반려견의 상징이지만, 중국에서 '猪狗不如'는 불효자식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3.3 'W不到哪里去' 구문

본 절에서는 'W 不到哪里去' 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문은 수량과 관련된 객관적 비교보다는 대상의 비슷함을 강조하며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 구문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더 설득력이 있게 보여주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아래에는 주관적 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 증거성 비교의 순서로 논의하도록 한다.

3.3.1 주관적 비교

吴为善·夏芳芳(2011)은 아래의 (20)을 예로 들어 'W 不到哪里去' 비교 구문은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이 구문은 비교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정도가 한정된 폭의 평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 관점에 동의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0) 在他看来, 中国邮政事业快不到哪里去, 但他低估了。中午去门卫, 见到他的信笔直地躺在班级的信箱里⁷⁴。

그가 보기에 중국 우편 배달 업무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우편 배달 업무를) 과소평가하였다. 점심시간에 경비실에 가보니 편지는 자신의 반(班)의 우편함에 뺏뺏하게 누워 있었다.

- (21) 黎元洪对於这件案子的真相, 也曾发电声明, 并且反对组织特别法庭, 又因曹锟和各督, 尽皆攻击罗氏, 料道罗氏强不到哪里去, 便又送到狱里去。黎元洪은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특별법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보로 보냈고, 또한 曹锟와 各督도 모두 罗氏를 공격하면서 罗氏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罗氏를 옥으로 보냈다.

吴为善·夏芳芳(2011)의 견해에 따르면, (20)에서 ‘中国邮政事业’이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 추측일 뿐이다. 이는 ‘低估’를 통해 실제 사실은 화자가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관화 담화표지는 ‘在他看来’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21)의 주관성 평가는 예상(料道)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黎元洪, 曹锟, 各督 모두 罗氏의 권력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罗氏를 감옥에 보낸다.

아래서는 ‘不了多少’ 구문과의 비교를 위해 형용사 ‘高’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형용사 ‘高’는 양적 의미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가치 의미와 수준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2) 周校长, 如果你有钱, 有机会送孩子去美国“常春藤”盟校学习, 你还会让孩子留在中国接受高等教育吗? 他说出这话也说明了水平高不到哪里去。
周 총장, 당신에게 돈이 있고 아이를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공부시킬 기회가 있다고 해도 아이에게 중국에 남아 대학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본인 수준도 딱히 높을 것이 없소.

- (23) a. 手机的价格比几年前高不了多少。
휴대전화의 가격은 몇 년 전에 비해 그렇게 비싸지 않다.
b.??手机的价格比几年前高不到哪里去。
c. 在我看来, 手机的价格比几年前高不到哪里去。
내 생각에는 휴대전화의 가격은 몇 년 전에 비해 별반 비싸지 않다.

74) 吴为善·夏芳芳(2011)의 예문을 재인용.

- (24) a. 哥哥的身高比弟弟高不了多少。
형의 키는 동생보다 그다지 크지 않다.
- b. ??哥哥的身高比弟弟高不到哪里去。
- c. 依我看, 哥哥的身高比弟弟高不到哪里去。
내가 봤을 때 형의 키는 동생보다 별반 크지 않다.

‘高’는 전형적인 도량형용사이지만 (22)에서 ‘高’는 정도량의 표현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공간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22)는 한 기자가 ‘周校长’을 취재하는 내용인데 ‘周校长’이 중국 학교의 교육자로서 중국식 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자식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周校长에게 중국식 대학교육과 미국식 대학교육에 대해 질문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화자가 ‘周校长’에게 이렇게 질문한 기자(他)에 대해 ‘高不到哪里去’를 통해 기자 또한 수준이 낮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계속해서 (23)을 보면 (23a)는 ‘不了多少’ 구문으로 휴대폰 가격을 놓고 ‘몇 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3b)의 경우와 같이 ‘不了多少’를 ‘不到哪里去’로 대체할 경우에는 어감상 (23a)처럼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는 ‘不到哪里去’ 구문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관점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3c)와 같이 문장의 앞에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在我看来’를 삽입한다면 이 문장은 어감상 아주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24b~c)도 (23b~c)와 마찬가지로 ‘不到哪里去’ 구문은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문맥이나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는 점이다.

3.3.2 동등비교

‘W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의 의미를 보면 동등비교와 차등비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다만 문맥에 따라 동등비교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상반된 두 단어⁷⁵⁾를 통해서 동등비교 의미를 표출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5) 管它有收无收, 赚也赚不到几个钱, 赔也赔不到哪里去。
 (이 사업은) 수익에 상관없이 많은 돈을 벌지도 많은 돈을 잃지도 않는다.
- (26) 刘媪不便将做梦的事情知两子, 只得哄开他们, 方将梦中之事悄悄地告知太公。讲完之后, 还问太公, 这梦主何吉凶? 太公听了道: “幻梦无凭, 何必根究! 我们务农人家, 只要上不欠皇粮⁷⁶⁾, 下不缺私债, 吉也吉不到哪里去, 凶也凶不到哪里去。今天的这个怪梦, 无非是因你疲倦而起。这几天你可在家休息, 田里的生活, 让我一个人去做便了。”⁷⁷⁾
 刘媪은 꿈을 꾸는 일을 두 아들에게 알리기 불편해 아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 태공에게 조용히 알렸다. 말을 마친 뒤 태공에게 이 몽주가 어찌 길흉하겠느냐고 물었다. 태공은 듣고서 말했다. “꿈은 근거가 없으니 따질 필요도 없네. 우리는 농사를 짓는 집안이다. 위로는 황량(皇粮)을 빚지지 않고 아래로는 사채를 지지 않으면 길해도 딱히 길하지 않고, 흉해도 딱히 흉하지 않다. 오늘 이런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은 그저 네가 피곤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며칠간 집에서 폭 쉬어라, 밭에서의 일은 나 혼자 하면 된다.”

(25)에서 ‘赚’과 ‘赔’를 비교하여 어떤 일을 하든 수익이나 손해가 비슷

75) 田田(2008)도 아래와 같이 ‘坏/好’, ‘快/慢’, ‘冷/热’, ‘好/差’ 등 의미상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일음절 형용사를 통해 비슷한 예문을 서술했다. 田田(2008)은 아래 예문(1~4) 처럼 ‘哪儿’, ‘哪里’, ‘哪’가 모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 각지 방음에서 ‘哪里’를 대신한 ‘啥地方’ 혹은 ‘什么地方’라는 표현도 있다고 한다.

1. 美国经济坏也坏不到哪儿去, 好也好不到哪儿去。
2. 我相信最后的结果必然是, 与去年相比, 经济增常快也快到哪去, 慢也慢不到哪儿去。
3. 有一点觉得不好的就是洗澡水总是温度不均匀, 冷一下热一下, 不过冷也冷不到哪儿去, 热也热不到哪儿去, 还不至于洗不了澡。
4. 不会好到哪儿去, 也差不到哪里。

76) 황량이란 옛날 조정에서 관리나 조정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식량이나 녹봉이다.

77) 예문 CCL 코퍼스에서 검색됨.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管它有收无收’는 수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돈을) 벌든 말든 똑같고, 벌어도 돈이 거의 몇 푼 되지 않아서, 잃어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화자의 투자나 사업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관심을 표현한다. 계속해서 (26)을 보면 ‘吉’와 ‘凶’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고 있다. ‘只要上不欠皇粮, 下不缺私债’에서 ‘위로는 황량(皇粮)을 빚지지 않고, 아래로는 사채를 지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통해 기존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한다.

- (27) 技术职称、工作年限定级别，长工资，依然是分配的大锅饭，谁也比谁好不到哪里去。美院的老师都是这个工资，不会因为“海归”而有所特殊。
기술 직함, 근무 연한에 따라 직급과 월급을 정하는 제도는 여전히 분배의 큰 원칙(大锅饭)이며, 누구도 누구보다 나을 것이 없다. 미술대학(美院)의 선생님들은 모두 이 제도에 따른 월급이니, ‘유학과(海归)’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27)에서는 미술대학 선생님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한다. 대학교는 교수의 ‘기술 직함(技术职称)’과 ‘근무 연한(工作年限)’ 등을 고려해 ‘직급(级别)’과 ‘월급(工资)’이 결정된다. 이 예문에서 ‘大锅饭’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이다. 또한 해외 유학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개인적인 배경이나 경력 때문에 특별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호봉과 근속연한이 같으면 임금은 거의 같고, 유학과와 비(非)교유학과 임금 수준은 거의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문은 차등비교가 아니라 동등비교에 속한다.

(28) 人都是孤独又寂寞的, 谁也比谁好不到哪里去。78)

사람들은 모두 외롭고 고독하니까 누구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28)은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을 암시한다. 즉, 사람들은 외모, 학벌, 재능, 금전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누구든 다 있다는 의미이다. ‘谁也比谁好不到哪里去’ 부분에서 ‘谁’는 ‘모두’를 의미하며, ‘好不到哪里去’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전체 문장을 보면 사람 개개인을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동등비교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동등비교 의미는 대화문 속에서 더 확실하게 엿볼 수 있다.

(29) a: 我一个人住, 到了晚上, 真的很孤单。79)

나 혼자서 사니까 저녁이 되면 정말 외로워.

b: 我在外国住着, 平时有工作还好, 一到周末, 也是很寂寞。

나는 외국에 살고 있는데 주중에는 일이 있으니 괜찮지만 주말이 되면 나도 외로워.

a: 看来大家都一样, 人都是孤独的, 谁也比谁好不到哪里去。

보기에 사람들은 다 똑같아. 사람은 모두 외로우니까. 누구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29)에서 a는 혼자 생활하며 저녁이 되면 외롭다고 느낀다. b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도 외국에서의 쓸쓸함, 특히 주말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이 대화를 보면 a와 b의 외로운 정도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3.3.3 반향비교

‘W 不到哪里去’ 구문은 일종의 반향비교를 나타내기도 한다. 앞서 살펴

78) 예문의 출처: <https://www.bilibili.com/read/cv11930304d>

79) 예문은 필자가 만들.

본 ‘不了多少’ 구문에서는 비교객체의 위치에 그 사물의 충칭을 써서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를 들면 ‘달팽이’, ‘개돼지’ 등 동물로 그 동물이 지닌 속성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W 不到哪里去’ 구문의 경우에는 타인의 언행을 비판하거나 풍자할 때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30) 那个男的火了, “你不就比我多个好媳妇, 可少那么一截腿, 也强不到哪里去。”

그 남자 화났어. “네가 나보다 좋은 아내가 있어도 다리 하나가 불편하니까 (나보다) 그렇게 좋은 처지가 아니야.”

(31) 您得尽可能快地完成。“我快不到哪里去, 我是个残废人, 正因为这个原因我得有个帮手。我的腿是瘸的。”

당신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해. “나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 나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 다리를 절뚝거리거든.”

(32) 我是个渣男, 你也好不到哪里去, 凭什么训我?

나는 개똥 같은 놈이지만, 너도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래라 저래라야?

(33) 就算不论输赢, 会拿身体当赌注, 怎么看都高级不到哪里去!

승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몸을 걸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도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30~33)을 보면 ‘W 不到哪里去’에서 W의 위치에 모두 긍정적 의미 형용사인 ‘强’, ‘快’, ‘好’, ‘高级’ 등이 쓰였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不到哪里去’가 결합하면 부정적 의미를 표현한다. 우선 (30)을 보면 ‘你不就比我多个好媳妇’는 화자가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 자신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어지는 ‘可少那么一截腿’라는 문장은 상대방의 뚜렷한 결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화자의 이러한 표현 방식은 비교결과항인 ‘强(강하다)’을 부정하며 상대방에게 좋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의 결점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보다 크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31)의 경우 두 비교 항목은 ‘내가 임무를 완수하는 속도(我完成任务的速度)’와 ‘상대방의 내적 기대’이며, ‘快不到哪里去’는 반향비교의 표현이다. 화자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의미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부정부사인 ‘不’를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예문에서 “我快不到哪里去。(나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여건 때문에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빨리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문 후반부의 “我的腿是瘸的。(내 다리는 절뚝거린다)”는 그가 왜 빨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즉,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무력한 상태를 나타낸다.

계속해서 (32)를 살펴보면, ‘好不到哪儿去’는 사실상 ‘不好’의 의미로 사용되어 반향비교적인 맥락을 형성한다. 이 문장에서 ‘渣男(쓰레기 남자)’이라는 단어는 보통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남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그 자체가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너는 나를 비난하려 하지만 당신 자신도 나보다 더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책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32)에서 화자는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인품도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뒤에 반문을 부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질책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33)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로 나누어지는데 선행절에서는 ‘승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몸을 도박에 건다는 것(就算不论输赢, 会拿身体当赌注)’이고, 후행절은 ‘어떻게 봐도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怎么看都高级不到哪里)’는 것이다. 전자는 자신의 몸을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는 성공을 위한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후자는 이러한 행위를 부정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불만과 질책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예문 역시 반향비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몸을 걸고 하는 도박은 설령 이기더라도 결과가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질책이나 불만의 정

서가 담겨있다.

위의 예문과 같이 ‘W 不到哪里去’는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한 불만의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구문은 화용적 측면에서 질책이나 불만, 완곡 등의 기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4 장에서 화용적 관점에서 ‘W 不到哪里去’의 비교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3.4 증거성 비교⁸⁰⁾

吴为善·夏芳芳(2011)에 따르면, ‘W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은 일반적으로 종속복문(偏正复句⁸¹⁾)의 후속절에 사용된다. 복문의 선행절은 대부분 화자 평론의 근거로 많이 사용되어, 화자가 미세한 비교를 판정하는 근거나 이유를 부각시키는 기능이 있다.

화자가 비교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판단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앞 문장에서 결론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80) 이 개념은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본고는 吴为善·夏芳芳(2011)의 논문에서 “评述性的理据”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만든 용어이다. 이는 언어학의 증거성(evidentiality)과 관련이 없다. 언어학에서 증거성(evidentiality)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의미범주이다. 즉, 화자가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정보에 의한 것인지 등 정보를 밝히는 것이다. 증거성 개념을 처음 언급한 학자는 Franz Boas 이다. 그는 1911 년 아메리카 인디언의 콰키우틀(American Indian’s Kwakiut)에서 정보의 출처, 증거의 언어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문법적 형태를 처음 발견했다. 그 후 Chafe & Nichols(1986)는 증거성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며 증거성은 정보 출처뿐만 아니라 화자의 정보에 대한 태도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 후 Alikhenvald(2004:241~270)는 다양한 언어에서 증거성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500 개 이상의 언어를 연구하고 증거성이 문법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질 유형, 질문 유형, 명령 유형 및 다른 질 유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81) 全基廷(2018:82)에 따르면 偏正复句를 수식복문이나 종속복문으로 번역한다고 한다. 본고는 종속복문으로 택한다.

복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다음은 중국어에서 증거성 의미가 ‘W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4) 师父笨, 徒弟自然也聪明不到哪里去。
스승이 바보면 제자도 당연히 그리 똑똑하지 못할 것이다.
- (35) 经常运动的人胖不到哪里去的。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살이 찌도 그다지 찌지 않을 것이다.
- (36) 她经常微笑, 这样的人生活差不到哪里去。
그녀는 종종 미소를 짓는데 이런 사람은 생활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 (37) 现在房子价格这么高, 一二线的房子再也涨不到哪里去了。
지금 집값이 이렇게 높는데 1,2선(一二线) 도시의 집값이 올라 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34)에서는 선행절에서 ‘师傅笨’을 언급함으로써 후행절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나타낸다. (35)에서는 결과 ‘不胖’의 이유는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문장맥락을 통해 제시된다. 계속해서 (36)을 살펴보면 선행절에서 ‘她经常微笑’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후행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잘 웃는 사람들은 (평소 긍정적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모두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37)는 객관적 현실인 ‘现在房子的价格高’를 근거로 앞으로 집값이 오를 여지가 크지 않다고 추정한다. ‘现在房子的价格高’라는 사실은 미래 집값의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W 不到哪里去’ 구문은 앞의 문장맥락에 대한 화자(필자)의 긍정이나 공감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38) 是的, 有一个好的生活态度, 生活总不会差到哪里去。
맞아요. 좋은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삶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39) 当然, 爱时尚的女人, 能丑到哪里去呢?

당연하지, 패션을 좋아하는 여자가 못생겨 봤자 얼마나 못 생기겠어?

(38)의 ‘是的’와 (39)의 ‘当然’은 선행문에 대한 화자(필자)의 동의나 공감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是的’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흔히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当然’ 역시 앞선 문장문맥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신도 동일한 견해를 강조한다. (40)에서도 ‘当然’을 사용해서 ‘爱时尚的人’의 예쁜 외모를 강조한다. 이때 화자는 일반인보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모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못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3.4 소결

본 장에서는 ‘X 比 YW 一些’ 구문, ‘X 比 YW 不了多少’ 구문, ‘W 不到哪里去’ 구문의 세 가지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대한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세 가지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객관적 비교, 차등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 증거성 비교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가령 ‘一些’ 구문과 ‘不了多少’ 구문에서 두 비교항목인 비교주체와 비교객체가 동질성을 가지면 객관적 비교와 차등비교에 해당된다. 한편, ‘不了多少’ 구문과 ‘不到哪里去’ 구문은 부정부사 ‘不’로 인해 동등비교와 반향비교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不到哪里去’ 구문의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행구 또는 선행절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 증거성 비교로 보고자 하였다.

우선 ‘X 比 YW 一些’ 구문의 의미적 특징은 주로 객관적 비교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비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비교항의 속성이 비슷한 경우의 비교이다. 예를

들어, ‘高铁’와 ‘动车’는 같은 동질성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W 一些’ 구문으로 비교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는 비교점의 객관성이다. 비교대상이 되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비교점은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사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실제 상황일 수도 있으며, 상품 정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교항에 쓰인 형용사를 통해 비교대상의 비교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경우 언어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나이’를 비교하는 예문인 ‘我比他还大一些.’의 경우에는 비록 비교점인 ‘年龄’이 문장에 출현하지는 않지만 ‘大’를 통해 이 두 비교항목의 비교점은 ‘나이’라는 것을 청자는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X 比 YW 不了多少’ 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비교, 차등비교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不’로 인해 주로 동등비교, 반향비교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 ‘동일사물 간의 비교’(同物自比)와 ‘동류내의 비교’(同类他比)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동일한 대상을 과거, 현재, 미래 등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인 ‘동류내의 비교’란 같은 시점에서 비슷한 사물 간의 비교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둘째, 주관적 비교의 하위분류인 동등비교를 나타내는 경우 두 비교항목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적게 내린 雪’와 ‘霜’을 두 비교항목으로 정하고 그 두께를 비교점으로 하며 비교결과항에는 두께가 비슷함을 의미하는 ‘厚不了多少’로 나타내고 있다. 셋째, 주관적 비교의 또 다른 하위분류인 반향비교를 나타내는 경우 비교객체의 위치에 항상 가장 낮은 수준의 대상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동작이 가장 느린 동물인 ‘달팽이(蜗牛)’, 사람들에게 하대받는 동물인 ‘돼지와 개(猪狗)’, 사람을 크게 위협이 되는 동물인 ‘호랑이(老虎)’ 등을 비교객체로 사용함으로써 비교주체가 비교객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화자는 비교기준점이 가장 낮은 비교객체와 비교결과항인 ‘W 不了多少’를 통해 비교주체가 비교객체와 거의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경우에 흔히 쓰인다.

마지막으로 ‘W 不到哪里去’ 구문의 의미적 특성은 크게 주관적 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 증거성 비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첫째, 동등비교를 보면 한 문장 안에 ‘赚也赚不到几个钱, 赔也赔不到哪里去’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두 어휘 ‘赚’와 ‘赔’를 대칭시킴으로써 동등의 의미를 구현하는가 하거나 ‘谁也比谁好不到哪里去’ 등과 같이 두 비교항목의 위치에 모두 ‘谁’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든지 다 비슷하다’라는 동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반향비교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한 불만의 정서를 나타낼 때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부정적인 관점이 부각시킬 수 있다. 셋째, 증거성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 화자는 일반적으로 이 문장의 선행구 또는 선행절에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근거를 언급한다. 가령 “师父笨, 徒弟自然也聪明不到哪里去。”와 같이 선행절에 ‘师傅笨’을 언급함으로써 후행절에 도출하는 본인의 결론에 대한 증거를 먼저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4장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화용적 특성

본 장에서는 화용적 측면에서 미세차이 비교구문을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양태부사, 양태동사 측면에서 ‘X比YW一些’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논의하고, 다음으로 과장식 비교와 반기대비교의 관점에서 ‘X比YW不了多少’ 구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담화 환경에서 ‘W不到哪里去’비교구문을 사용할 때 화자의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Levinson(1983)⁸²⁾은 화용의 개념은 기본 매개 변수만을 포함하며 사회 교류 원칙과 문화적 차이를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언어학의 관점에서 문화 요인은 필수적이다. 문화에 따라 비교에 대한 견해와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화는 비교구문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맥락에서 과장식 비교를 사용하는 것은 과장으로 여겨지더라도 사회 교류 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는 이러한 비교구문이 강한 감정적 색채를 표현하고 표현의 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언어학적 가치를 연구하고자 할 때 사회 교류 원칙과 문화적 차이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양태부사, 양태동사, 양태접속사 등 개념을 통해 세 가지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교는 감정 및 판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자의 판단에 대한 인식이 나타내는 ‘양태’의 개념을 논의할 것이다. Lyons(1977:452)는 양태(mod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태도에 대한 명제’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⁸³⁾ 한국 국내 연구에서 박재연(2006:53)

82) 陈新仁(2017:15)에 재인용.

83) 이후인(2015:8)에서 재인용.

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언급하였다.⁸⁴⁾ 양태와 관련해서 학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태는 ‘인식 양태(epistemic)’, ‘당위 양태(deontic)’, ‘동적 양태(dynamic)’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Verstraete(2001:1525)는 인식 양태는 주관성과 관련이 있고, 동적 양태는 객관성과 관련이 있으며, 당위 양태는 주관성과 객관성 두 가지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⁸⁵⁾

4.1 ‘X比YW一些’ 구문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一些’ 비교구문은 주로 객관 사물 사이의 속성에 관한 비교를 표현한다. 이런 객관성은 주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비교할 수도 있고, 동질성을 가진 사물 간에 불변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자의 의지나 의도와 크게 관련이 없이 단지 사실을 진술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中国研究与开发经费占GDP的比重为0.68%，比中等国家0.58%的比重高一些，但是与上中等收入国家1.17%的比重相比还是稍低。

중국의 R&D 예산 비중은 GDP의 0.68%를 차지한다. 이는 중등국가의 0.58%보다 조금 높지만, 상중등위 국가의 1.17%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84) 이후인(2015:8)에서 재인용.

85) Verstraete(2001:1525)는 아래와 같이 도표를 통해서 주관성 양태와 객관성 양태를 분류한다.

The subjective-objective distinction for epistemic, deontic, and dynamic modality

Modality type	Subjective	Objective
Epistemic	+	-
Deontic	+	+
Dynamic	-	+

이처럼 객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一些’ 구문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로 양태부사, 양태동사 등과 공기관계를 이룬다. 아래에서는 ‘一些’ 구문에 쓰이는 양태부사와 양태동사를 통해 ‘一些’ 구문의 주관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1.1 양태부사의 사용

본 절에서는 ‘一些’ 비교구문의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이 구문에서 자주 출현하는 양태부사의 출현빈도와 분포를 살펴보고, 양태부사의 화용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코퍼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一些’ 비교구문에서 출현하는 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就, 至少, 才, 或许, 可能, 确实, 也许, 总算, 果然, 自然, 大概, 却, 永远, 似乎, 好像, 绝对, 的确, 还, 多半, 总, 反正, 往往, 总是, 常常, 通常…

중국어에서 부사의 수량은 명사, 동사, 형용사에 비해 적지만 533 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⁸⁶⁾ 중국어에서 부사의 분류는 학자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중국어의 부사 구분이 쉽지 않은 이유는 3 가지가 있다고 한다.⁸⁷⁾ 의미 또는 통사의 기준에 따라 《馬氏文通》에서는 부사를 6 종류로, 王力(1943)은 8 종류로, 朱德熙(1982)는 4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문법학자마다 분류의 수도 다르고, 심지어 동일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류로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학자마다 부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분류에서 정도부사(程度副词), 범위부사(范围副词), 시간

86) <https://www.google.co.kr/books/edition/汉语副词词典/ai3NngEACAAJ?hl=zh-CN> 에서 참고.

87) 张谊生(2000:4)은 중국어 부사의 분류가 복잡한 이유로는 중국어 부사 자체의 특성, 각 문법학자들의 분류 기준의 차이, 그리고 고대 언어에서의 부사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등 3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사(时间副词), 부정부사(否定副词), 어기부사(语气副词)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어기 부사의 용어는 최소 3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⁸⁸⁾ 본 절에서는 화용적 측면에서 ‘一些’ 비교구문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张谊生(2000)의 부사 분류 방법을 채택하였다.

张谊生(2000:18)의 정의에 따르면, 평가성 부사(评注性副词)는 주로 화자가 어떤 명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게 출현해서 문장 중간이나 문장의 맨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确实’는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며 ‘居然’은 객관적 사실에 반대하고 화자의 놀라운 감정을 나타낸다. 간단히 말해서, ‘确实’는 어떤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반면, ‘居然’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 따라 본고는 부사를 고빈도 부사, 기대부합 부사, 제한적 부사, 중성기대 부사, 반기대 부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분류	단어와 빈도
고빈도 부사(高频率副词)	总(35) · 往往(6) · 通常(4)
기대부합 부사(合预期副词)	确实(14) · 当然(6) · 的确(3)
제한적 부사(限制性副词)	稍(36) · 略(29) · 稍微(28)
중성기대 부사(中性预期副词)	也许(17) · 恐怕(3) · 大概(2)
반기대 부사(反预期副词)	反而(3) · 居然(1)

〈표 4-1〉 ‘一些’ 구문의 양태부사

위의 <표 4-1>에서 ‘稍微’와 같은 부사는 일반적으로 정도 부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최근에 杨彩影 등(2020)의 연구에서 코퍼스 5,325 개 예문을

88) 李娜炅 · 崔宰榮(2022)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情态副词’로 검색 시 578 편, ‘语气副词’로 검색 시 2050 편, ‘评注性副词’로 검색 시 98 편을 찾았다고 하였다.

분석한 결과, 어떤 명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고는 여기에 해당 부사를 양태부사로 분류하고자 한다.

4.1.1.1 고빈도 부사와 기대부합 부사

먼저 기대부합 부사를 살펴보자. 기대부합 부사란 화자가 표현한 것이 이치(事理)에 부합하거나, 일반인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를 가리킨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 外国投资者说, 上海的商务成本确实比其他地方要高一些, 但这里的效率往往能够产生更大的效益。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하이의 비즈니스 비용이 확실히 다른 곳보다 다소 높지만, 이곳의 효율성은 종종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고 말한다.

- (3) 他们都是跟她相熟的人, 多次在一间手术室共同工作过的人, 他们之间的感情往往比一般同事要深一些, 也坦诚一些。

그들은 모두 그녀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로 여러 차례 한 수술실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 사이의 감정은 왕왕 일반적인 동료들보다도 좀 더 깊고 진솔하다.

- (4) 在水底下, 人总比鱼要差一些。

물 안에서는 사람은 늘 물고기보다 좀 못하다.

- (5) 大部分公厕基本做到了“男女平等”, 但细细想来这有悖于男女生活习性的差别, 女士用厕时间通常比男士长一些, 厕位也理应多一些。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남녀 생활습관의 차이와 어긋난다.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오래 쓰기 때문에 화장실도 당연히 더 많아야 한다.

위에서 쓰인 부사 ‘确实’은 기대부합 부사이고, ‘往往’, ‘总’, ‘通常’은 고빈도 부사이다. 위의 예문은 공통적으로 화자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칙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에서 ‘상하이의 비즈니스 비용이 높은(上海的商务成本比较高)’ 원인은 대도시의 소비 수준과 관련이

있다. (3)의 경우 같은 수술실에서 함께 일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두 사람의 애정이 깊다고 추정하고 있다. (4)의 경우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물고기보다 물속에서의 적응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5)의 남녀 화장실 사용 소요 시간을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화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거의 없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비교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고빈도 부사 ‘通常’과 비교해 저빈도 부사를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자. ‘一些’ 구문이 저빈도 부사와 공기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 (5) a. 女子用厕所时间通常比男士长一些。
- b. *女子用厕时间偶尔比男士长一些。
- c. *女子用厕时间时而比男士长一些。
- d. *女子用厕时间很少比男士长一些。

위에서 (5b), (5c), (5d)가 비문인 이유는 예문에 쓰인 ‘偶尔’, ‘时而’, ‘很少’가 모두 저빈도 부사이기 때문이다. 저빈도 부사는 우연성과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객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一些’ 비교구문에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4.1.1.2 제한적 부사와 사용할 때

다음으로 제한적인 부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은 ‘一些’ 비교구문이 객관적인 비교라는 두 번째 증거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6) 苏州也算是个美景胜收的旅游城市，只不过比杭州略微逊色一些。
 苏州는 아름다운 여행 도시이지만, 杭州보다 약간 뒤떨어질 뿐이다.
- (7) 粉底霜的颜色应该比你的皮肤颜色稍微浅一些。如果你使用颜色较深的粉底反而会使你的缺陷得以暴露，使它们更加醒目。
 파운데이션의 색상은 당신의 피부색보다 약간 연해야 한다. 만약 짙은 색

상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오히려 당신의 결점이 드러나 더욱 눈에 띈다.

(6)의 부사어 ‘略微’, (7)의 ‘稍微’은 모두 제한적인 부사인데, 杨琳(2007)은 이러한 어휘를 ‘稍微系程度副词⁸⁹⁾’라고 정의한다. ‘一些’ 비교구문은 비교항 간에 양(量)의 차이가 크지 않다. ‘一些’ 비교구문에 위와 같은 정도부사(‘稍微系程度副词’)를 사용하면 일반적 상황에 비해 차이가 조금 적은 정도임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8) a. 苏州比杭州逊色。
苏州는 杭州보다 못하다.
b. 苏州比杭州逊色一些。
苏州는 杭州보다 약간 못하다.
c. 苏州比杭州稍微逊色一些。
苏州는 杭州보다 단지 약간 못하다.

위의 세 문장을 비교해보면, (8a)에서 (8c)까지 화자의 확신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a)는 단순히 苏州와 杭州라는 두 도시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8b)에서 두 도시 간 차이를 나타내는 폭은 크지 않으며, (8c)에서 苏州는 杭州보다 못하지만 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8) d. 苏州比杭州逊色, 你不要去苏州工作了。
苏州는 杭州보다 뒤떨어지니 너는 苏州에 가서 일하지 마라.
e. 苏州比杭州逊色一些。去苏州工作工资会低一些。
苏州는 杭州보다 약간 못하다. 苏州에 가서 일하면 월급이 좀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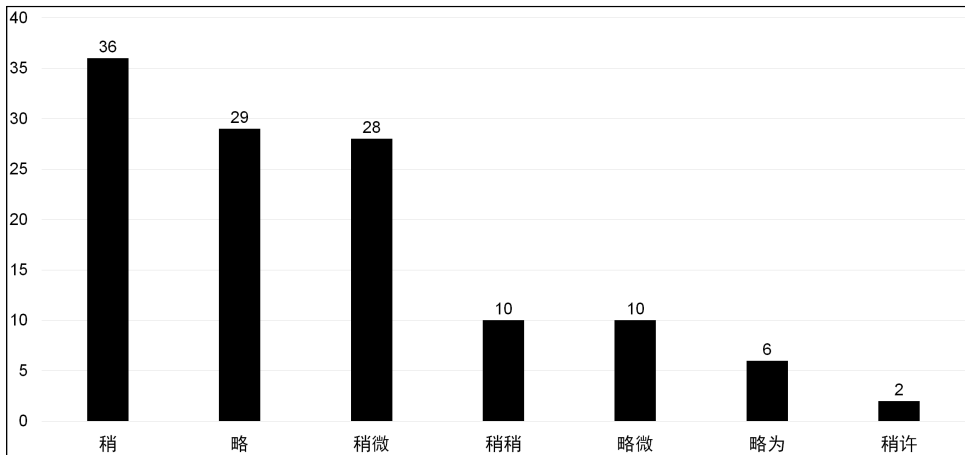
89) 杨琳(2007)에 따르면 ‘미세정도부사(稍微系程度副词)’는 정도부사 중에서 ‘조금’ 혹은 ‘약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를 가리킨다. 중국어에서 ‘稍, 略, 稍微, 略微, 稍稍, 略略’ 등이 미세정도부사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제한적인 부사로 부르기로 한다.

f. 苏州比杭州稍微逊色一些, 去苏州工作也可以。

苏州는 杭州보다 약간 뒤떨어지지만, 苏州에 가서 일해도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杭州’와 ‘苏州’ 가운데 어느 도시에서 취직하는 것이 나올지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8d~f)처럼 다양한 후속문을 첨가할 수 있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一些’ 비교문에 자주 등장하는 제한적 부사는 다음과 같다.

稍(36), 略(29), 稍微(28), 稍稍(10), 略微(10), 略为(6), 稍许(2)



<그림 4-1> ‘一些’비교구문에 나타나는 제한적 부사

위의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상위 세 가지 제한적 부사는 ‘稍’, ‘略’, ‘稍微’ 등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稍稍’, ‘略微’, ‘略为’ 등이 차지한다. ‘稍许’는 2건으로 가장 적게 출현하였다.

4.1.1.3 중성기대 부사와 사용할 때

다음에서는 중성기대 부사와 쓰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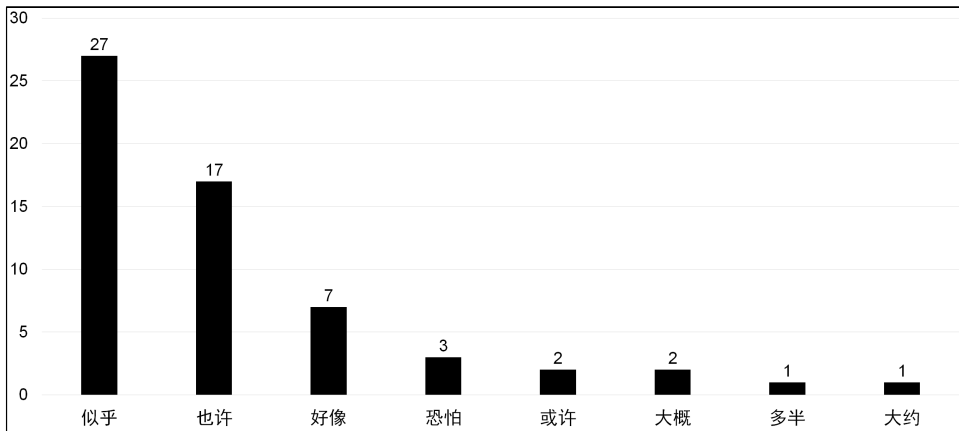
- (9) 几个月不见, 她似乎比过去消瘦一些, 眼睛下边多了两个肉布袋。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더니, 그녀는 예전보다 좀 수척해졌고 눈 밑에 군살이 두 개나 늘었다.
- (10) 为什么女方坚持要在房产证上写自己的名字呢? 大多数女网友都表示是“为了给自己一些安全感”。一套房子或许比一个男人更可靠一些。房子不会改变, 而男人随时间会改变很多。
여자 측에서 집문서에 왜 자신의 이름을 쓰겠다고 고집할까? 대부분의 여성 네티즌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어찌면 집이 남자보다 더 믿음직스럽다. 집은 변하지 않지만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한다.
- (11) 企业领导人直接控制资源, 搞起腐败来大概比官员钱权交易更容易一些。
기업의 리더가 직접 자원을 통제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아마도 관료들의 돈거래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이다.
- (12) 工人阶级在改革开放中经受的阵痛也许比农民更强一些。
노동계급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은 아마도 농민보다 조금 더 강했을 것이다.

위에서 ‘似乎’, ‘或许’, ‘大概’, ‘也许’ 등은 모두 중성기대 부사에 속한다. 중성 기대란 어떤 사실 A가 존재할 때 상식에 의거해 A로부터 B 혹은 C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에서 ‘她’가 예전보다 살이 빠졌는지 화자는 확실하지 않다. (10)은 ‘남성보다 집이 믿음직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1)은 기업 리더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에서는 부사 ‘大概’를 사용하여 추측과 불확실성의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했다. (12)의 ‘也许’도 ‘大概’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중성기대 부사를 사용한 비교구문은 화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 (10)는 ‘집’을 ‘남자’와 비교한 것인데 이 두 대상은 의미적 ‘동질성’을 갖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 여성은 ‘집’을 ‘남자’와 비교할 때 집이 남자보다 더 귀하고 더 충성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 자의성이라는 인상을 줄이기 위해 부사 ‘或许’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문에 자주 나타나는 중성기대 부사는 다음과 같다.

似乎(27), 也许(17), 好像(7), 恐怕(3), 大概(2), 多半(1), 大约(1)



〈그림 4-2〉 ‘一些’ 비교구문에 출현하는 중성기대 부사

위 그림을 보듯이 사용범위에 근거하여 정렬하면, ‘似乎’, ‘也许’, ‘好像’이 순서대로 1 위에서 3 위까지를 차지한다. 나머지 중성기대 부사는 ‘恐怕’, ‘或许’, ‘大概’, ‘多半’, ‘大约’ 등의 순서대로 출현횟수는 낮게 나타났다.

4.1.1.4 반기대 부사와 사용할 때

부사 중에서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反)기대부사로는 ‘竟然’, ‘居然’, ‘甚至’, ‘简直’, ‘反而’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사는 화자가 주관적으로

바라는 바와 객관적 사실이 상반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상에서 벗어남을 강조하며, 반기대 정도가 높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3) 一些国货在国外的销售价格竟然比在国内低一些。

일부 국산 상품의 외국에서의 판매가격은 의외로 국내보다 약간 낮다.

(14) 人不能喝牛奶的原因——乳糖不耐受，而羊奶中同样含有大量的乳糖，甚至比牛奶中还要高一些。

사람이 우유를 마실 수 없는 원인은 유당불내증 때문이다. 그런데 양젖에 마찬가지로 대량의 유당이 들어있고, 심지어 우유보다도 좀 더 많이 들어 있다.

(15) 在很多保龄球馆，由于凌晨普遍实行优惠价，这个时间的生意反而比白天要好一些。

많은 볼링장에서 이른 아침에는 보통 할인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영업이 오히려 낮보다 좀 더 잘 됩니다.

(13~15)은 모두 반기대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5)에서는 ‘볼링장’의 이른 아침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화자의 예상과 달리 아침에 볼링장을 찾는 손님이 많다는 것을 반기대 부사 ‘反而’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문은 ‘一些’ 비교문의 객관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이고 예상치 못한 화용적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는 ‘一些’ 비교구문이 ‘不了多少’ 비교구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비교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1.2 양태동사의 사용

본 절에서는 양태동사의 분포와 표현 기능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양태부사와 달리 양태동사의 수량은 훨씬 적다. 아래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양태동사 ‘能, 应该, 可以, 可能, 会, 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어 양

태동사의 위치는 비교적 유연하여, ‘比’자 앞은 물론 뒤에도 위치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는 두 위치의 양태동사의 사용빈도에 대한 통계이다.

비에 선행	형용사 갯수	비율	비에 후행	형용사 갯수	비율	합계
能*	8	67%	*能	4	33%	12
应该*	15	100%	*应该	0	0%	15
可以*	19	90%	*可以	2	10%	21
可能*	20	91%	*可能	2	9%	24
会*	60	80%	*会	15	20%	75
要*	121	43%	*要	160	57%	281

〈표 4-2〉 양태동사와 ‘比’의 위치(BCC)

위의 <표 4-2>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能’을 제외한 ‘应该’, ‘可以’, ‘可能’, ‘会’ 등 양태동사는 ‘比’자가 후행하는 경우 각각 100%, 90%, 91%, 80%를 차지하는 만큼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要’가 출현하는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고, ‘比’자에 선행하는 비율이 43%이고 후행하는 비율이 57%이다. 이를 통해 양태동사의 종류에 따라 ‘比’에 대한 상대적 위치의 경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는 사람들이 사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도구이므로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장은 화자가 전달하려는 객관적인 정보(주제)와 해당 정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감정)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화자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양태동사는 그 중 하나이다. 양태동사는 화자의 견해와 태도를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강한 주관성을 가진다. Palmer(2001)은 양태동사의 주관적 특징에 가장 관심을 둔 학자 중 한 명으로 그는 주관성이 감정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하였다. 그는 영어에서 양태동사가 판단과 설명을 구분하는 표지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6) a. Mary is at home.
- b. Mary may be at home.
- c. Mary must be at home.⁹⁰⁾

(16a)는 양태동사가 없는 진술문으로 단순히 ‘메리가 집에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한다. 반면, may 와 must 를 포함한 (16b), (16c) 문장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메리는 아마도/반드시 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6a)와 달리 (16b), (16c)에서는 “나는 (판단한다/생각한다/추측한다)”라는 양태동사에 의해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어도 예외가 아니다, 아래에서 중국어의 양태동사가 들어가는 예문을 살펴보자.

- (17) a. 他晚上来。
 그는 저녁에 온다.
- b. 他可能晚上来。
 그는 아마 저녁에 온다.

(17a)는 객관적인 서술이며, (17b)에서는 양태동사인 ‘可能’을 통해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화자는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태동사의 문법적 특성을 ‘一些’ 미세차이 비교구문에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화자의 의도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양태동사의 개념의 특성에 기초하여 미세차이 비교구문 상의 양태동사의 주관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90) Palmer(2001: 6)에서 제인용.

4.1.2.1 ‘要’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吕叔湘(1999)에 따르면, ‘要’는 비교문에서 ‘예측(估计)’의 의미로 사용되며, ‘比’의 앞이나 뒤에 위치할 수 있고, ‘得’의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통사적 환경에서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였다.⁹¹⁾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고는 BCC 코퍼스에서 ‘一些’ 비교구문에 양태동사 ‘要’가 쓰인 1,099 개의 용례를 관찰하였다.⁹²⁾ 양태동사 ‘要’는 대부분의 경우 吕叔湘에서 제시했듯이 ‘比’자의 앞뒤에 위치하면서 상호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 (18) a. 在交友问题上, 作为一个领导干部要比老百姓更慎重一些。哪些可交, 哪些不可交, 哪些多交, 哪些少交, 要心中有数。稍有不慎, 就会栽在朋友手里。
교우 문제에서 리더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누가 사귄만한지, 누가 사귄만하지 않은지, 어떤 이들을 많이 사귄지, 어떤 이들을 덜 사귄지, 반드시 마음속으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중하지 않으면 친구의 손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 在交友问题上, 作为一个领导干部比老百姓要更慎重一些。
교우 문제에서는 일반 국민보다 리더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 (19) a. 在酒宴的安排上, 对娘家客都要特殊一些, 而且要照顾得好一些。娘家客的酒席, 要比其他来宾的酒席丰盛一些, 多一些菜, 酒的档次相对也比较高。
술자리 안배는 친정 손님에게는 좀 특수하게 대해야 하고 배려도 잘해야 한다. 친정 손님의 술자리는 다른 손님의 술자리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반찬도 많으며 술의 품격도 상대적으로 높다.
- b. 娘家客的酒席比其他来宾的酒席要丰盛一些。

91) 表示估计, 用于比较句。‘要’可以用在‘比…’的前或后, 也可以用在‘得’后, 意思不变。(吕叔湘 1999:593)

92) ‘比^要 a 一些’의 검색 결과 723 건 발견됐고, ‘要比^a 一些’의 검색결과 376 건이었다. (검색 날짜: 2023년 2월 21일)

친정 손님 술자리는 다른 손님 술자리보다 조금 더 풍성해야 한다.

- (20) a. 爸爸总是要比妈妈严肃一些的, 是不是? 妈妈脾气好, 爸爸比较急躁一些。不过, 爸爸也不常骂我们, 他说我是女孩子, 不太注意我。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보다 좀 더 엄숙하시지요, 그렇죠? 엄마는 성격이 좋으신데, 아빠는 좀 급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늘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고, 제가 여자라서 저에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 b. 当我们全家一同参加庆祝活动时, 我注意到爸爸总是比妈妈更严肃一些。他特别注重秩序和礼仪, 时常强调我们的行为举止, 并教导我们如何与长辈和亲戚交流。相比之下, 妈妈则更加随和和包容。她通常不过分追求细节, 而是致力于让每个人感到舒适和愉悦。

우리 가족이 함께 축하 행사에 참석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아빠는 항상 엄마보다 조금 더 엄숙해 보이세요. 아빠는 질서와 예절에 특히 신경을 쓰며, 우리의 행동거지를 자주 강조하고, 아울러 우리가 어른들과 친척들과는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반면에, 엄마는 더욱 친근하고 포용적이예요. 엄마는 기본적으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고, 대신에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시지요.

(18~20)에서 ‘要’는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면 의미에도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18b)는 화자가 명제를 참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리더는 신분이 특수하고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미래를 망쳐버릴 수 있다. 반면, (18a)는 리더의 교우관계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다. 이는 의무양태에 해당된다. (19b)의 경우도 화자가 명제를 참으로 보는 관점으로 친정이 신부를 키우는 데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을 나타낸다. 그러나 (19a)의 경우 사회적 관습에 의거하여 시택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무양태에 해당된다. (20b)는 가족 행사에 참석할 때 아빠의 엄숙한 모습을 참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20a)는 아빠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一些’ 비교구문에서 양태동사 ‘要’는 ‘比’의 앞뒤에 출현할 뿐만 아니

라, 해당 문장에서 동일한 양태동사가 중복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코퍼스 조사 결과 이러한 예문이 총 18 개 출현했으며, ‘应’과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1) 跳箱的高度以及之间的距离根据运动员的训练水平而定, 采用单腿跳的高度应比双腿跳相对要低一些。

점프 박스의 높이와 간격은 선수들의 훈련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점프 박스의 높이는 한 다리 뛰기가 두 다리 뛰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야 한다.

(22) 人们总是同情弱者, 对待病人、失去思维能力的人, 人们总是要比对健康的能自我负责的人要客气一些, 这是个普遍心态。

사람들은 항상 약자를 동정한다. 사람들은 환자나 사유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건강하여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대할 때보다 좀 더 친절하다. 이것은 보편적인 심리이다.

위의 (21)에는 양태동사 ‘应’과 ‘要’가 동시에 출현했으며, (22)에서는 양태동사 ‘要’가 중복 출현하였다. 코퍼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양태동사 3 개가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3) 在中国做药物观察可能要比在国外观察费用上还要低一些。

중국에서는 아마도 약물 관찰 비용을 외국에서보다 좀 낮추려고 한다.

(23)에는 세 개의 양태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可能’이고 나머지 2 개는 ‘要’이다. 여기에서 양태동사 ‘可能’은 ‘在外国药物观察费用低廉’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比’에 선행하는 ‘要’의 문법기능은 명제 전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반면, ‘比’에 후행하는 ‘要’의 문법기능은 비교점인 ‘在中国做药物观察费用高低’의 정도에 대한 예측을 나타낸다.

4.1.2.2 ‘会’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이제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출현하는 ‘会’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BCC 코퍼스 검색에 의하면 ‘会’가 사용된 용례를 162 개 발견하였다.⁹³⁾ 미세차이 비교문에서 양태동사 ‘会’는 ‘능력’, ‘습성’, ‘가능성’의 세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4) 如果每个人都关心自己的事, 地球就会比现在转得快一些。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쓴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돌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가 466m/초로 일정하다는 것은 보편적 지식이다. 하지만 위 예문에서 비유적으로 지구의 속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호소인 것이다. 따라서 (24)에서 ‘会’를 사용하여 지구의 속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화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5) 一般来说资深员工的薪酬往往会比资浅的员工多一些。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은 직원의 월급은 경험이 적은 직원보다 더 많다.

(26) 我放假会比平时起得晚一些。

나는 휴가 때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다.

(25)에서 월급의 조건을 서술한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을수록 월급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6)는 휴가기간 동안 일어나는 개인적 습관을 강조한다. Comrie(1985:39~41)의 관점에 따르면 습관(habitual meaning)은 어떤 시

93) ‘比^a 会 a 一些’의 검색결과는 137 건 발견됐고, ‘会比^a 一些’의 검색결과는 25 건이었다. (검색 날짜: 2023 년 2 월 21 일)

간에 발생해도 항상 참이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 (27) a: 你不该上这儿来。
 너는 여기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b: 噫, 我本以为你见到我会比这个样子高兴一些呢。
 에이, 나는 본래 네가 나를 만나면 이 모습보다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
 基特宁先生神情沮丧地回答。
 키테닌 씨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a: 你呀你。
 너야 너.

위의 (27)의 대화에서 A는 B에 대해 의외 또는 불만을 나타내며, B는 자신이 온 것에 대해 환영받지 못했음에 상처받게 된다. 이 때문에 그의 표정은 ‘很沮丧’으로 묘사되었다. ‘会’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잘못 추측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4.1.2.3 ‘能’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이제 ‘一些’ 비교구문에 출현하는 ‘能’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고에서의 BCC 코퍼스 검색에 의하면 ‘能’이 사용된 용례를 19개 발견하였다.⁹⁴⁾ 미세차이 비교문에서 양태동사 ‘能’은 ‘능력’, ‘용도’, ‘허가’, ‘가능성’의 네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음의 예문을 통해 양태동사 ‘能’이 ‘능력’의 의미를 지닐 때의 미세차이 비교구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28) 可是邦妮！我的邦妮！你以为我不能比你照顾得好些吗？
 그러나邦妮야! 나의邦妮!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하

94) BCC 코퍼스에서 ‘比^^能 a 一些’의 검색결과는 9건 발견됐고, ‘能比^^a 一些’의 검색결과는 10건이었다. (검색 날짜: 2023년 2월 21일)

니?

다음의 예문은 미세차이 비교문에서 양태동사 ‘能’이 ‘용도’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29) 文学之“耙”，当能比农用之“耙”，更深入一些吧。

문학의 ‘갈퀴’는 농업용 ‘갈퀴’보다 당연히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요.

(30) 作为食用油，橄榄油能比玉米油要好一些。

식용유로서 올리브 오일이 옥수수 기름보다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위의 (29)에서 ‘耙’는 농업용 기구로 쓰여 구체적 실체에 속하는 반면, ‘문학의 갈퀴’는 은유적 표현으로 땅을 판다는 의미가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투사된 것이다. (30)은 ‘玉米油’에 비해 ‘橄榄油’가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용도 또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위의 두 예문에서 ‘能’을 삭제하면 이러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기 어렵다.

다음의 예문은 미세차이 비교문에서 양태동사 ‘能’이 ‘허가’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31) 忙了四季的中国农民，去年的钱袋能比上年鼓些吗？(人民日报/1993)

사계절을 바쁘게 지낸 중국 농민들에게 있어서 작년의 돈 보따리가 재작년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위의 (31)에서 양태동사 ‘能’은 도의적 허가와 조건상의 허가라는 중의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이 농사에 부합했다면 조건상의 허가를 나타낸다. 만일 화자가 한 해 힘들게 보낸 농민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표현했다면 도의적 또는 인정상 허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예문은 일반적으로 의문문과 반어문에서 쓰인다.

다음의 예문은 미세차이 비교문에서 양태동사 ‘能’이 ‘가능성’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32) 愿这个孩子, 能比我和我的妈妈幸福些。

이 아이가 저나 그의 어머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 a: 树枝怎么能比树干还粗些呢?

나뭇가지가 나뭇줄기보다 어떻게 더 두꺼울 수 있겠어요?

b: 树枝怎么能比树干粗呢?

나뭇가지가 어떻게 나무줄기보다 두껍지가 않을 수 있겠어요?

위의 (32)에서 화자는 ‘孩子’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하지만 ‘孩子’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화자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33)에서 의문대사 ‘怎么’는 ‘能’ 또는 ‘不能’과 연용하여 의문문 또는 반어문을 이룰 수 있다. 이 경우 화자는 명제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정도의 의심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3)에서 부정부사 ‘不’를 부가한 반어문은 이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드물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현대중국어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세 가지 양태동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一些’ 비교구문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양태동사 ‘要’, ‘会’, ‘能’, ‘可能’을 사용한다. 둘째, ‘要’는 ‘一些’ 비교구문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고, ‘比’자 앞뒤에 위치할 수 있다. 셋째, 양태동사 ‘要’, ‘会’, ‘能’, ‘可能’는 ‘一些’ 비교구문에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4.2 ‘X比YW不了多少’ 구문

본 절에서는 ‘X比YW不了多少’ 구문의 기능을 과장비교와 반기대가능

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2.1 과장식비교

과장식비교는 객관식비교가 아니다. 과장식비교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가 서로 다른 속성일 수 있다. ‘X比YW 不了多少’ 구문은 특이한 비교문으로, 한편으로는 실제적 비교를 나타내며 X와 Y 사이의 성질과 정도를 비교하는 데에 쓰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를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후자를 나타낼 때에는 과장의 수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절은 이러한 구문이 채택하는 과장 방식, 수사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과장은 영어로 hyperbole 이라고 하며, 이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 ὑπερβολή(hyperbolé)에서 유래하였다. Longman Modern English Dictionary(Owen Watson ed.)에 따르면 ‘과장’은 ‘진실을 부드럽게 과장하는 말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바꿔 말해서, ‘과장’ 용법은 사실보다 크게 서술하는 표현법을 말한다. 비록 과장 용법이 언어학계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용법의 출현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Kreuz Roberts Johnson Bertus(1996)에 따르면,⁹⁵⁾ 다양한 수사적 용법 중에서 과장의 사용비율이 비유에 버금간다고 하였다. 중국어에서 과장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으며, 과장 용법은 고대 문헌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燕山雪花大如席，片片吹落轩辕台。 (李白《北风行》)

여기에서는 연산(燕山) 지역의 겨울 날씨 특징을 묘사한다. 눈꽃이 돛자리만큼 크다고 비유한 일종의 과장적인 표현이다. 이를 통해燕山 지역의 겨울이 극단적으로 춥다고 표현한 것이다.

95) Kreuz, Roberts, Johnson, Bertus(1996)는 미국의 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수식 방식 중 과장은 은유 다음으로 많이 쓰는 수식 방식임을 밝혔다. 그 중에서 은유는 29%이고, 과장은 27%이다.

如今人方为刀俎，我为鱼肉，何辞为？ (《史记·项羽本纪》)

상대방을 칼자루에 비유하고, 나를 어육에 비유하여 나의 생살여탈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고 과장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以若所为，求若所欲，犹缘木而求鱼也。 (《孟子·梁惠王上》)

위의 예문은 ‘이런 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행동 방식이 틀렸음 과장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문학적 효과에 중점을 두었고, 비교구문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X比YW不了多少’ 구문의 과장 정도가 어떠한지에 주목하고 있다. 사물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언어사용자는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물의 본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시키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청자나 독자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비교문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주로 비교문과 비유의 차이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유와 과장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하길중(1998)⁹⁶⁾은 어휘 의미, 비교기준의 필수적 여부, 주관적 판단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유와 과장의 차이를 논의했지만, 주관화 측면에서 과장 용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陆俭明(1980)은 강세를 사용해 ‘X比YW’의 기능을 구별했다. 예를 들

96) 하길중(1998)에 따르면 비교와 비유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비교표현	비유표현(직유표현)
어휘의미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에서 어휘의미에 의한 공통적인 자질이 있다.	화행의미에 의한 연상의미의 의미자질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비교기준	비교기준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견중 기준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객관성	서술어 의미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서술어 의미는 대체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어 ‘小王比他还高’에서 강세가 ‘还’에 있으면 일반적인 비교문에 속하고, 강세가 ‘他’에 있는 경우 ‘他’를 기준으로 ‘小王’의 키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비유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陆俭明(1980)은 언어의 주관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殷志平(1995)은 ‘X比Y还W’에 일반 비교와 比况(비유)의 두 가지 의미 기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 두 가지 의미 기능에서 비유類 비교문은 현실성을 나타내지만, 比况(비유)類 비교문은 비현실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殷志平(1995) 역시 과장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장 방식은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관계에 근거해 대체로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4.2.1.1 비유식 과장

객관적 비교는 두 사물이 특정 측면에서 같거나 다름의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와 달리 비유는 종종 대중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유의 본질은 인간의 인지와 외부세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비유(比擬) 구문에서 과장은 일반적으로 X와 Y가 동일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4) 为战士服务, 姑娘们的心个个比针尖粗不了多少。

전사를 위해 봉사하는 처녀들의 마음은 하나하나가 바늘 끝보다 굵지 않다.

(35) 他的死比泰山轻不了多少。

그의 죽음은 태산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

위의 (34~35)에서 X와 Y는 서로 의미상 공통된 비교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체 구문은 비유를 나타낸다. 바꿔 말해서, 이는 정도와 성

질이 비등가적인 비유(比擬)에 속한다. (34)는 ‘姑娘的心’을 ‘針尖’에 비유하였다. 위에서 ‘姑娘的心’은 [+추상성] [-예측가능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반면, ‘針尖’은 [+구체성] [+예측가능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針尖’은 명사의 구체적 속성에 중점을 둔다. 화자는 ‘가늀’의 속성을 취하여 ‘姑娘’이 지닌 심리적 세밀함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35)에서 ‘死’는 [-중량]의 자질을 가지며, 이 둘은 비교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구문은 ‘他的死’와 ‘泰山’ 간에 가볍고 무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찾는 것이다. 즉, ‘泰山’에서 ‘他死得伟大’, ‘死得有所得’ 간에 비교 구조를 공유하게 되어 전체 문장이 과장의 수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유사성을 통해 구문과 비교대상을 연결해 연상할 수 있도록 환기시킴으로써 추상적인 ‘姑娘的心’, ‘死’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比擬구문에서 Y는 W의 성질, 정도를 지니고 있지만, X는 W의 성질과 정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X와 Y 간에는 본래 비교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교문과의 차이는 관례적 수단의 파괴를 통해 과장의 색채를 구현하는 데 있다.

4.2.1.2 부각식 과장

부각식 과장에서 Y는 통상적으로 고유명사이며, W의 성질에 대해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Y에는 고유명사와 일반명사 모두 출현할 수 있는데, 이 구문에 들어가는 두 부류의 명사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어의 고유명사는 중국어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X항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6) 要金牛座誠心道歉, 比登天容易不了多少。

황소자리에게서 진심을 대해 사과를 받으려면 하는 것은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쉽지 않다.

위의 (36)은 전형적인 과장의 비교문에 속하며, 황소자리의 성격이 상당히 고집스럽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독자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황소자리에게 사과받는 것이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다고 믿지 않겠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과장용법이 해독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저자와 독자 간에 유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37) 老猫道：“穿着这个，我看比蜗牛快不了多少。

늙은 고양이가 말했다. “내 생각에 이것을 착용하면 달팽이보다도 별로 빠르지 않을 것이다.”

(38) 当初我付高价买那些马来耕田，不是瞎了眼就是神志不清。它们的动作简直比在石子路上爬的乌龟快不了多少，我绝不会再上当了。

원래 나는 밭을 갈려고 비싸게 말(馬)을 사왔는데, 눈이 빠졌는지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다. 그것들의 동작은 자갈길에 기어 다니는 거북이보다도 딱히 빠를 것이 없다.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부각식 과장은 비교의 수단으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비교객체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물이다. (37)-(38)의 ‘거북이’와 ‘달팽이’는 사람들의 인지세계에서 모두 느리게 기어가는 동물의 대표이다. 따라서 화자는 ‘고양이’와 ‘달팽이’, ‘말’과 ‘거북이’의 속도 차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비교 사물을 통해 비교주체의 성질을 과장하여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지만 실제로는 아주 극도의 과장 의미를 담고 있다.

4.2.1.3 대비적 과장

대비적 과장은 X, Y가 서로 상반되거나 상대적인 의미 어휘가 사용된 비교구문을 가리킨다. 이 경우 X항과 Y항의 의미는 상반되지만, 비교결과 측면에서 보면 상태, 성질, 정도 등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39) 你呀, 一个妇女, 比男子汉细心不了多少。
너 말이야. 여자인데도 사내대장부보다도 더 세심하지 못하네.
- (40) 先生病了, 活着比死了好不了多少。
선생께서는 편찮으셔서, 살아계신 게 죽는 것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세요.
- (41) 你一个年轻小姑娘, 怎么穿的衣服比老太太马虎不了多少呢。
너 같은 젊은 처녀가 어떻게 입은 옷이 할머니보다 대충대충일 수 있니?

위의 (39)에서 X 항과 Y 항은 각각 ‘妇女’와 ‘男子汉’에 속한다. 보편적인 상식에 의하면, ‘妇女’는 여성스럽고 세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39)에서 ‘妇女’는 이와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妇女’와 상반되는 ‘男子汉’과 비교함으로써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40)에서 X 항과 Y 항은 각각 ‘活着’와 ‘死了’이다. 두 어휘의 의미 역시 (39)과 마찬가지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41)의 경우 보편적 상식에 의하면, ‘年轻小姑娘’은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을 쓰는 반면, 여기에서의 ‘年轻小姑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老太太’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年轻小姑娘’이 옷을 대충 입고 있음을 과장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4.2.2 반기대비교

대부분 중국 학자들은 ‘기대(预期)’와 관련된 연구에서 반기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偏离预期(예상에서 벗어남)’는 몇몇 논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陆俭明(1990)은 ‘VA了’가 ‘결과의 실현(结果的实现)’과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偏离预期的结果)’의 두 가지 언어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겼다. 偏离预期에 관해서 陈立民(2005)은 부사 ‘就’과 ‘才’의 공통적 특징으로 언급했다. 현재 중국 문법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용어는 ‘반기대(反预期)’이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반기대’가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기대와 정반대인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논문에서는 더 넓은 내용을 포함하며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정보를 ‘반기대 정보(反预期信息)’로 간주하기도 한다. 반기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논문 중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谷峰(2014)의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谷峰은 중국어 반기대 표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谷峰(2014)은 중국어에서 반기대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 수단으로 접속사(连词), 삽입어구(插入语), 부사(副词), 구문(句式), 어기사(语气词), 어순(语序) 등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후 나타난 반기대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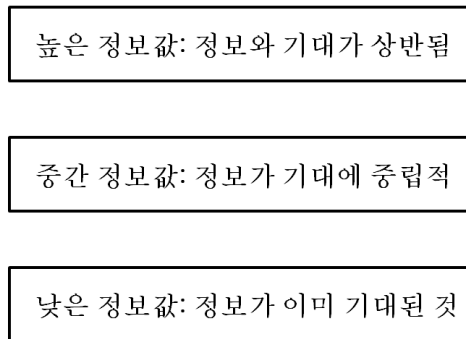
중국에서 먼저 비교문의 반기대 현상을 연구한 학자는 吴福祥(2004)이다. 그는 반기대이론을 기반으로 ‘X 不比 Y·Z’ 비교구문의 반기대의 특징을 분석하여 세 가지 종류의 반기대를 제시했다, 즉, 청취자의 기대와 반대, 화자 자신의 기대와 반대,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지식과 반대이다. 吴福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X 不比 Y·Z’ 비교구문은 이 세 가지 반기대 종류를 모두 나타내므로 반기대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宗守云(2011)은 ‘X 比 Y 还 W’도 반기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X 比 Y 还 W’와 ‘X 比 Y 更 W’의 기본적인 차이로 전자는 반기대 비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점층비교(递进比较)’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반기대를 나타내는 표지의 연구로 孙楠(2012)은 현대중국어 전환 부사(转折副词) ‘反/反而/反倒, 竟/竟然/居然, 偏/偏偏, 倒/倒是, 其实’ 등의 반기대 표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袁毓林(2008)은 ‘甚至’와 ‘反而’간의 차이를 묘사하고 설명하면서 둘 다 대조 초점을 통해 반기대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한다.

지금까지 반기대에 대한 연구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다. 본고는 吴福祥(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X 比 YW 不了多少’ 비교구문의 반기대 비교의 특

정을 살펴보겠다.

Dahl(2001)은 담화에서의 중성 정보는 기본량이고, 반기대 정보와 기대 정보는 각각 중성 정보가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뺏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반기대와 관련된 정보량 위계를 살펴보면, 반기대 정보의 정보량이 가장 크고, 기대 정보의 정보량이 가장 작으며, 중성 정보의 정보량은 그 가운데에 위치한다. Dahl(2001:27)은 아래의 도식을 통해 세 정보의 정보량 크기를 나타냈다. (单威 2017 에서 재인용)



〈그림 4-3〉 정보 값의 종류

반기대는 기대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기대라는 언어학 개념은 화자와 청자 쌍방의 공통 지식, 관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담화 맥락(discourse context) 및 전후 문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Heine et al. 1991, Schwenter & Traugott 1995) 그런데 반기대 정보가 포함하는 의미와 기대가 상반된 담화 정보는 대화에서 화자가 어떠한 사건(affairs)에 대해 청자의 기대와 대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관점을 제기했을 때 화자가 반기대 정보를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기대 정보는 주로 어떠한 언어 수단을 통해 표시되는가? 많은 인지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어법 수단을 가리켜 ‘반기대표지(counter-expectation markers)’라고 부르곤 한다.⁹⁷⁾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인류 언어에

서 반기대표지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주로 접속사나 부사 등 문법적 항목이다.⁹⁸⁾ 예컨대 영어의 ‘but’,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whereas’ 등 접속사와 ‘in fact’, ‘actually’, ‘only’, ‘too’, ‘already’ 등의 부사, 한국어의 ‘그러나’, ‘하지만’, ‘실제로’, ‘또’, ‘이미’ 등 어휘가 여기에 해당된다. ‘W 不了多少’ 비교구문에서 발견되는 주관적 표기(主观话语标记)는 아래와 같다.

주관적 표기	횟수
竟然	2
竟	2
不料	1
居然	3
简直	5
其实	11
实际上	3
事实上	1
却	5
看来	5
看起来	1
我觉得	3
我看	3

〈표 4-3〉 ‘不了多少’ 구문의 주관적 표기

97) ‘반기대표지’는 서로 다른 문법서에서 다른 용어로 불리고 있으나, 가리키는 내용은 같다. 어떠한 경우에는 ‘대조 표지(contrastive markers)’라고 부른다(Fraser, 1998). ‘adversative mark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Jasinskaja 2012). 이 두 슬어는 모두 ‘기대에 대한 반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98) Heine(1991)는 부사와 접속사처럼 자주 보이는 반기대표지 외에도, 강제·어순·조사 등 역시 일종의 반기대 언어수단이라고 한 바 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谷峰(2014)이 반기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언어 수단을 접속사·삽입어·부사·문장 구조·어기사·어순의 여섯 가지로 귀납하였다. (谷峰 2014 에 재인용.)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X 比 YW 不了多少’ 구문은 아래의 세 종류의 반 기대 상황을 구현해내고 있다.

1. 화자의 기대와 반대
2. 청자의 기대에 배치
3. 화자와 청자 쌍방이 공유하는 배경지식에 배치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2.2.1 화자의 기대와 반대

화자의 기대에 대한 배치는 ‘X 比 YW 不了多少’ 구문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반기대 유형이다. 이 유형의 ‘X 比 YW 不了多少’ 구는 주로 대화 맥락에서 나타나는데, 그 기능은 袁毓林(2000)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42) “我这一生能够得到你，好像瞎猫捉到死老鼠，真是误打误撞的运气……”
她一听，好生气：
“你这个人，会不会讲话？”
“怎么了？哪那一句不对？”
“如果慕白这样追雨凤，一定结不了婚！你就算不把我比成花啊月亮啊，也别把我比成死老鼠呀！”
“我是在说我自己像瞎猫……那么，是‘瞎猫捉到活老鼠’，好不好？我是瞎猫，你是活老鼠！行了吧？”
她气得哇哇大叫：
“活老鼠比死老鼠也强不了多少！何况，这只‘活老鼠’会被‘瞎猫’逮到，看样子，一定是一只‘笨老鼠’！”
他瞪着她，鼓着腮帮子说：
“你看，我准备了一肚子的甜言蜜语，被你这样一搅和，全部都给堵回去了！”

“哦? 你准备了一肚子的‘甜言蜜语’, 那你说来听听看!”

“내가 이 생에서 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눈먼 고양이가 죽은 쥐를 잡은 것처럼, 정말 우연한 운이었어.”

그녀는 듣자마자 크게 화를 냈다.

“너 말이야, 말 좀 제대로 하지 않겠니?”

“무슨 일인데? 어디 잘못 말한 거 있어?”

“만약 慕白이 이런 식으로 雨凤을 따라다닌다면, 반드시 결혼을 할 수 없을 거야! 네가 나를 꽃이나 달에 비유하지는 않더라도, 죽은 쥐에게는 비유하지 말아야지”

“난 내가 눈먼 고양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럼 ‘눈먼 고양이가 살아있는 쥐를 잡았다’는 어때? 나는 눈먼 고양이고, 너 살아있는 쥐야! 됐지?”

그녀는 화가 나서 ‘와’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

“살아있는 쥐가 죽은 쥐보다 얼마나 강하겠니! 하물며 ‘살아있는 쥐’가 ‘눈먼 고양이’에게 잡힌다면 분명히 ‘멍청한 쥐’일 거야.”

그는 그녀를 노려보며 뺨을 불룩 내밀고 말했다.

“봐봐, 내가 달콤한 말을 한가득 준비했는데, 네가 딴지 걸어서 다 막혀버렸잖아!”

“그래? 네가 달콤한 말을 한가득 준비했다고 하니, 그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42)에서 남자는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 여자는 ‘살아있는 쥐(一只活的老鼠)’이며 본인은 ‘눈먼 고양이(一只死的猫)’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자의 반응은 남자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여성은 ‘살아있는 쥐’가 ‘죽은 고양이’보다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남자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X比YW不了多少’ 구문을 통해 청자는 회화적 함의 (conversational implicature)⁹⁹⁾에 기초하여 사건에 대한 관점에 선명한 반박 어기를 표현해낸다. 이런 용법에 대해 아래의 예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99) 문금현(2004)에서 재인용.

- (43) a: 我知道。小孩就是这样！
 알아. 애가 그렇지 뭐.
 b: 不知道为什么，我总是觉得你比她大不了多少。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네가 그녀보다 그다지 클 게 없다고
 생각했어.
- (44) a: 你小不点一点点大，说话却有半吊子名家派头，……等你长大了，还了
 得？
 너는 나이는 좀 어리지만, 말하는 데는 오히려 어리석으면서도 좋은
 집안의 기질이 있으니……. 네가 어른이 되면 어찌려고?
 b: 看你也比我大不了多少。
 보기에도 당신도 나보다 그다지 크지는 않네요.
- (45) a: 你们在营地过得好吗？
 너희들 캠프에서 잘 지내니?
 b: 过得比狗好不了多少。
 개보다는 잘 지낸다고도 할 수 없어요.
- (46) a: 我看你比过去可是浑蛋多了……
 내가 보기에 너는 과거보다 훨씬 머저리 같아.
 b: 你比我也强不了多少，一样也是浑蛋。
 너도 나보다 딱히 그다지 강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머저리야.

(43)은 A가 小孩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발한다. (44)는 A가 小不点¹⁰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A도 나와 비교해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반발한다. (45)는 묻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B는 자신이 잘 지내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46)은 A의 말에 대해 B는 A도 자신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반발한다.

100) 小不点是 중국어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1. 나이가 어린 아이 2. 키가 작은 사람 3. 키가 작고 귀여운 사람

4.2.2.2 청자의 기대와 반대

화자의 심층 의식은 사건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실과 기대가 상반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반기대 정보를 ‘X比YW不了多少’ 구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반기대 유형과 다른 점은 이러한 ‘X比YW不了多少’ 형식이 담화 중에서 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백의 맥락에서 훨씬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发现’, ‘说’, ‘猜想’, ‘感觉’, ‘想’, ‘表示’, ‘看来’, ‘觉得’, ‘看’, ‘听起来’, ‘在我眼中’, ‘明白’ 등의 ‘说看动词’를 동반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47) 3G无线网卡终于算是用上了, 但也没有想象中的那么快, 我看也比以前的也快不了多少。

3G 무선 랜 카드가 마침내 사용된 셈이지만, 상상했던 것만큼 빠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예전 것보다도 별로 빠르지 않은 것 같다.

(48) 我从小就看她的节目! 总觉得她比我大不了多少! 居然要结婚了!

나는 어릴 때부터 그녀의 프로그램을 봤어! 항상 나보다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곧 결혼을 할 거래!

(49) 大家都说上流社会里最阔的红人比在外面欲进无路的可怜虫快乐不了多少。

모두들 상류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막다른 길에 들어서려는 불쌍한 벌레(사람)보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47)의 기대 내용은 ‘새로운 3G 기술이 매우 빠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예상외로 실제 사용해보니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48)에서 화자 ‘我’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녀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녀’는 곧 결혼할 연령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49)에서 기대는 ‘상류사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즐거울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4.2.2.3 화자와 청자의 공통적 기대에 배치

사회에는 모두에게 공유되는 언어 정보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를 ‘상규(norm)’, ‘추정(presumption)’¹⁰¹⁾, ‘고정관념(stereotypes)’¹⁰²⁾이라고 부른다. ‘X比YW不了多少’ 형식의 기능이 바로 고정관념에 대한 부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50) 如果女人们仔细想想, 会发现如今做男人比做女人轻松不了多少。
 여자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남자 노릇 하는 것이 여자 노릇 하는 것보다 그다지 더 수월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51) 有的妇人硬要装成樱桃小嘴的模样, 以至于把嘴抿成一个小点, 比别针头儿大不了多少。
 어떤 부인은 억지로 앵두처럼 작은 입모양으로 꾸미려고 심지어 입을 작게 오므려도 바늘 구멍보다 크지 않다.
- (52) 雷米认为英国比伦敦大不了多少。
 레미는 영국이 런던보다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 (53) 因为越大的人家, 越重礼数, 姨太太的身份比下人高不了多少。
 대가집일수록 격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후실 부인의 신분이 하인보다 별로 높지 않다.
- (54) 他的智慧一定比一头猪高不了多少, 随便一唬他就嚇呆了!

101) “‘전제’는 철학자 프레게(Frege)가 자연 언어의 지시적 표현은 그로써 가리켜지는 지시물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지적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실제의 언어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고창은 1987에서 재인용)

102) 고정관념은 인간이 현실 경험에 근거해 형성한 객관 세계에 대한 관념이며, 일종의 이상화된 인지 모형(the idealized cognitive models; 이하 ICM)이다.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ICM은 곧 일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각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공인된 인지 모형이다. 이러한 인지는 사람들의 배경지식 안에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의 지혜는 분명히 돼지보다 높지 않을 거야, 억박지르면 그는 곧 멍해지지!

(50)과 관련된 기대는 ‘여성은 직업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수고가 많다’는 것이다. (51)의 기대는 ‘바늘의 구멍은 매우 작아서, 입술을 아무리 오므려도 핀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다. (52)의 기대는 ‘런던은 영국의 일개 도시일 따름이므로 당연히 영국이라는 나라보다는 훨씬 작을 것’이라는 것이다. (53)의 기대는 ‘전근대적 가정에서 후실 부인의 지위가 정실 부인보다 낮지만 주인의 시중을 드는 하인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54)의 기대는 ‘사람은 고등동물로서 그 지능은 당연히 돼지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지식에 의거하여 형성되지만 실제의 상황은 이와 상반될 수 있다. 사회가 공유하는 기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예문의 반기대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G. Lakoff(2007)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고정관념은 의미척도(semantic scale)와 관련이 있다. ‘X 比 YW 不了多少’ 구문의 주관량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스칼라 모형(scalar model)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D: X > Y$$

이러한 스칼라 모형을 상술한 예시에 적용하면 (52), (53), (54)와 관련된 고정관념의 스칼라 패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토지 면적의 차원: 영국>런던	(영국의 면적은 런던보다 넓다)
신분 고하의 차원: 후실 부인>하인	(후실 부인의 신분이 하인보다 높다)
지능 고저의 차원: 사람>돼지	(사람의 지능은 돼지보다 우수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에서의 보편적 상식이나 사회적 관념은 사람들에게 널리 수용되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때때로 ‘X比YW不了多少’가 나타내는 의미가 그와 관련된 스칼라 모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구문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후실 부인의 신분이 하인보다 높다’고 한다면 청자는 자연스럽게 ‘후실 부인의 신분은 원래 하인보다 높지 않지 않는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정한 고정관념이 이야기하는 스칼라 모형이 반영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의 정상 기대(normal expectation)이기에, 반기대 표지로서 ‘X比YW不了多少’ 구문은 반드시 이러한 기대와 상반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X比YW不了多少’ 구문에서 비교주체 X와 비교객체 Y 사이의 위치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 * 英国比伦敦大不了多少
- * 下人比姨太太的身份高不了多少
- * 一头猪一定比他的智慧高不了多少

지금까지 화자와 청자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W不了多少’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개별 반기대 부사가 포함된 예문을 통해 ‘W不了多少’ 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빈도로 나타나는 반기대 부사 ‘其实’를 살펴보자.

4.2.3 양태부사의 사용

‘其实’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를 통해 언급된 표면적 현상·추측·기대가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언급된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전환의 의미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55) 平日讷于言词的胖胖，写起信来倒是感性和理性同样流畅的。世华亦想，

有谁了解胖胖呢?人家只当她是既胖且拙的人,谁知道她有一颗充满热情的心?她亦嘲笑自己,虽然能言善道,其实比胖胖好不了多少,都是自己的囚犯。

‘胖胖’은 평소 말이 어눌하지만, 편지를 쓰면 오히려 감성과 이성이 똑같이 유창하다. 世华는 또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누가 胖胖을 이해해줄까? 사람들은 그녀를 뚱뚱하고 서투른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누가 그녀가 하나의 열정이 충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까? 그녀 역시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비록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胖胖’보다 그다지 나은 것이 없고, 도두 자기 자신의 죄수인 것이다.

(55)의 경우 화자는 ‘胖胖’이 평소 말이 어눌하여 글도 잘 못 쓸 것이라고 여겼는데, ‘胖胖’이 쓴 편지글을 보고 자신의 기대와 괴리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부사 ‘其实’는 문장 내에서 화자의 반기대 심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전환이나 의외성의 의미 외에 ‘其实’는 화용적 완화기능을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56) a: 我觉得自己不适合做这份工作, 年纪太大了。

나는 스스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b: 哪儿啊, 你其实比我大不了多少的。

아니에요, 사실 당신은 나보다도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56)의 ‘其实’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기를 완곡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자신의 나이와 a의 나이가 큰 차이가 없다고 위로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반기대 부사 ‘居然’를 살펴보기로 한다. ‘居然’의 사전적 의미로는 ‘뜻밖의 상황을 나타냄’, ‘원래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居然’은 화자가 기대했던 바래와 현실 상황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어떤 상황에 대해 놀람이나 의외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데 반

기대 정도가 가장 높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57) 他对每一个女人都这般吗?而她……看来居然比妓女好不了多少,是吗?
그는 모든 여자들에게 이런가요? 그리고 그 여자도 …… 보아하니 뜻밖에
기녀보다 그다지 나을 것도 없겠던데, 그런가요?
- (58) 我看她的年纪比我大不了多少,居然就在报纸上发表文章了。
나는 그녀의 나이가 나보다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뜻밖에
신문에 글을 실었다.

(57)에서 ‘居然’은 어떠한 관점이나 사태가 화자에게 의외임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居然’이 있는 문장은 일종의 반기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57)에서 ‘그녀’에 대한 ‘그’의 기대는 ‘그녀가 일반적인 여자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화자가 의외라고 여긴 것은 ‘그녀가 기녀에 비해 그다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居然’은 화자의 강력한 불만이 담긴 주관적 감정을 나타낸다. ‘居然’은 때에 따라서 (58)처럼 ‘X比YW不了多少’의 뒤에 놓여서 ‘앞 문장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가사의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반기대 부사 ‘简直’를 살펴보겠다.

- (59) 他陡然记起自己没有吃午饭,一意识到这点,饥饿就猛扑过来,骑车简直比步行快不了多少。
그는 갑자기 자신이 점심을 먹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의식하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걷는 것보다 전혀 빠르지 않았다.
- (60) 当初我付高价买那些马来耕田,不是瞎了眼就是神志不清。它们的动作简直比在石子路上爬的乌龟快不了多少,我绝不会再上当了。
원래 나는 밭을 갈려고 비싸게 저 말들을 사 왔는데, 눈이 빼였는지,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다. 그것들의 동작은 자갈길에 기어 다니는 거북이보다도 그다지 빠를 것이 없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59)의 경우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보통 자전거의 주행 속도는 시

속 10~15km 정도이고, 성인의 보행 속도는 시속 5.4km로 둘 사이에는 2~3 배 차이가 난다. 그러나 화자가 점심을 먹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갑자기 힘이 빠져서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걸음걸이와 비슷할 정도로 느려진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걷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반기대 부사 ‘简直’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는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것을 강조한다.

(60)에서 화자는 비싼 돈을 주고 산 말이 농사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말이 둔하게 움직여서 농사짓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는 말을 구입하기 이전에 기대했던 상황과 어긋난다.

4.3 ‘W不到哪里去’ 구문

4.3.1 기대비교

4.2.2 에 따르면, 반기대비교는 화자가 청자의 예상과는 반대로 의견이나 결론을 표현하여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기대비교는 청자의 예상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결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不到哪里去’와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자.

(61) 江南来的茶叶, 一定差不到哪里去。

강남에서 온 차잎이니까 반드시 좋겠지요.

(61)에서는 강남(江南) 지역의 차와 다른 지역의 차를 비교한다. 강남 지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하며 적당한 강수량, 일조 시간, 기온 및 습도 등의 원인으로 차 재배와 품질 향상에 유리하다. 이에 강남 지역은 중국에서 녹차, 홍차, 우롱차 등 차(茶) 생산으로 유명하며, 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차의

품질은 중국에서 생산된 차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여겨진다. (61)에서 전달하려는 비교 관계는 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차의 품질을 기반으로 한다. 이 문장에서 ‘강남에서 온 차는 반드시 훌륭하다’는 표현은 강남지역 차의 품질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 즉, 화자는 江南의 차의 품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품질이 높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비교는 다른 지역 차의 품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차의 우위와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기대비교’로 간주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 예문의 첫 부분인 ‘江南来的茶叶’는 조건이고, ‘一定差不到哪里去’라는 후속 문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조건과 결론 사이에는 강남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품질은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62) “王世德。”我轻轻一笑，这么愚蠢的名字，人也一定好不到哪儿去。孩子也笑，“我们背后都叫他‘王缺德’”。

‘왕세덕.’ 나는 살며시 웃었다. 이런 어리석은 이름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인품도 틀림없이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아이도 웃으며 “우리는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왕결덕(王缺德)’이라고 부른다.”

(62)에서는 ‘왕세덕(王世德)’과 ‘왕결덕(王缺德)’의 이름이 유사함을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유사음(谐音)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사음(谐音)은 중국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 수사기술 중 하나로 언어의 운율감과 표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왕세덕(王世德)’이라는 이름에서 ‘세덕(世德)’이라는 단어는 원래 좋은 뜻이 있지만,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여 ‘왕세덕(王世德)’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암시한다. 또한 아이가 ‘우리 뒤에서 다 ‘왕결덕’이라고 불러요(我们背后都叫他‘王缺德’.)’라고 말함으로써 ‘뒤에서(背后)’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 별명이 비밀리에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적으로는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왕세덕(王世德)’이라는 이름의 평가와 아이가 뒤에서 ‘왕결덕(王缺德)’이라는 별명을 부르는 것 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는

이 사람에 대한 불만스러운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문화에서는 이름 짓기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이름은 사람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나쁜 이름은 불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왕세덕(王世德)’과 ‘왕결덕(王缺德)’ 사이에 암시적인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세덕(王世德)’의 인격이 나쁘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기대비교를 볼 수 있다. 아이가 ‘왕결덕(王缺德)’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왕세덕(王世德)’이라는 사람의 도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63) 世乱年荒，做人就讲究不到哪里去了。(例句转引：全国斌 2014)

세상이 어지럽고 흉년이 들자 사람의 도리를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

(63)에서는 사회 상황과 개인의 도덕적 규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세상이 어지럽고 흉년이 들자,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생존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기준과 행동 규범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63)의 ‘就’는 강조를 위한 어기부사로 동사 ‘중시하다(讲究)’의 앞에 위치하여 중시하는 정도를 강조하며, 해당 인물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63)의 ‘世乱年荒’은 맥락 조건이 되고 ‘做人就讲究不到哪里去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63)도 기대비교로 볼 수 있다.

(64) 我妈妈是学士，爹爹是博士呢！错不到哪里去了！

우리 엄마는 학사이고, 아빠는 박사야! 크게 틀리지 않을 거야!

(全国斌(2014)에 재인용)

(64)에서 화자는 자신의 부모가 모두 대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자신도 비슷한 고등 교육의 배경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이 문장에서는 어기사 ‘呢’를 사용하는데 중국어에서 ‘呢’는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문, 긍정, 강조, 재촉(催促)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64)에서는 강조의 역할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신의 가정교육 배경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화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64)는 반기대비교가 아니고 기대비교로 해석할 수 있다. 기대비교의 경우 화자는 합리적인 기대를 제시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문의 경우 화자는 먼저 자신의 어머니가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아버지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 두 가지 정보는 후속 문장의 ‘錯不到哪里去了’라는 말이 합리적이며, 사람들의 예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2 양태부사의 사용

‘W 不到哪里去’ 구문의 양태부사는 ‘自然’, ‘也’, ‘肯定’ 등의 순서로 설명한다.

江艳·任海波(2008)의 연구에 따르면, 양태부사 ‘自然’은 문장에서 어떤 사실이나 행동이 자연법칙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논리적 추론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며, 긍정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自然’은 객관성과 사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를 강조한다. 따라서 ‘自然’의 화용적 기능은 화자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어조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65) 此刻“成王府”的超级死对头死对头——少儒和語蘭。竟史無前例的並席而坐。可想而知，這頓飯的氣氛自然是好不到哪裡去¹⁰³⁾。

지금 ‘成王府’의 가장 강력한 숙적인 少儒와 語蘭이 뜻밖에도 전혀 없이 자리를 나란히 앉았다. 분명히 이 식사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고대 중국의 왕족 궁전인 ‘成王府’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103) 예문은 侯文玉·金鉉哲(2017)에서 재인용.

있다. ‘超級死對頭’라는 표현은 ‘少儒’와 ‘語蘭’이 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史無前例的並席而坐’라는 표현이 있어 이번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少儒’와 ‘語蘭’이 함께 앉아 이전에는 없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양태부사는 ‘自然’을 통해서 분위기를 표현하며, ‘這頓飯的氣氛自然是好不到哪裡去’라는 문장은 ‘成王府’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自然’의 화용적 기능은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을 나타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거나 또는 자연법칙에 따라 발전하다와 같이 사용된다. 이 경우 ‘自然’은 사물이 갖는 본래의 발전 규칙에 부합하거나 사람들의 경험과 습관에 부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W 不到哪里去’ 구문에서 제일 빈번하게 나온 부사는 ‘也’이다. 呂叔湘(1999:595)에 의하면 ‘也’는 두 가지 사물 같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두 가지 사물이나 개념이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66) 荷老是认为她的容貌比不上她，而她好像忘了她们是双胞胎了，不要说是脸孔，就连身高、体重和三围也差不到哪儿去，她怎么会老是羡慕她美丽？荷는 항상 자신보다 쌍둥이 동생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녀는 둘이 쌍둥이임을 잊어버린 듯하다. 얼굴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그리고 체형까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녀는 왜 자꾸 쌍둥이 동생의 미모를 부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67) 他会的我全会，比我也高明不到哪里去。不过他人挺好的，我们投机得很。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나도 다 안다. 그는 나보다 그다지 더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좋으므로 우리는 서로 잘 맞는다.
- (68) 他又变了，但还是一样‘鸭霸’，谁说善变是女人的权利？男人也差不到哪儿去啊！反正你给我乖乖留在我身边。
그는 또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나쁜 남자’다. 누가 변덕스러움은 여성의 권리라고 말했던가?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쨌든 넌 내 옆에 얌전히 있어야 해.

(66)은 부사 ‘也’를 통해 쌍둥이 자매간에 얼굴, 키, 체중, 그리고 외모 등의 비교한다. 쌍둥이 중 한 명의 이름은 ‘荷’인데, 그녀는 항상 쌍둥이 동생을 부러워한다. 심지어 둘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쌍둥이 동생을 부러워한다. 화자는 ‘荷’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단지 쌍둥이 동생의 외모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의심하며 신기해한다. (67)은 ‘也’를 통해 두 사람의 능력 차이를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68)는 여성과 남성의 행동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문 속에서 언급된 ‘善變’은 마음이 쉽게 바뀐다는 뜻이며, 이것이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양태부사 ‘也’를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지만, 결국 성별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행동과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肯定’의 사전¹⁰⁴⁾적 의미에 따르면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肯定’의 화용적 역할은 주로 화자가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거나, 어떤 사실을 강조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나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이로 인해 청자는 화자가 강조하려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예문이다.

(69) 凌晨三點才睡覺的人兒，隔天精神肯定好不到哪里去。

새벽 세 시에야 자는 사람은 다음 날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70) 一个人如果一辈子与好书为伴，他肯定差不到哪里去。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좋은 책과 함께한다면 그가 분명히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69)에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다음 날 머리가 맑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이것이 사실임을 말하는 이의 신뢰를 강조한다. 이 문장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你知我知) 경험적 지

104) 《现代汉语词典》第5版, p.777에서 참조.

식을 나타내며, 규칙적인 생활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화용론의 관점에서 ‘肯定’은 화자의 강한 확신을 표현하며 다음 날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70)에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인간의 자기 개발과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좋은 책을 읽으면 인간은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부사 ‘肯定’의 화용적 기능은 좋은 책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면서도 그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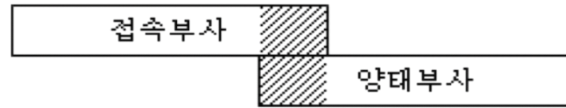
4.3.3 양태접속사의 사용

양태접속사라는 용어는 ‘양태’와 ‘접속사’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합친 말이다. 이 개념은 양태부사 또는 양태동사처럼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의 중국학자들은 대부분 문장 단위를 고려해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conjunction)’와 양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그러나 연구의 단위를 더 큰 범위를 보면, 즉, 담화 환경에서 텍스트 내부의 각 단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일종의 양태이다.¹⁰⁵⁾ 따라서 양태접속사는 문장의 의미와 관계를 구성하거나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 문법학계에서의 양태접속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¹⁰⁶⁾ 이후인(2015)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접속부사와 양태부사는 아래 표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105) 이후인(2015)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언급하는 바가 있다.

106) 이후인(2015)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양태접속부사’라고 칭한다. 한국어에서 이런 단어는 부사에도 속하고 접속사에도 속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하기는’, ‘하기야’, ‘하긴’, ‘다만’, ‘단지’ 등 양태접속부사가 그러하다. 이런 부사는 문장 부사라고도 한다.



〈그림 4-4〉 접속부사와 양태부사의 관련성(이후인, 2015:17에 가져옴)

아래의 표는 양태접속부사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이다.¹⁰⁷⁾

학자	접속부사
김선영 (2003)	곧,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고로, 그런데, 그런즉, 그렇지만, 그리고, 그리하여, 내지, 내지는, 다 만, 단, 더구나, 더욱이, 따라서, 또, 또는, 또한, 및, 왜냐 하면, 이리하여, 즉, 하기에, 하기에, 하나, 하지만, 한데, 한편, 혹은
서정주(2005)	<1> 대립 관계: 그러나, 그러하나, 그렇지만, 그러하지만, 그런데, 그러한데 <2> 양보 관계: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럴지라도, 그럴망정, 그럴지언정,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런데도 <3> 조건 관계: 그러면, 그리하면, 그리 하면, 그렇다면 <4> 인과 관계: 그러니까, 그러니,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따라서 <5> 부가 관계: 그밖에, 그 외에, 그런데다가, 더욱이, 게다가, 그리고
임유종(2005)	거기다, 게다가, 결국, 곧, 곧이어, 나아가 서, 단, 단지,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더군다나, 더욱이, 더욱이나, 도리어, 되려, 따라서, 만은, 때문에, 또, 또는, 또한, 말하자면, 물론, 반면(에), 보다시피, 비단, 뿐더러, 생각건대, 아무튼, 아무튼지, 아울러, 암튼, 어떻든, 어떻든지, 어 쨌건, 어쨌든, 어쨌든지, 어쨌다, 어쨌다가, 어쨌면, 어쨌지, 어쨌, 여하간, 여하튼, 여하튼지, 역시, 역으로, 예컨대, 오히려, 왜냐면, 왜냐하면, 외려, 요는, 요컨대, 이를테면, 일면, 일단, 적어도, 즉, 특히, 하여튼, 하여튼지, 한편, 혹, 혹간, 혹시, 혹시나, 혹여, 혹여나, 혹은, 하마터면, 하여간, 하여간에

〈표 4-4〉 한국어 접속부사의 분류 (이후인(2015:22-23)에서 재정리함)

107) 이 표는 이후인(2015:22-23)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함. 이후인(2015:22-23)의 논문에는 최현배(1937/1971), 남기힘, 고영근(1993) 등의 양태접속사 등의 분류 방법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김선영(2003), 서정주(2005), 임유종(2005) 등 세 학자들의 분류 방법을 재정리함.

그렇다면 양태접속의 요건은 무엇인가? 이후인(2015:24)에 의하면 양태 접속사의 요건은 화자 지향적이어야 하며, 선행 명제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선·후행 명제를 연결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양태접속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이후인(2015:42)에서 아래의 예문을 들어 양태접속사가 화자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지를 설명했다.

- (71) 고을 사정들은 비슷비슷하니 우리가 본때 있게 들고 일어서면, 다른 고을 사람들도 들썩일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 일이고 일부러 제대로 해치웁니다.¹⁰⁸⁾

이후인(2015)에 따르면, (71)에서는 화자가 처음에 봉기를 제안하고 있지만, 양태접속사인 ‘하여간’이 등장함으로써 초점은 현재 화자와 청자의 책임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양태접속사가 사용될 때는 후행 문장이나 담화에서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Google scholar 에서 검색해보면 ‘접속사와 양태’라는 논문은 헝가리어를 연구하는 논문에서 출현한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논의된 접속사의 예문을 살펴보자.

- (72) VAGY sok pénze volt, VAGY kevés, de János adott kölcsönt.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János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Banreti, Z. 1982:125)
- (73) Ha a “TÉLUTÓ”-t énekelte volna az énekesnő, akkor a közönség tapsolt volna.
만약 가수가 ‘TÉLUTÓ’를 불렀다면 관객들은 박수를 쳤을 것이다.
(Banreti, Z. 1982:119)

(72)에서 ‘vagy’라는 접속사는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108) 예문은 이후인(2015)에 재인용

즉, 많은 돈이 있거나 적은 돈이 있다는 두 가지 상황이다. 여기서 ‘de’ (하지만) 접속사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vagy’ 접속사가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든 이 사실은 여전히 참이다. János의 재정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János는 항상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 두 가지 가능성(돈이 있든 없든)과는 독립적이며, 이것이 ‘de’(하지만)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는 이유이다. (73)에서 ‘Ha’ (만약)는 후속 절이 발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가수가 노래 ‘TÉLUTÓ’를 부르는 행동은 관객이 박수를 치기 위한 조건이다. 예문 (72)과 (73)을 살펴보면 헝가리어에서 접속사와 양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즉, ‘vagy’ (또는)와 ‘ha’(만약) 접속사를 통해 화자의 어떤 입장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출현하는 양태접속사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절에서는 ‘W 不到哪里去’에 대한 말뭉치 언어 자료 조사를 통해 미세차이 비교구문에서 복문 출현의 상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不到哪里去’의 화용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74) 爱书的女生再坏也坏不到哪里去。

책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리 나빠도 크게 나쁘지 않다.

(75) 买股票就要买能让自己安心的票, 即使不看也知道它跌不到哪里去, 即使跌也是再次买入的机会, 碰到这种股票能让你有如此心态的股票, 你就买吧。

주식을 사려면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한다. 안 보더라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살 기회가 있음을 알아서, 심적으로 이런 느낌을 주는 주식을 만난다면 사도록 해라.

(76) 不过是个老头嘛, 就算长得再魁梧也厉害不到哪里去, 不是吗?

늙은이일 뿐이죠. (노인의) 체구가 아무리 건장하다 해도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77) 虽然天气预报的准确性一向高不到哪里去, 但是关于这一次的台风, 气象预报却是难得地十分准确。

비록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항상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번 태풍에 대한 기상예보는 실제로 모처럼 정확하다.

(78) 别训人, 因为你也好不到哪里去。

야단치지 마, 너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74)은 ‘再……也’ 강조구문, (75~76)는 양보관계복문, (77)은 전환관계복문, (78)은 인과관계복문이다. 이를 통해 ‘不到哪里去’ 구문은 인과·양보·조건 관계의 복문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복문의 화용적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3.3.1 ‘再……也’와 공기하는 경우

코퍼스 언어 자료를 살펴본 결과 ‘不到哪里去’ 미세차이 비교구문은 ‘再……也’ 구문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⁹⁾ 일반적으로 부사 ‘也’는 비교에 사용될 때 ‘동일함(类同)’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비교전항은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부사 ‘也’는 두 비교대상을 연결해서 비교 문맥을 만든다. 《现代汉语八百词》에 따르면, 부사 ‘再’는 ① 동작의 중복 혹은 지속의미를 표현하여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동작을 가리키거나, ② 형용사의 앞에서 정도의 증가를 나타낸다. ‘W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에서 ‘再’는 두 번째의 의미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79) 爱书的女生再坏也坏不到哪里去。

책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리 나빠도 크게 나쁘지 않다.

(80) 孝顺父母的人, 再坏也坏不到哪儿去。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빠 봤자 얼마나 나쁘겠어?

(81) 因为人们总是相信, 一个人还会脸红, 心肠再坏也坏不到哪里去。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인품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109) BCC 에서 “再*不到哪”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3 개 예문이 발견되었다.

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79~81)는 ‘책을 좋아하는 여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등 세 가지 유형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이 세 유형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품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들의 상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79)에서 중국인들은 책이 인간의 지식 향상의 계단이라고 생각한다. (80)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면 부모에 순종하며, 법규를 어기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1)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 ‘再’의 뒤에 ‘怎么’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삽입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장은 문법적으로 적격하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82) 单身汉的身外物再怎么多也多不到哪里去, 她一间绕过一间搜寻。不到十分钟就把整间公寓从里到外搜得彻彻底底。

독신남의 집은 아무리 많아 봤자 그리 많지 않았다. 그녀는 방을 한 칸 한 칸 돌아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집 전체를 뒤졌다.

(83) 只不过我懒得去追求时尚, 一个女人如果没有内在美, 外表再(怎么)时尚也时尚不到哪去, 我选择衣服只要大方得体就行, 无所谓时尚不时尚。

나는 패션을 따라가기 귀찮을 뿐이야. 여자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트렌디 해 봤자지 뭐. 내가 선택하는 옷은 단지 고상하고 품위가 있으면 되지, 유행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84) 由于她拥有漂亮发际线, 因此再怎么丑也丑不到哪里去。

그녀는 아름다운 헤어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

(82)에서 ‘再’는 극단량 표지이다. 부사 再에 극단량(极端量)을 나타내는 임의지칭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은 ‘再+형용사’가 양보구문에서만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보구문은 어떤 상황의 출현을 먼저 가정하지만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커다란 의미 차이를 통해 대비의 효과

를 부각시킬 수 있다. (82)에서 ‘再’는 극단량 표지이다. 전제는 ‘单身汉目前的 身外物’이다. ‘再’는 이 사람의 짐이 아무리 많다고 가정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즉, 10 분이면 전체의 짐을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83)은 화자의 ‘패션’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없다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패션의 세련됨’의 폭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84)에서 ‘丑不到哪里去’의 앞 문장 중에 이미 ‘漂亮发际线’ 근거가 먼저 제시되었다. 화자는 ‘漂亮发际线’이 아름다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漂亮发际线’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아무리 못생겨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再怎么……也……’는 의외의 정보나 주관적 화용 정보를 전달한다. 이 구조에서 ‘再’는 [+정도심화] [+중첩상승(重叠上升)]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또한 ‘정도의 측면에서 극단적 정도에 도달함’에 대한 인식은 객관 사물을 참조로 한 비교로 얻어낸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 심리와 인상도 포함된다. 화자의 생각에는 여자는 아무리 못생겨도 예쁜 헤어라인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미모에 대한 인식 자체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태도를 나타낸다.

4.3.3.2 ‘即使’를 동반하는 경우

吕叔湘(1999:289-290)에 의하면, ‘即使’는 가설 또는 양보를 나타낸다. 그는 의미에 근거해 ‘即使’를 다음 두 가지 의미항으로 구분하였다.

A. 앞뒤 부분은 관련된 두 사건을 가리키며, 앞쪽은 가설의 상황을 나타내고, 뒤쪽은 결과·결론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 a. 即使你说错了也不要紧。
당신이 잘못 말했더라도 긴장하지 마세요.
- b. 即使下雨了也要去。

비가 내리더라도 가야 한다.

B. 앞뒤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나타낸다. 뒤쪽 일부는 한 걸음 물러서는 예측을 나타낸다.

- a. 即使下雨也不会太大。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b. 电影票即使有也不多了。
영화표가 있더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呂叔湘(1999:289)에 의하면 A는 비현실성을 강조하는 반면, B는 현실성을 강조한다. B(a)는 앞으로 있을 날씨에 대한 예측을 나타낸다. B(b)는 영화표의 판매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A와 대응하는 영어는 ‘even if’이며, B에 대응되는 영어는 ‘even though’이다.

본고에서는 양태 접속사 ‘即使’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양태 접속사 ‘即使’의 의미항	의미자질
A	비현실성 (non-veridicality)	[가설]
B	현실성 (veridicality) ¹¹⁰⁾	[양보]

〈표 4-5〉 양태 접속사 ‘即使’의 분류

위의 <표 4-5>에서 보듯이, 양태접속사 ‘即使’는 ‘假设’, ‘让步’ 등의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即使’가 ‘假设’와 ‘让步’의 의미를 지닐 때 미세차이 비교구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85) “……好像我上班还没受够似的，”她说。恩斯丽在一家电动牙刷公司里当检验师，专门检查电动牙刷的质量，是个临时性的工作。她希望能开一家

110) veridicality 라는 용어는 Pinter, Y. (2014)에서 참고함.

小画廊, 即使赚不到哪里去也无所谓, 她只是希望同画家交朋友。

그녀는 말했다. “……나는 아직 출근을 참을 만큼 참지는 못하는 것 같아.” 恩斯丽는 전동칫솔 회사의 검사원으로서, 전문적으로 전동칫솔의 품질검사를 맡고 있는 임시 직원이다. 그녀는 작은 화랑을 열길 희망한다. 돈은 얼마 벌지 못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으며, 그녀는 그저 화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할 뿐이다.

- (86) 如果你给消费者提供价格实惠的食物, 自己获利很少, 你就只能给员工最低工资。而且你不得不减少不必要的开销, 甚至降低工作效率: 这就是在小饭馆常见到老奶奶在前台招呼, 小孩儿在后台洗碗的原因, 即使高档餐厅也好不到哪里去, 像米其林这样的星级评分系统为激烈的竞争推波助澜, 主厨们都快要被逼疯了。竞争生态系统把人变得冷酷无情, 甚至剥夺了人的生命。

만약 당신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고 스스로 이익을 적게 낸다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심지어 작업효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음식점에서 자주 보여지는 할머니가 데스크에서 인사하고, 어린아이가 뒤편에서 설거지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고급식당도 딱히 나을 것도 없다. 미쉐린과 같은 별점 체계는 치열한 경쟁으로 부채질하니 셰프들은 돌아버릴 지경이다. 경쟁적 생태 시스템은 사람을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다.

(85), (86)은 각각 ‘即使+비교구문+也’와 ‘即使+也+비교구문’의 두 가지 비교구문이다. (85)에서 ‘赚不到哪里’는 작은 규모의 화랑에서 벌어들일 수입이 지금 ‘检验师’의 수입보다 못할 것임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 (86)에서 ‘好不到哪里去’는 고급식당과 소규모 식당의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나타낸다. 이는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고급식당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의 경쟁에 직면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4.3.3.3 ‘就算’을 동반하는 경우

위의 (76)에서 ‘就算’은 고빈도로 사용되는 어휘로 《现代汉语八百词》에서는 ‘가정을 나타내는 양보 접속사’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就’는 어떤 사물이 어떤 범주에 속한다고 가정해서 가정한 심리적 기준이 예상했던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算’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就算’을 사용하는 문장에는 대조적인 참조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조물은 현실에 존재할 수도 있고, 화자의 인식에 존재할 수도 있다.

- (87) 不过是个老头嘛，就算长得再魁梧也厉害不到哪里去，不是吗？
 늙은이일 뿐이잖아. (노인의) 체구가 아무리 건장해도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 (88) 子斌反应极快，他迅速抚一下脸，拉一下衣服：满面油污，一身灰尘的他，就算不像个叫化子也好不到哪里去。
 子斌의 반응은 극도로 빨랐다. 그는 재빨리 얼굴을 쓰다듬고 옷을 잡아당겼다. 얼굴에는 기름때가 가득하고 온몸은 먼지투성이였다. 거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딱히 나을 것이 없었다.

(87)의 ‘就算’은 [+정도가 깊음]의 의미가 있다. ‘魁梧’에는 양의 변화가 존재한다. (87)에서의 전제는 ‘남자는 덩치만 크면 대단하다’인데, 이러한 전제는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종의 상식이다. 그러나 화자는 ‘거창함’과 ‘세다’의 관계는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일 뿐이며, ‘不过’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상상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88)의 참조물은 현실 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직업인 ‘거지(叫化子)’이다. ‘子斌’은 자신과 거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앞글에서 ‘기름때 투성이, 먼지투성이(满面油污, 一身灰尘)’라는 전형적인 거지의 외모를 묘사했다.

- (89) 第一人脚步沉稳，下身显然很有功夫，南拳北腿，赵正义是北方豪杰，功夫都在两条腿。第二人的脚步很重，却很浮，走进来时，还在轻轻喘着气，这人身上就算有武功，也好不到哪里去。

첫 번째 사람은 발걸음이 침착하고 하체는 내공이 있음이 드러난다. 남권 북퇴(南拳北腿¹¹¹). 赵正义는 북방의 호걸이다. 내공은 모두 두 다리에 있다. 두 번째 사람의 걸음걸이는 매우 무겁지만 떠 있는 듯하며 걸어 들어왔을 때 여전히 가볍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 사람이 몸에는 아무리 내공이 있다고 해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 (90) 就算不论输赢，会拿身体当赌注，怎么看都高级不到哪里去！

승패를 막론하고, 자기의 몸으로 내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아도 수준이 높지 않다.

(89)은 ‘第一人’과 ‘第二人’의 무공 실력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발걸음은 차분하나 두 번째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 숨도 찬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후자의 무공은 아무리 해봤자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0)에서 화자는 ‘몸을 건다(‘拿身体当赌注’)'면 결과적으로 이기든 지든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체를 팔지 말고 스스로 노력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怎么’를 사용하면 최고 정도를 강조한다.

4.3.3.4 ‘虽然’을 동반하는 경우

위의 (77)에서 ‘虽然’은 양보접속사 ‘虽’와 지시대명사 ‘然’의 연용으로 만들어졌는데, 현대중국어에서는 주로 사실적인 양보의미를 나타내며, 기존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虽然’은 문장 속에서 대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종속절과 주절은 대조를 이룬다.

111) 南拳北腿 : 주먹을 주로 사용하는 남쪽 무술과 다리를 주로 사용하는 북쪽 무술

- (91) 她的英文程度虽不太糟, 但也好不到哪里去。毕竟学中文的人, 只要管好自己本科系就成了, 哪有多余的时间去学习第二外国语?
그녀의 영어 수준은 비록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중문과 사람인데, 본인 소속 전공이나 잘 관리하면 되지 어떻게 제2외국어를 배울 여유 시간이 있겠는가?
- (92) 虽然天气预报的准确性一向高不到哪里去, 但是关于这一次的台风, 气象预报却是难得地十分准确。
비록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항상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번 태풍에 대한 기상예보는 실제로 모처럼 정확하다.

(91)의 ‘虽’는 첫 문장 ‘그녀의 영어 수준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她的英文程度不太糟)’와 후술하는 상황인 ‘好不到哪里去’ 사이에서 대비의 바탕이 된다. ‘虽’의 역할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전환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화자는 이어서 ‘她的英文程度不高’의 이유를 설명한다. 전공이 중문학 과라서 외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92)에서 화자는 ‘天气预报一向准确性不高’라고 생각한다. 그의 원래 생각에 따르면 과거 날씨 예보의 결과를 볼 때 이번 태풍 예보도 정확하지 않을 것이나 여기에서 ‘虽然’을 사용해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대조를 보여준다. 이런 대비는 독자에게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강한 대조를 이룬다.

‘虽然’은 전치접속사로 대부분은 앞 문장에 위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뒤 문장으로 옮겨서 보충적 추가의 역할을 하게 된다.

- (93) 二荷和群龙的父亲是银行的职员, 挣的比小墩子她爹多。虽说也多不到哪儿去。
二荷와 群龙的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小墩子的 아버지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비록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말이다.
- (94) 不过最近他的好多大学同学都买了新的数码相机, 虽然拍摄的效果比他的也好不到哪里去。
그러나 최근 그의 대학 동기들이 새로운 디지털카메라를 샀다. 비록 촬영 효과는 그의 사진보다 그다지 좋지 않지만 말이다.

(93~94)에서 ‘虽然’는 뒤 분문에 위치하는데, 중국어 ‘정보 초점’의 영향을 받는다. 뒤 분문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중점으로 정보 초점을 나타낸다. (93)는 ‘二荷和群龙的父亲’과 ‘小墩子她爹’의 월급을 비교한다. 이때 강조하는 정보는, 은행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방식의 해석으로, (94)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의 성능 차이를 비교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정보는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도 그저 평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부럽지 않다는 화용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4.3.3.5 ‘인과 복문’을 동반하는 경우

어떤 경우 ‘W 不到哪里去’ 구문은 인과관계 복문의 종속절(偏句)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제한적인 조건을 통해 원인을 설명하기도 한다. 인과관계 복문 중 종속절(偏句)은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고, 주절(正句)은 결과를 설명한다. ‘W 不到哪里去’ 비교구문은 화자가 주관적인 판단(主观评判)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먼저 관련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95) 我劝他不要买房子，他终于答应考虑我的建议，我只希望她的考虑不要这么久，因为房价已经涨不到哪里去了。

나는 그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권했는데 결국 나의 건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단지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미 더이상 오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96) 别训人，因为你也好不到哪里去。

야단치지 마. 너도 딱히 나을 것 없어.

(95)에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유는 지금의 집값이 이미 최고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96)에서 화자는 관찰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타인을 야단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자신의 사람됨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상대방을 야단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단문뿐만 아니라 ‘W 不到哪里去’는 대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협력의 원칙에 따라 서로 의견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Ford(1994)는 화자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because’를 도입하여 자신의 관점을 더 설명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97) a: 你一个月工资多少呢?

b: 六百块。

a: 那么少吗?

b: 还好啦, 一个月几百块完全可以养活我自己的, 相信肯定还有得剩, 因为吃饭也用不到哪里去。

a: 한 달 월급이 얼마야?

b: 육백 위안이야.

a: 그렇게 적어?

b: 괜찮아, 한 달에 몇 백 위안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남기도 할 걸. 나는 밥 먹는 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

(97)는 급여의 많고 적음에 대한 대화이다. a의 질문에 대해 b는 처음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이어서 a는 의혹과 놀라움을 표현했고, b는 ‘吃饭用不到哪里去’의 주관적 추론에 앞서 ‘因为’를 사용하여 실제 지출은 적다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했다.

4.4 소결

본 장에서는 ‘X 比 YW 一些’ 구문, ‘X 比 YW 不了多少’ 구문, ‘W 不到哪里去’ 구문의 세 가지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화용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우선 ‘X比YW一些’ 구문은 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양태부사, 양태동사 등을 부가함으로써 화자의 주관적 감정과 판단을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양태부사의 경우 ‘一些’ 비교구문은 고빈도 부사, 기대부합부사, 제한적 부사, 중성 기대부사 등의 사용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在水底下, 人总比鱼要差一些.” 등과 같이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물고기에 비해 물속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관련이 있다. 고빈도 부사 ‘总’을 부가함으로써 이런 상식을 한 층 더 강조시킬 수 있다. 기대부합 부사인 ‘的确’, ‘确实’, ‘诚然’ 등 역시 유사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一些’ 비교구문에 제한적 부사인 ‘稍’, ‘略’, ‘稍微’, ‘稍稍’, ‘略微’, ‘略为’, ‘稍许’ 등과 공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검색되었다. 이런 부사를 통해 화자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미세한 차이를 한층 더 강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기대 부사인 ‘反而’, ‘居然’의 경우 화자의 의외성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一些’ 비교구문에서는 자주 출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양태동사와 공기하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화자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양태동사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는 Palmer(2001)의 영어에서의 양태동사에 대한 서술을 기반으로 ‘一些’ 비교구문의 주관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이 구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양태동사 ‘要’, ‘能’, ‘会’ 등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如果每个人都关心自己的事, 地球就会比现在转得快一些。” 등과 같이 양태부사인 ‘会’가 쓰이면 지구의 속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화자의 주관적이 판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一些’ 비교문의 주관성은 구문 자체가 아니라 양태동사를 통해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X比YW不了多少’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양태부사와의 관련뿐만 아니라 과장식비교와 반기대비교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과장식비교는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과장의 정

도에 따라서 비유식 과장, 부각식 과장, 대비식 과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장식 비교는 일반적으로 X와 Y가 동일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他的死比泰山轻不了多少。” 등과 같이 ‘泰山’은 무게와 관련이 있지만 ‘死’는 무게의 개념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他的死’의 의미가 ‘泰山’에 투사되어 ‘가치 있는 죽음’으로 전이되었으며, 문장 전체는 과장의 수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유사성을 통해 비교대상을 연결해 연상할 수 있도록 환기시킴으로써 구체적 개념인 ‘泰山’을 추상적 개념인 ‘死’의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둘째, Dahl(2001)이 제시한 중성정보, 반기대정보, 기대정보의 관점에서 ‘不了多少’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고찰했다. 이 구문은 대화문이나 독백의 맥락에서 ‘发现’, ‘猜想’, ‘看来’ 등과 공기하여 주로 화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셋째, 양태부사 ‘其实’, ‘居然’, ‘简直’ 등과 같은 반기대 부사가 같이 공기하여 의외성을 강조하는 경우 쓰인다.

마지막으로 ‘W不到哪里去’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고찰했다. ‘不到哪里去’ 구문의 주관성은 양태부사, 양태접속사뿐만 아니라 기대비교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첫째, 기대비교는 화자의 예상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결론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대비교는 일반 문맥을 통해 나타내는 경우가 대체로 “江南来的茶叶, 一定差不到哪里去.”와 같은 문장처럼 화자와 청자가 이미 강남 지역이 중국 차의 주요 산지로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좋은 품질일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양태부사 ‘当然’, ‘肯定’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화자의 합리적인 추측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凌晨三点才睡觉的人儿, 隔天精神肯定好不到哪里去.”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새벽 3시에 자는 사람의 다음 날의 정신 상태는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셋째, 양태접속사 ‘再……也’, ‘即使’, ‘就算’ 등을 통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别训人, 因为你也好不到哪里去.”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因为’를 통해서 상대방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양보’를 나타내는 단문이나 ‘인과’와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 쓰여 화자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주요한 수단을 나타낸다.

제5장 결 론

본고는 의미 기능이 유사한 ‘W 一些’, ‘W 不了多少’, ‘W 不到哪里去’ 등 세 가지 미세차이 비교구문의 특성과 각 구문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본고는 다음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각 구문의 비교결과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무엇인가? 둘째, 각 구문의 의미 특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각 구문의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관계는 어떠한가? 본고는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탐구하였다.

(1) 세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W 一些’ 구문의 경우, 비교결과항인 W에는 성질 형용사뿐만 아니라 심리 동사, 동보구조, ‘有’+추상명사 등이 쓰인다. 심리 동사, 동보구조, ‘有’+추상명사 등 동사(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모두 형용사처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W 不了多少’ 구문의 경우, 비교결과항에는 주로 형용사가 쓰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도량 형용사와 ‘高明’과 같은 평가적 형용사가 쓰인다.

셋째, ‘W 不到哪里去’ 구문의 경우, 비교결과항에 놓일 수 있는 형용사는 앞서 살펴본 두 구문보다 더 제한적이었는데 주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 ‘好’, ‘坏’, ‘差’ 등 3개 형용사가 많이 쓰였다.

넷째, ‘W 一些’ 구문의 경우, 기타 두 구문과 달리 비교항으로 2개 형용사가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단음절 형용사가 두 개 병렬되어 쓰이는 경우 안정적인 운율 구조를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세 비교구문의 의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W 一些’ 구문이 객관적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 동질성을 가진 두 비교항목을 비교하거나 두 비교항목의 비교점이 동질성을 띠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차등비교의 경우, 동등비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W 不了多少’ 구문은 객관적 비교, 차등비교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비교결과항의 ‘不’로 인해 동등비교, 반향비교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보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반향비교의 경우, 비교객체의 위치에 해당 속성을 가진 가장 낮은 비교대상이 등장하며, 따라서 화자는 비교기준점이 가장 낮은 비교객체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주체가 비교객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W 不到哪里去’ 구문은 크게 주관적 비교, 동등비교, 반향비교, 증거성 비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화자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증거성 비교의 경우 화자는 문장의 앞부분에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근거(증거)를 제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세 비교구문의 화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W 一些’ 구문은 양태부사와 공기할 때 기대부합 부사와 공기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이 보이는데, ‘的确’, ‘确实’, ‘诚然’ 등이 그러하다. 이는 화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거의 없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비교이다. 또한, 양태부사 중 稍微系부사인 ‘稍’, ‘略’, ‘稍微’, ‘稍稍’, ‘略微’, ‘略为’, ‘稍许’ 등과 공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화자는 이런 부사를 통해 비교주체와 비교객체 간에 미세한 차이를 한층 더 강조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反而’, ‘居然’와 같은 반기대 부사는 의외성의 의미를 가지므로 ‘W 一些’ 비교문의 객관성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양태동사와 공기하는 경우, ‘W 一些’ 구문에서 양태동사인 ‘要’, ‘能’, ‘会’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이들은 해당 정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감정을 나타낸다.

둘째, ‘W 不了多少’ 구문은 화자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물의 본질을 극대화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과장 수법을 사용한다. 과장식 비교는 비유식 과장, 부각식 과장, 대비식 과장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반기대비교의 경우 화자의 기대와 반대, 청자의 기대와 반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어떤 사회공동체의 배경 지식과 반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发现’, ‘猜想’, ‘看来’, ‘觉得’, ‘在我眼中’ 등을 발화에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반기대 정보를 표현한다. ‘W 不了多少’ 구문은 양태부사도 공기하여 쓰이는데 주로 ‘简直’, ‘竟然’ 등 의외성의 의미를 지니는 양태부사를 사용해 화자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나타낸다.

셋째, ‘W 不到哪里去’ 구문은 전체 사회 공동체의 관념을 반영하는 구문이 많으며, 세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우선, 양태 접속사인 ‘再……也’, ‘即使’, ‘就算’ 등을 통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인과’,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의 선행문에 쓰여 화자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주요한 수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양태부사 ‘当然’, ‘肯定’ 등과 공기하여 화자의 합리적인 추측을 강조하는 데 쓰인다. 마지막으로, 이 구문은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태부사나 양태접속사의 도움 없이도 문맥을 통해 화자의 비난이나 불만 등의 감정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완곡한 표현의 뒷면에는 예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연구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처음으로 ‘미세차이 비교구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비교구문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비교구문 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중국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거시적인 틀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고, 비교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화자의 비교 의도를 탐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특정

한 비교구문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미세차이 비교구문이라는 범주 속에서 유사한 세 가지 비교 구문을 연구했는데, 이는 더 다양한 측면을 고찰할 수 있어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고는 실제 사용 텍스트를 기반으로 대량의 예문을 분석했다. 예문을 분석할 때 연구자 개인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예문에 대한 정문과 비문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은 실제로 대규모의 예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언어 규칙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어는 담화 환경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본고는 BCC의 대량 실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출현 빈도를 일일이 조사하였다.

셋째, 본고는 주관화이론을 기반으로 화자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어떤 주관적인 의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两人同班了十多年, 感情当然比别人要好一些。”라는 문장에서 화자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양태부사인 ‘当然’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你爸爸没出息, 你也好不到哪里去。”라는 예문은 한 사람의 성공 여부가 가정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관점인 ‘아빠가 영웅이면 아들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문화적인 의식을 담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비교의도로 고찰하고, 비교에 담긴 문화적인 의식도 고찰하였다.

넷째, 교육적 관점에서 중국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교재에서 ‘W 一些’ 구문은 이미 필수적인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유사한 ‘W 不了多少’ 구문과 ‘W 不到哪里去’ 구문은 중국어 교재에서 아직 문법 항목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두 구문의 독특한 화용적 기능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구문을 학습하면 중국인만의 독특한 사유 방식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의 연구는, 세 구문의 차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고는 미세차이 비교구문에 대해 공시적인 고찰만 진행하였다. 앞으로 통시적인 검토도 이루어진다면 이 세 구문의 발전과정 및 이들의 화용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런 미세차이 비교구문을 어떤 경우에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 회피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학위논문〉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刘娜(2013), 〈현대중국어 열등비교 범주의 인지적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单威(2017), 〈现代汉语偏离预期表达式研究〉, 吉林大学 博士学位论文.

郭娜(2005), 〈三种类型否定比较句之比较〉, 辽宁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郭帅(2021), 〈对外汉语教学视角下的汉韩比较句对比研究〉, 山西大学 硕士学位论文.

卢博敏(2020), 〈框式结构“A 不了多少”及其偏误研究〉, 南昌大学 硕士学位论文.

朴敏浚(2017), 〈基于细粒度语言学知识的“比”字句分析模型及计算应用〉, 北京大学 博士学位论文.

史银铃(2003), 〈现代汉语“差比句”研究〉, 中国社会科学院 博士学位论文.

孙楠(2012), 〈现代汉语转折副词的反预期标记功能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吴瑛健(2013), 〈否定比较句“A 比 B 还不 C”和“A 还不如 BC”对比研究〉, 哈尔滨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吴庸(2015), 〈汉语隐性比较构式的认知研究〉, 西南大学 博士学位论文.

夏芳芳(2011), 〈“A 不到哪里去”的构式解析及其理据性探究〉,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谢白羽(2011), 〈面向对外汉语教学的比较句研究〉, 华东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杨琳(2007), 〈稍微系程度副词的句法语义研究〉, 华中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曾艳(2001), 〈现代汉语“有”字比较句考察〉, 华中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张平(2004), 〈“A 点儿+V”与“V+A 点儿”〉, 湖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张雪梅(2016), 〈现代汉语形容词的程度量研究〉, 上海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郑慧仁(2013), 〈东北亚语言比较标记的类型学研究〉, 北京大学 博士学位论文.
 周丁钉(2013), 〈“A(好)像/仿佛 B 一样 C”格式考察〉, 华中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文.

〈소논문〉

고창운(1987), 〈전제 개념과 국어의 전제 분석〉, 《겨레어문학》 12, 375-394.
 김은희(2002), 〈現代漢語中常用的表示比較的詞語〉, 《중국어문학논집》 20, 229-248.
 문금현(2004), 〈前提의 유형〉, 《한국어 의미학》 14, 223-254.
 박민준(2018), 〈중국어 동등 비교문의 양면성: 質比와 量比: ‘與’, ‘有’ 비교문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72, 29-51.
 오경숙(2003), 〈‘보다’ 비교구문의 의미와 정도성〉, 《국어학》 41, 277-306.
 李娜旻 · 崔宰榮(2022), 〈현대중국어 양상부사 연구 - 양상부사의 특징, 범위, 하위분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36, 109-142.
 전기정(2018), 〈중국어와 한국어 복문의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112, 81-105.
 초육매(2016), 〈不定量詞‘點兒’與‘些’的比較研究〉, 《중국어학보》 76, 3-29.
 하길중(1998), 〈비교와 비유의 의미: 비교와 직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7, 321-343.
 허성도(1985), 〈중국어 비교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否定接头静态动词의 존재 가능성〉, 《어학연구》 21(3), 289-307.
 후문옥 · 김현철(2017), 〈현대중국어 주관소량 구문 ‘X 不到哪裡去’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07, 85-106.
 侯文玉 · 金鉉哲(2023), 〈현대중국어 ‘X 不到哪裡去’ 구문의 형성 원인과 기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38, 51-67.
 LIANG JIANFEN(2018), 〈미세 차이 표현의 세 가지 비교 구문 분석 - 부사의 반기대 기능의 관점에서〉, 《중국어언어연구》 76, 1-24.
 陈昌来 · 占云芬(2009), 〈“多少”的词汇化, 虚化及其主观量〉, 《汉语学报》 (3),

8-15.

陈珺·周小兵(2005), 〈比较句语法项目的选取和排序〉, 《语言教学与研究》 (2), 22-33.

陈立民(2005), 〈也说“就”和“才”〉, 《当代语言学》 7(1), 16-34.

陈冰飞·郭桃梅(2012), 〈汉语级差词项“一些”的语义-语用解读〉, 《外语学刊》 (6), 63-68.

邓凤民(2012), 〈汉语比较标记和差比句语序类型〉, 《汉语学习》 (2), 36-44.

丁晓菲(2019), 〈两种偏指小量构式在对外汉语中的教学——“A 不到哪里去”和“A 不了多少”〉, 《大众文艺》 9, 230-231.

谷峰(2014), 〈汉语反预期标记研究综述〉, 《汉语学习》 (4), 80-87.

郭若祺(2022), 〈主观限量构式“A 不了多少”的语用表达及教学策略〉,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Teaching》 2(2), 1-12.

胡斌彬(2010), 〈先秦“于”字比较句考察〉, 《宁夏大学学报》 (2), 74-76.

胡雷(2008), 〈从“主观量”和“客观量”的角度看“一些”和“一点儿”〉, 《内蒙古农业大学学报》 10(2), 341-342.

胡盛伦·王健慈(1989), 〈疑问代词的任指用法及其句式〉, 《汉语学习》 6, 8-11.

黄晓惠(1992), 〈现代汉语差比格式的来源及演变〉, 《中国语文》 3(3), 213-224.

姜南(2016), 〈汉语比较句的混同发展与分立定型〉, 《语言教学与研究》 (5), 55-63.

江艳·任海波(2008), 〈“自然”与“当然”的对比分析〉, 《齐齐哈尔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6), 56-57.

李蓝(2003), 〈现代汉语方言差比句的语序类型〉, 《方言》 (3), 214-232.

李梦梦(2018), 〈“V/A 不到哪里去”格式表物量的研究〉, 《汉字文化》 23.

李 讷·石毓智(1998), 〈汉语比较句嬗变的动因〉, 《世界汉语教学》 (3), 16-28.

梁建芬(2018), 〈“X 比 YW 不了多少”格式的夸张功能〉,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

梁建芬(2021), 〈先秦与魏晋南北朝时期汉语比较结构的来源及标注方式〉, 《中国文字研究》 33, 181-188.

- 廖秋忠(1991),〈篇章与语用和句法研究〉,《语言教学与研究》(4), 16-44.
- 刘丹青(2003),〈差比句的调查框架与研究思路〉,《现代语言学理论与中国少数民族语言研究》,北京:民族出版社, 1-22.
- 刘丹青(2012),〈汉语差比句和话题结构的同构性:显赫范畴的扩张力一例〉,《语言研究》32(4), 1-12.
- 刘芬·石毓智(2020),〈语法系统对构式选择的制约 -- 英汉比较结构差异的原因〉,《外国语》43(2), 2-8.
- 刘慧英(1992),〈小议“比”字句内比较项的不对称结构〉,《汉语学习》(5), 17-20.
- 陆俭明(1980),〈“还”和“更”〉,《语言学论丛》第六辑,北京:商务印书馆.
- 陆俭明(1989),〈说量度形容词〉,《语言教学与研究》(3), 46-59.
- 陆俭明(1990),〈“VA了”述补结构语义分析〉,《汉语学习》(1), 1-6.
- 马赫(2016),〈“像……一样”结构中的以人“设喻”与“比较”研究〉,《滇西科技师范学院学报》(2), 57-62.
- 马庆株(1992),〈与“(一)点儿”、“差(一)点儿”相关的句法语义问题〉,《汉语语义语法范畴问题》,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 马真(1985),〈“稍微”和“多少”〉,《语言教学研究》(3), 30-33.
- 钱毓英(2008),〈“多少”语法功能演变略探〉,《语文学刊》(5), 115-118.
- 任海波(1987),〈现代汉语“比”字句结论项的类型〉,《语言教学与研究》(4), 91-103.
- 邵敬敏·刘焱(2002),〈比字句强制性语义要求的句法表现〉,《汉语学习》(5), 1-7.
- 沈红丹(2003),〈含有“还”的比字句的语用分析〉,《杭州师范学院学报》(6), 27-29.
- 沈家煊(1995),〈“有界”与“无界”〉,《中国语文》(5), 367-380.
- 沈家煊(2001a),〈跟副词“还”有关的两个句式〉,《中国语文》(6), 483-493.
- 沈家煊(2001b),〈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外语教学与研究》(4), 268-275.
- 沈开木(2000),〈说“A 不了多少”〉,《语文月刊》(005), 13-14.
- 孙艳霞·刘向晖(2017),〈汉语比较句习得研究综述〉,《科教导刊》29, 161-162.

- 全国斌(2014), 〈汉语里的两个相对待的夸张构式——谈处于构式连续统中的“A 了去了”与“A 不到哪里去了”〉, 《汉语学习》 (5), 74-79.
- 魏培泉(2009), 〈中古漢語時期漢文佛典的比擬式〉, 《臺大文史哲學報》 70, 29-53.
- 文全民(2008), 〈“更”和“还”在肯定与否定比较句中的差异〉, 《世界汉语教学》 (1), 58-67.
- 吴福祥(2002), 〈汉语能性述补结构“V 得/不 C”的语法化〉, 《中国语文》 (1), 29-40.
- 吴福祥(2004), 〈试说“X 不比 YZ”的语用功能〉, 《中国语文》 (3), 222-231.
- 吴为善·夏芳芳(2011), 〈“A 不到哪里去”的构式解析, 话语功能及其成因〉, 《中国语文》 (4), 326-333.
- 相原茂(1992), 〈汉语比较句的两种否定形式——“不比”型和“没有”型〉, 《语言教学与研究》 (3), 73-87.
- 谢仁友(2006), 〈现代汉语歧义句式“X 不比 Y·Z”的语义类型〉, 《语文研究》 (2), 23-28.
- 许国萍(1996), 〈“比”字句研究综述〉, 《汉语学习》 (6), 28-31.
- 杨艳·江荻(2016), 〈彝语支语言差比句的比较标记〉, 《玉溪师范学院学报》 (1), 34-43.
- 杨彩影·石高峰·柴省三(2020), 〈基于语料库的副词“稍微”的句法语义研究〉, 《海外华文教育》 (2), 7.
- 叶诗雨(2016), 〈初级汉语水平的对外汉语比较句教学设计〉, 《艺术科技》 29(4), 358-359.
- 易琪妹·邹杨(2021), 〈“A 也 A 不到哪里去”的成因及其构式义分析〉, 《汉学与国际中文教育》 (1), 85-94.
- 殷志平(1995), 〈“X 比 Y 还 W”的两种功能〉, 《中国语文》 (2), 105-106.
- 袁毓林(2000), 〈论否定句的焦点, 预设和辖域歧义〉, 《中国语文》 (2), 99-108.
- 袁毓林(2008), 〈反预期, 递进关系和语用尺度的类型——“甚至”和“反而”的语义功能比较〉, 《当代语言学》 10(2), 109-121.

【参考文献】

- 岳辉·郭若祺(2021),〈量差与量否:“A 不了多少”“A 不到哪里去”〉,《东北师大学报》第 5 期.
- 张伯江(1997),〈认识观的语法表现〉,《国外语言学》2(3).
- 张雪梅(2015),〈“A 不了多少”格式的语义,话语功能及成因分析〉,《文教资料》(11), 18-19.
- 张谊生(2000),〈评注性副词功能琐议〉,《语法研究和探索》(十),北京:商务印书馆.
- 张豫峰(1999),〈表比较的“有”字句〉,《汉语学习》(4), 25-29.
- 张赅(2005),〈从汉语比较句看历时演变与共时地理分布的关系〉,《语文研究》(1), 43-48.
- 张和友(2002),〈差比句否定形式的语义特征及其语用解释〉,《汉语学习》(5), 8-13.
- 周有斌·邵敬敏(1993),〈汉语心理动词及其句型〉,《语文研究》(3), 32-36.
- 朱德熙(1956),〈现代汉语形容词研究〉,《语言研究》1(1), 1-37.
- 宗守云(2011),〈“X 比 Y 还 W”的构式意义及其与“X 比 Y 更 W”的差异〉,《华文教学与研究》(4), 79-85.
- Banreti, Z. (1982), “Conjunctions and Modality: A Special Conjunction Pair in Hungarian”, *Acta Linguistic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32(1/4), 103-139.
- Benveniste, E. (1971), “Subjectivity in language”,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1, 223-30.
- Chierchia, G.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4), 339-405.
- Dahl, Östen (2001), “Grammaticalization and the life cycles of constructions”, *RASK-International tidsskrift for sprog og kommunikation* 14, 91-134.
- Ford, C. E. (1994), Dialogic aspects of talk and writing: Because on the interactive-edited continuum, *Text-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14(4), 531-554.

- Fraser, B. (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14(3), 383-398.
- Fraser, B. (1998),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Pragmatics and Beyond New Series*, 301-326.
- Jasinskaja, K. (2012), "Correction by adversative and additive markers", *Lingua* 122(15), 1899-1918.
- Kennedy, C., & McNally, L. (2005), "Scale structure, degree modification, and the semantics of gradable predicates", *Language*, 345-381.
- Kreuz, R. J., Roberts, R. M., Johnson, B. K., & Bertus, E. L. (1996), "Figurative Language Occurrence and Co-Occurrence in Contemporary Literature", *Advances in discourse processes* 52, 83-98.
- Lakoff, G. (2007), "Cognitive models and prototype theory", *The cognitive linguistics reader*, 130-167.
- Langacker, R. W. (1990),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1(1), 5-38.
- Lin, J. W. (2009), "Chinese comparatives and their implicational parameter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7(1), 1-27.
- Lin, Jingxia, & Jeeyoung Peck(2016), "Classification of Mandarin Chinese simple adjectives: A scale-based analysis of their quantitative denotations," *Language and Linguistics* 17(6), 827-855.
- Lyons, J. (1982), "Deixis and subjectivity: Loquor, ergo sum?", *Speech, place and action: studies in deixis and related topics*, 101-124.
- Napoli, D. J. (1983), "Comparative ellipsis: A phrase structure analysis", *Linguistic Inquiry* 14(4), 675-694.
- Peyraube, A. (贝罗贝 1989), "History of the comparative construction in Chinese from the 5th century BC to the 14th century AD", i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nology, 589-612.
- Stojanovic, I. (2015), "Evaluative adjectives and evaluative uses of ordinary adjectives", *Proceedings of LENLS12: Language Engineering and Natural*

- Language Semantics*, The Jap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Traugott, E. C. (1989),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s in English: An example of subjectification in semantic change", *Language*, 31-55.
- Ulan, R. (1972), "Some Features of Basic Comparative Constructions",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9, 117-162.
- Verstraete, Jean-Christophe (2001), "Subjective and objective modality: Interpersonal and ideational functions in the English modal auxiliary system," *Journal of pragmatics* 33.10: 1505-1528

〈단행본〉

- 北京大学中文系现代汉语教研室编(2006), 《现代汉语》, 北京: 商务印书馆.
- 陈新仁(2017), 《汉语语用学教程》, 广州: 暨南大学出版社.
- 冯胜利(2000), 《汉语韵律句法学》,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高名凯(1948), 《汉语语法论》, 民国丛书第四编, 上海书店.
- 国家汉办孔子学院总编(2010),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蒋绍愚·曹广顺(2005), 《近代汉语语法史研究综述》, 北京: 商务印书馆.
- 黎锦熙(1924[1933]), 《新著国语文法》, 北平: 民国丛书第五编.
- 李宇明(2000), 《汉语量范畴研究》, 武汉: 华中师范大学出版社.
- 刘焱(2004), 《现代汉语比较范畴的语义认知基础》, 上海: 学林出版社.
- 刘月华 主编(1983),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陆俭明·沈阳(2004), 《汉语和汉语研究十五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吕叔湘(1942[2002]), 《中国文法要略》, 沈阳: 辽宁教育出版社.
- 吕叔湘(1944), 《汉语语法论文集》, 北京: 商务印书馆.
- 吕叔湘(1979), 《汉语语法分析问题》, 北京: 商务印书馆.
- 吕叔湘(1999),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 马建忠(1898[1998]), 《马氏文通》, 北京: 商务印书馆.
- 沈家煊(1999), 《不对称和标记论》,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 太田辰夫(1958[2003]), 《中国语历史文法》, 东京: 江南書院[蒋绍愚·徐昌华译, 《中国语历史文法(修订译本)》],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王力(1943), 《中国现代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 王力(1958[2013]), 《汉语史稿》, 北京: 中国书局.
- 许国萍(2007), 《现代汉语差比范畴研究》, 学林出版社.
- 袁毓林(1993), 《现代汉语祈使句研究》, 北京大学出版社.
- 张平(2007), 《汉语的位序变换——“形容词+点儿”状补换位专题研究》, 长沙: 湖南大学出版社.
- 张谊生(2000), 《现代汉语副词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 赵元任(1979), 《汉语口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 朱德熙(1982),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 Chafe, W. L., & Nichols, J. (Eds.), (1986).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Comrie, B. (1985), *Tense (Vol. 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rn, Laurence Robert (1972),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logical operators in English*,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Jespersen, O.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Allen & Unwin.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Volume 2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nter, Y. (2014), *Veridicality, Modality and Acceptability: Semantics and Pragmatics of BEFORE*, Tel-Aviv University.
- Roelofsen, F. (2008), *Anaphora resolved*, Institute for Logic, Language and

Computation.

Watts, R. J. (2003),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ip, G. K. (1949),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Press.

〈사전 및 기타 참고자료〉

吕叔湘 主编(1980[1999, 2002]),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孟琮·郑怀德·孟庆海·蔡文兰(1999), 《汉语动词用法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王还 主编(1985), 《现代汉语频率词典》,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郑怀德·孟庆海(1991), 《汉语形容词用法词典》, 长沙: 湖南出版社.

CCL 코스 : <http://ccl.pku.edu.cn>

BCC 코스 : <http://bcc.blcu.edu.cn>

구글 학술: <https://scholar.google.co.kr>

【中文摘要】

现代汉语细微差别比较句研究

首尔大学 中文系

梁建芬

本文旨在探讨现代汉语中三种意义相近的比较句型：“X 比 YW 一些”、“X 比 YW 不了多少”和“W 不到哪里去”的语义、句法和语用功能。比较是人类最为常见的认知方式之一，以往的比较句研究一般关注静态的比较句式，而本文借鉴语用学等理论，集中讨论人类在表达比较概念时，通过哪些语法手段来表达说话人的立场、态度和情感。通过对比较句式的一般句型和细微差别带来的比较句式变体的语料调查分析，本文旨在总结和归纳出细微差别比较句式的句法和语义特点，并揭示其特有的话语功能。

为此，本文提出并讨论了以下三个问题。第一，三种细微差别比较句的比较结果项各自具有哪些特征？第二，细微差别比较句的语义有哪些相同与不同之处？第三，细微差别比较句的主体和客体之间的关系是什么？在表达比较时，说话者又会采用何种手段来表达自身的见解。本文所论述的内容概要如下：

首先，三种句式的比较结果项存在共同点和差异。其共同点在于，比较结果项一般只能由性质形容词来充当，而状态形容词由于不具备量度的差异，不能用于比较句结构。此外，有一些成对出现的单音节形容词，如好、坏、大、小。值得注意的是，单音节量度形容词的使用频率极不均衡，积极形容词的使用频率远远高于消极形容词。然而，这三个句式的比较结果项也

存在差异。就“X比YW一些”句式而言，结论项最为丰富，除了性质形容词外，还包括了许多动词性成分，如，有+抽象名词、动补短语、心理动词等，在这种情况下，动词可以像形容词一样表达程度上的差异。而在“X比YW不了多少”句式中，比较结果项主要由一些可量化的形容词和评价性形容词(如“高明”)构成。在“W不到哪里去”句式中，可用于比较结果项的形容词词汇主要集中在表示评价意义的“好、差、坏”等方面。

其次，本文还探讨了三种细微差别比较句的语义特征。由于比较主体和比较客体之间的关系不同，因此将细微差别比较从不同的角度进行分类，分别为客观性比较、差等比较、同等比较、反向比较和证据性比较。在“W一些”和“W不了多少”比较句式中，如果比较主体和比较客体属于同一属性，则将其视为客观性比较和差等比较。而在“W不了多少”和“W不到哪里去”句式中，由于否定词“不”的存在，使得比较句式呈现出同等比较和反向比较的特点。此外，“W不到哪里去”比较句式强调说话人的主观态度，即强调比较对象之间的相似性而不涉及基于数字的客观比较，因此分句中的前一部分经常会用来强调说话者判断微妙比较的依据或理由。

最后，本文探讨了细微差别比较句的语用特点。在“W一些”比较句式中，当说话人意图表达主观感受时，通常会借助情态副词和情态动词。情态副词种类繁多，其中，与正期望副词共同出现的有“的确”、“确实”、“诚然”等，而与“稍微系”副词共同出现的情况也不少，例如“略”、“稍”、“稍微”、“略为”、“稍许”等。相反，表示意外性意义的反预期副词“反而”和“居然”则较少出现，因为它们与“一些”比较句的客观性不相符合。在考察情态动词的主观性特征时，本文主要基于Palmer(2001)对英语情态动词的阐述，选择了“要”、“能”和“会”这些在“一些”比较句中最为常见的情态动词，并讨论了与“一些”比较句相关的主观性。

“W不了多少”比较句式的语用特征主要有两个特点：夸张和反预期。在表达夸张式的比较时，比较主体和比较客体一般不具有相同的属性，说话者往往寻找比较主体和比较客体之间的相似之处，或者将某种抽象的事物

用具体的事物来比较。夸张比较根据比较主体和比较客体之间的差距，进一步区分为比喻式夸张、附加式夸张和对比式夸张。在表达反预期比较时，本文参考了 Dahl(2001)对中性信息、反预期信息和预期信息三个方面的阐述，考察了“W 不了多少”比较句的语用特征。在对话或独白的语境中，说话人通常使用“发现”、“猜想”、“看来”、“觉得”等词汇来表达反预期信息。此外，当伴随着“其实”、“居然”、“简直”等反预期副词时，它显示出说话者强烈的意外性。

“W 不到哪里去”比较句式的语用特征主要体现在三个方面。首先，使用情态连接词“再……也”、“即使”、“就算”等来强调说话人的主观判断。因此，它通常用于因果关系和转折关系的复句环境中。在这种比较思维中，比较基准一般被省略，隐含的信息是说话人心中的某种判断，而且该判断还与整个社会群体的思维方式有关，因此具有较强的文化特性。其次，“W 不到哪里去”比较句式还可以与情态副词“当然”、“肯定”等一同使用，以强调说话人的理性猜想。在这种情况下，这个比较句式更多地体现了说话人的客观分析能力和逻辑思考能力，而非主观情感。最后，“W 不到哪里去”比较句式具有很强的主观性，因此它经常被用作一种委婉的表达方式，如责备或不满。说话人试图通过使用这种比较句式来避免直接的批评或指责，从而保持良好的人际关系和社交礼仪。

综上所述，三种细微差别的比较句式都具有各自独特的语义和语用特点，它们之间不可互相替代，各自具有其独特的价值，其多样性和复杂性反映了汉语比较句的多样性，为语言使用者提供了更多选择空间。同时，这也提醒了汉语使用者在使用细微比较句时应需要注重语境，以确保表达的准确性和合理性。

关键词：比较句，客观比较，主观比较，差等比较，反向比较，预期比较，反预期比较，夸张比较，情态动词，情态副词，评价形容词，话语功能
学 号：2012-31255